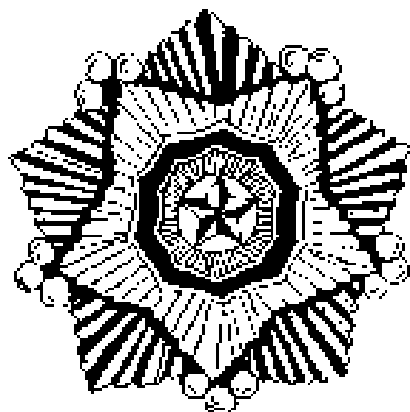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7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7호

(루계 제 717 호)

차 례

수령영생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3
7 월의 만수대	5
금수산기념궁전 계단을 오르며	6
영원불멸할 태양의 노래	7
백송리의 진달래	16
하늘이 정해준 성지	22
승리의 조준경	22
그날 그 시간만은	23
금수산기념궁전	2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24
언제나 이 마음속에	24
어머니의 소원	24
백산의 종소리	25
위대한 수령의 슬하에서 세계적인	33
대문호가 태어난다(3)	33
주체문학의 대강	36
그모습 그마음은	36

장군님의 새벽길	36
인민의 보증	37
교정의 백양나무	37
새벽길의 발자욱	38
내 삶의 향기.....	39
전 쟁.....	40
아버지의 군복.....	40
회답할때가 되었다.....	41
고지의 흙 한줌	54
한그루의 살구나무.....	54
마음속 찬사	56
우리는 약속했다	57
농장별 소묘	67
나는 불을 켜다	67
리규보와 서사시 《동명왕편》	69
옥화	70
사랑과 철학	72
제대병사 편지.....	74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유산.....	75
약값이 귀중한가 생명이 귀중한가.....	76
선군시대 아이들	77
경구, 격언.....	78
어머니의 궁지	79
참다운 사랑이란	79
《전국문학축전》 총화가 있었다.....	80

수령영생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위대한 인간이 남긴 자취와 공적은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린다.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혁명적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상사람들의 열렬한 경탄과 찬양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주체문학의 영원한 형상대상, 형상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건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수령영생주제문학은 선군시대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선군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전면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어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크나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수령님을 더욱 절절히 그리며 흠모하고있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영생을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을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구호의 사상을 반영한 가요를 창작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창작가들을 이끄시였다.

창작가들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영생념원의 사상감정이 반영된 수령영생송가를 창작하기 위하여 고심하고있을 때 가요작품을 여러차례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송가작품에서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에 력점을 찍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수령님을 흠모하는 열렬한 감정과 함께 장중한 감정도 있어야 하고 수령님의 뜻을 끝까지 꽃피워가려는 신념과 맹세를 담은 감정도 있어야한다고 하시면서 작품의 정서와 양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창작가들

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모아 수령영생가요를 빠른 시일안에 창작해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된 가요작품을 주의깊게 들어보시고 가사내용을 《위대한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고쳐주시였으며 수령영생의 신념이 가요형상에서 더욱 강조되도록 이 구절을 마지막에 후렴으로 반복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제목의 마감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이 부각될수 있도록 《계시네》라고 더 써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수령영생가요의 품격을 훌륭히 갖춘 가요《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영생가요들의 창작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며 영생의 신념을 구현한 시작품들과 소설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내도록 창작가들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영생주체문학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에 얼마나 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 하는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의 창작과정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령도의 그 분명한 나날에 장편소설 《영생》의 종자와 이야기줄거리, 생활세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장편소설 《영생》의 창작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반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작품에 넣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계셨던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담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장편소설을 훌륭히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은 또 하나의 수령영생주체문학의 본보기로 완성되어 주체86(1997)년 6월에 발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어!》, 《영원하라 동지에의 력사여》, 《영원무궁하여라, 조선의 미래여》, 가사들인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 《높이 들자 붉은기》, 서정시들인 《아, 4월이여 목메이는 그리움이여》, 《수령님과 봄》, 《조선의 세월》, 《영생의 비결》, 단편소설들인 《동지에 대한 추억》, 《상봉》,

《새벽노을》등 수령영생주제문학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창조된 수령영생주제문학은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수령형상문학의 독특한 형태로서의 수령영생주제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진리와 혁명적신념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것을 기본요구로, 과업으로 하고있다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의지는 수령영생주제문학작품들에 관통되어있는 사상적알맹이이며 기본지향이다. 수령영생주제문학작품들에서 모든 인물성격들과 생활사건들은 이 영생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며 거기에 복종되어있다.

수령영생주제문학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칭송하며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이 끝없이 위대하고 영구불멸하다는것을 깊이있게 천명하는 특성을 나타내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등 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을 폭넓게 형상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전세계사적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비록 서거하셨지만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는것과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더불어 오늘도 래일도 줄기차게 흐르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수령영생주제문학은 그 양상, 정서적색갈에 있어서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영생하신다는 신념과 의지를 구현한 이 문학은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을 숭엄한 사상감정으로 칭송하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이 문학은 칭송과 폐찬의 정서로 일관되어있으며 한없이 숭엄하고 장중한 정서적색갈을 띠고있다. 이러한 정서적색갈, 양상적특성은 작품들의 소재와 주제사상적내용, 형태상특성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나고있지만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부각시키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영생문학이 새롭게 창조발전되고있는것은 인류의 진보적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사변이다. 인류의 진보적문학발전의 력사는 수천년을 헤아리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가진 문학작품들이 수많은 창조발전되었지만 수령의 영생을 이처럼 뜨겁

게 노래한 작품은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창작된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하여 형상한 문학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고 수령영생주제문학의 력사가 펼쳐진것은 선군조선의 문학에 특기한 일이며 인류의 진보적문학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혁명적현실은 수령영생주제문학을 더 훌륭히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 그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은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며 의지이다. 세월이 열백번 변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을것이다. 이 신념과 의지는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 선군혁명투사로 키우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으로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도록 교양하는데서 수령영생주제문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령영생주제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과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사람들을 수령영생의 진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령영생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며 모든 활동과 투쟁을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진행해나가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구상이 이땅우에 찬란히 꽃피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영생하시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수령님의 높은 뜻과 구상을 실현하여

수령영생위업을 현명하게 정도하시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도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근본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는 진리와 신념을 깊이있게 형상하려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이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는것은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년대에 벌리신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폭넓게 형상하면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을 꽃피우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로 모든 사업을 벌려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위인적품모를 감명깊게 그려내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가 있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깊은 사상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도 깊이있게 형상화되어있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전후한 시기에 있는 격동적인 사건들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감동적으로 시화하였다. 금수산 기념공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신 사실,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도록 하신 사실 등에 대한 감동적인 시적화폭을 통하여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정도가 있기에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

사는 주체조선의 번영과 더불어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린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를 옹계그려내는것은 수령영생주체작품창작에서 필수적요구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사상리론의 위대성, 정도의 위대성,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그려내며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도덕의리심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잘 형상해내는데 수령영생주체문학을 훌륭히창작해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수령영생주체문학작품의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리러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니고있는 무겁고도 책임적인 임무이다.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념원에 맞게 수령영생주체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정웅

7 월의 만수대

리명옥

7월의 만수대

아침노을 붉게 물든 이 언덕에
수령님을 찾아
송이송이 꽃을 안고온
귀여운 아이들아

수령님 모신 설맞이무대에서
피끌새 노래 한번 불러드리지 못한 너희들이건만
작은 그 가슴들엔
수령님 생각이 너무도 짙 차있구나

금시라도
수령님 넓은 품에 와락 안기여들듯
별같은 눈동자 예쁜 그 모습들...
아, 우리 수령님
너희들을 기다려
낮이나 밤이나 이 언덕에 서계시는것만 같구나

아이들속에 계시면

만시름을 잊으시던 우리 수령님
오늘도 이 언덕에서
예대로 꽃봉오리들속에 계시는구나
하루에 한시간씩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낼수만 있다면
이제 더 늙지 않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이들아, 너희들의 모습에 실리어온다

어찌 알랴 너희들이야
피눈물이 이 땅을 적시던 7월의 그날
수령님 늘 쓰시던 수첩에서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꼭 먹여야 한다는
그 글발을 읽으시며
우리 장군님 어이하여 그리도 목메이셨는지

해마다 첫물과일이
너희들의 손에 어떻게 제일 먼저 쥐여지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의 콩우유차는 어떻게 네거리한복판을
달리는지
재간둥이 꼬마들이 날마다 자라나는
소년궁전 은빛추녀는 어이하어 더 빛을
뿌리는것인지...

아, 수령님 한평생 사랑하신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고스란히 안으시고
수령님 그 사랑으로 뜨겁게 보살펴주시는
장군님 계시기에
너희들의 웃음이 오늘도 맑고 청청한것이란다

마음껏 자라거라 아이들아
너희들의 야영길 손저어 바래시며
오늘도 전선길에 오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계신단다

수령님과 꼭같이신 장군님이 계신단다

전선길의 눈비 헤쳐 안아오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장 부럼없는 행복동으로 너희들을
내세워
수령님앞에 세워주신 장군님
장군님이 계시여
수령님은 만시름을 잊으시고
오늘도 이 언덕에서 아이들을 만나고계시는구나

아, 만수대 만수대는
우리 수령님과
이 나라 아이들이 만나는 영원한 상봉의 언덕
김일성민족의 천만년 후손들이 길이 만나는
태양과 미래의 위대한 상봉의 언덕!

금수산기념궁전 계단을 오르며

홍현양

한계단 또 한계단
밟고 오르면
살아온 한생이 떠오릅니다
안겨자란 그 품을 생각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이시여

승임한 정적속에
오르고 또 오르며
키워주신 그 손길을 잡아봅니다
농사일도 알아보시며
담배도 허물없이 권하시던
인자하신 그 음성을 들읍니다

부르고 불러도 다함이 없는
친근한 아버지이시여
웃으시며 미중나오실듯
생시처럼 꿈속인듯
웃으시며 한품에 안아주실듯
눈시울은 자꾸만 젖어듭니다

흰쌀밥이 잦아들던
밥가마도 열어보시고
부엌의 수도꼭지도 틀어보시던
아, 그날처럼
그날의 수령님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금수산기념궁전 계단을 오릅니다

어제날처럼 오늘도
오늘날처럼 언제나
아버이수령님과 나눌 이야기
우리 오르는 이 계단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말과 말이
우리 그리움속에 있습니다

아, 아버지수령님은
망국노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늘이십니다
우리 운명의 태양이십니다
빨찌산 우등불가 《사향가》 노래소리에
아버이수령님 한평생 사랑하신
조국의 숨결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서리고서린 그리움이
한자욱 또 한자욱에 젖어들고
언제 한번 우리와 떨어진적 없는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끝없이 오가는 정으로
우리 오르는 이 계단에 흐릅니다

아 아뢰고싶은 천만마디 소중한 말을
가슴에 안고
우리 오르는 금수산기념궁전
이 계단은
수령님의 영생을 소원하는
우리의 불타는 마음인양 솟았고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라 하신
아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안고
우리 금수산기념궁전 계단을 오릅니다
피끓는 맹세의 한길
태양의 하늘길을 우리 오릅니다

영원불멸할 태양의 노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한 시가작품에 대하여—

서재경

최근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한 혁명적시가작품 26편을 새로 발굴하여 내놓았다.

이 시가작품들은 알려지자마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널리 애송되고있다.

송가작품들의 매 시행, 매 문장마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의가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항일혁명전구에서 그이께 삼가 드린 영광의 환호성이 메아리치고있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다시금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자욱자욱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님의 발자취를 더듬게 하는 이시가작품들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는 비상히 큰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한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된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송가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발전의 길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세상에는 혁명을 시작한지 오랜 나라도 있고 적지 않은 수령송가문학작품들이 창작된 실례도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수령의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수령송가문학이 창작되고 수령의 혁명활동과 더불어 혁명의 단계와 단계를 이어 더욱 왕성하게 창작되어 대전성기를 펼친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수령송가문학이 개척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적 양양의 필연적산물이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패와 교훈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지만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고 령도자가 없어 가슴치며 모태기던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혁명의 지침이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은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야 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하기에 청년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수령님의 령도적권위와 신변안전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온 민족의 념원을 담아 수령님의 존함을 《한별》로,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김일성》으로 고쳐드리고 높이 칭송하였다.

이러한 역사적현실을 반영하여 창작된 시가작품들이 바로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다.

혁명시인 김혁동지가 지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칭송하여 부른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문학의 첫 개척기의 작품이였다. 이 작품은 단순히 령도자를 흠모하고 칭송하는 송가로 그친것이 아니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역사적 체험과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수령송가문학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혁신적의의가 있는것이다.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송가문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수령의 위대성을 직접 노래하는 시문학에서 기본은 송가문학이다.

항일무장투쟁이 강화발전되면서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명성은 더 급속히 넓은 지역으로 파급되었으며 수령님을 따르는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경모의 정은 비상히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령칭송시가들이 더 많이 창작된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칭송한 시가작품들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한 혁명적시가작품들은 수령님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에 넘치고 열광적이었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주는 동시에 수령송가작품들이 항일혁명시문학에서 주류를 이루고있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초석을 마련하는데서 중핵적의의를 가지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작품들은 영원불멸할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사상주제적내용으로 하여 그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그이를 《백두산의 태양》, 《조선민중의 해님》, 《민족의 구성》으로 격조높이 칭송한것이다.

태양과 별은 오랜 옛날부터 은혜로운 빛과 생명,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었으며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태고적부터 조종의 산, 조선의 신성한 정기가 있는 성산으로 간주되어왔다.

우리 수령님을 백두산의 태양으로, 조선민중의 해님으로, 민족의 구성으로 높이 격찬한 이 호칭들에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인민의 모든 소망과 념원을 실현시켜주시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굳은 신념이 반영되어있었다.

이 존칭수식사들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였던 항일혁명투쟁의 초창기에 그 역사적원인을 두고있다. 그러던것이 항일혁명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뚜렷이 결부하여 부각되게 된것은 수령님의 령도적권위가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에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는

동시에 수령송가문학발전에서 새로운 큰걸음을 내디디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태양의 모습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가작품들로서는 《조선에 **김일성** 나타났네》, 《조선민중의 해님》, 《큰 발자국》, 《진달래꽃》, 《장백산 하늘높이 솟았네》, 《푸르른 강산에 영웅이 나타났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가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수령님을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구성으로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조선에 **김일성** 나타났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백두산에 붉은 태양 솟았네
조선에 **김일성** 나타났네

삼천리 강산에 빛을 주는 그이
신음하는 겨레의 구성이라네

시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이의 존함과 결부하여 백두산에 솟아오른 《붉은 태양》으로 삼천리강산에 빛을 주는 《겨레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였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붉은 태양》으로, 《겨레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것은 그이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께 조국과 민족의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며 싸워나가려는 이 시기인민들이 지니고있었던 사상감과 열정의 분출이며 그에 대한 시적일반화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민족의 구성으로 칭송하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은 《조선민중의 해님》에서도 감명깊게 노래되고있다.

...

압록강이 깊고깊어도
김사령의 은정보다 깊지 못하네

혁명의 수령 **김일성**
조선민중의 해님이시네

시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시화하면서 수령님을 《혁명의수령》, 《조선민중의 해님》으로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작품에서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어머니사랑을 압록강이 깊고깊어도 김장군님의 은정보다 깊지 못하다고 절절하게 노래하면서 그것을 더욱 승화시켜 수령님을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혁명의 수령으로 조선민중의 해님으로 높이 우러러 격찬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이 벌어지는 영웅적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적화폭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겨레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 사상감과 정서는 《푸르른 강산에 영웅이 나타났네》, 《큰 발자국》, 《진달래꽃》과 같은 시가작품들에서도 훌륭히 구현되어있다.

《푸르른 강산에 영웅이 나타났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장군 **김일성**》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선군사상의 절출한 창시자이시며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웅중의 영웅으로, 장군중의 장군으로 높이 송찬하고있으며 《큰 발자국》에서는 항일의 전장들에 《큰 발자국》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을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통하여 노래하면서 수령님을

《일제격멸의 영웅》, 《조국광복의 사령》, 《조선민족의 구성》으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진달래꽃》에서도 백두산의 붉은 태양 솟아 빛나니 진달래꽃 핀 강산에 행복의 노래 높다고 랑만 적정서를 담아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의 붉은태양》, 《구국의 은인》으로 레찬하고 있다.

수령송가문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이채롭게 장식하면서 높이 부른 이 전인민적인 호칭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고르고 골라도 그 이상 더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한량없는 위대성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의 노래이며 영원한 송가이다.

우리 인민이 어제도 오늘도 환희와 민족적공지에 넘쳐 친근하게 부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 존칭수식사들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 말로 우리 민족과 조국의 운명을 이끌어줄 위대한 은인이시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력사가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다는 력사의 철리를 다시금 힘있게 깨우쳐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혁명시가작품들에서 열렬히 레찬한 존칭수식사가 가지는 참의미와 무게가 있으며 수령님을 칭송한 혁명시가작품들이겨 둔 자랑스런 성과의 하나가 있다.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한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항일혁명시가작품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있다.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혁명적시가작품들에서는 우선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데 초점을 집중하고 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사상, 일심단결의 사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시가작품들은 《김일성 마을에 호소하시니》, 《창과 칼 버리어 살길을 찾자》, 《하나로 뭉치여 왜놈 치세》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다. 수령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은 수령의 사상의 위대성에 공감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체득할 때에만 수령의 사상과로선을 높이 만들어나갈수 있으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시 《김일성 마을에 호소하시니》에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성전으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

김일성 마을에 호소하시니
인민들 모두다 분발하네
총을 들고 칼 잡고 앞을 다투어
유격전을 벌리러 산으로 가세

작품에서는 어느 한 마을을 해방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항일전에 일떠설것을 호소하시자 《총을 들고 칼 잡고 앞을 다투어 유격전을 벌리러 산으로 가세》라고 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의 열광적인 모습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싸우는 그 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시 《창과 칼 버리어 살길을 찾자》는 높은 정론성과 강한 호소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에 관한 사상을 전면에서 제기하고 하늘도 땅도 우는 이 땅우에 검은 구름 가시게 하고 가난한 겨레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를 활짝 꽃피우는 길은 오직 해방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총대사상을 받들어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설득력있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로 뭉치여 왜놈 치세》를 비롯한 여러 시가작품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사상, 일심단결의 사상을 시적화폭에 담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하고 있다.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가운데서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레찬한 작품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 기발 드니》, 《김일성, 대오를 이끌고 오셨네》, 《김일성부대 산에서 내려왔네》, 《북두성 빛나네》, 《조선빨찌산은 천신이야》, 《백마장군》, 《달구지질》, 《손벽치기노래》를 비롯한 많은 시가작품들에는 천출명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비범한 군사적지략이 감명깊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중에서 《북두성 빛나네》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그 거대한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한 특색있는 시가작품이다.

불빛이 비치네
방안을 환히 밝히네
김일성장군 지휘원들 마주하시고
적병영 기습할 작전 세우시네

북두성 빛나네

밤길을 환히 비치네
김일성 장군 산에서 내려 오시니
왜놈들 살구멍 찾아 뛰네

시에서는 불빛이 환히 비치는 방안에 대한 시적화폭, 복두성이 빛나는 밤경정에 대한 시적화폭의 중심에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있을뿐아니라 그이께서 지휘원들과 함께 적병영을 기습할 작전을 세우시고 야간전투를 통해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통쾌한 장면을 눈앞에 보이는것처럼 방불하게 노래하고있다. 방안을 밝히는 등잔 불빛과 밤길을 비치는 복두성에 의하여 상징되는 암흑과 광명이라는 대조적인 정황을 주고 광명이 암흑을 몰아내듯이 일제침략자들에게는 멸망을,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승리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한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것은 개성이 뚜렷하고 의미심장한 시적발견이 아닐수 없다. 참으로 작품은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수령님의 전략전술의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김일성부대 산에서 내려왔네》, 《김일성, 대오를 이끌고 오셨네》는 서정적주인공이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격동적인 사변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느낌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 점에서 두 작품이 공통적이지만 형상수법에서는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도 이 두 작품은 다같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여 원수 왜놈들을 죽치고 인민들을 구원하시려고 신묘하고 령활무쌍한 전투작전을 펼치시는 빨찌산 김대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환희의 감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김일성, 대오를 이끌고 오셨네》에서는 왜놈군대가 마을에 나타나 식량과 집짐승들을 약탈하기 위해 온갖만행을 감행하지만 인민들은 원수들에게 항거하여 쌀감춘 곳을 대지 않는다. 그러자 왜놈장교는 졸병들에게 기관총사격을 명령한다. 그 시각 기관총잡은 놈이 황천객이 되었다. 웬일인가. 김일성장군님께서 대오를 이끌고 인민들을 구원하러 오셨던것이다. 시의 내용은 이렇듯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이야기속에 담긴 뜻은 매우 깊다. 세상은 왜놈세상이었으나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오로지 김일성장군님께로만 향하였다. 살래야 살수 없고 의지할래야 의지할데가 없던 그 암담한 세월에 원수들의 총구앞에서도 꺾이지 항거할수 있는것은 오로지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그이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였으며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우러렀기때문이었다. 시는 바로 이러한 당대 시대모습을 진실하게 담고있다.

《김일성부대 산에서 내려왔네》는

여보소 벗님네들!
귀 기울이고 들어보소

압록강의 물결소리가
아닐세 물결소린 아닐세
김일성부대 산에서 내려왔네

이렇게 처음부터 수사학적인 질문의 수법으로 압록강과 송화강기슭을 종횡무진하면서 원수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는 김일성장군님이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한 전투모습을 랑만적인 색조로 부각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민족의 의기를 떨치시는 수령님에 대한 경탄과 칭송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이밖에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가, 전설적영웅으로서의 위대성을 칭송한 작품들에는 《김일성 설령을 넘어》, 《백마장군》, 《남호두》와 같이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과 연고관계가 깊은 전설적인 백마와 혁명전적지들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변화무쌍한 유격전법에 대한 경탄과 칭송의 감정을 노래한 시들이 있는가 하면 《조선빨찌산은 천신이야》와 같이 단숨에 백리, 천리를 달려 적병들을 무찌르는 신묘한 김대장의 전법앞에서 났을 잃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빨찌산은 천신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적들의 멸망상을 통해 일제의 백만대군을 취락파락하시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위대한 명장이심을 반증하고있는 작품도 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혁명적시가작품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노래함에 있어서 언제나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숭고한 령도풍모, 능숙한 조직력, 항상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인민적령도방법, 온갖시련과 난관, 역경속에서도 최후승리를 확신하시여 통이 크게 작전을 펴나가는 호방한 풍모 등을 사상정서적내용의 기본바탕으로 하고있으며 구체적인 시적계기와 형상의도 창작적개성에 따라 다양한 시형상세계를 펼치고있다.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에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조국애, 인간애, 혁명적동지에 등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에 대한 레찬은 중요한 형상세계를 이루고있다.

수령칭송시가작품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수령님과 혁명전사, 수령님과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를 풍부한 사료를 가지고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는것은 주목할만한일이다. 특히 수령칭송시가작품들에서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풍모를 보여준 대표적인 시가작품은 《눈꽃이 날리네》, 《한되박의 쌀》들이다.

시 《눈꽃이 날리네》에서는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의 앞장에 서시여 대원들에게 육친의 정과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들을 항일성전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풍모가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노래되고있다.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나무는 흰옷 입고 산은 새 이불 덮었네
홀옷을 걸친 유격대원들
우등불 마주하면 잔등에 바람 스미네
장군과 전사들 어깨나란히 앉아
더운 피와 마음으로 서로 덥혀주네
군사를 이끄신 김일성사령
덧옷을 벗어 전사에게 씌워주시네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산나물 풀뿌리 모두 눈속에 묻혔네
여러끼 번진 유격대원들
산 넘고 령을 지나도 지칠줄 모르네
피어린 싸움에서 고락을 같이하며
종횡무진으로 적들을 족치네
대오를 이끄시는 김일성 장군
눈길을 헤치며 나는듯 앞서시네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사랑의 한몸에안아 혁명의 진리와 투쟁방법을 깨우쳐주시고 혁명가의 참된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따스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라는 혁명의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열화와 같은 동지애는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항일전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불려일으킨 힘의 원천이였고 원동력이였다.

시에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사실이 진실하게 시화되어있다. 눈꽃이 쉬임없이 날리는 추운 겨울밤 우등불곁에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자신께서 걸치신 덧옷을 벗어 전사에게 씌워주시며 그들을 육친의 정으로 따스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 작품에는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더운 피와 마음으로 언가슴을 녹여주시는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풍모가 눈물겹게 형상화되어있다. 작품은 유격대원들에게 베푸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을 눈꽃이 날리는 밀림속을 배경으로 하여 선명하게 펼쳐보인데 이어 그 사랑, 그 은정을 받아안은 유격대원들이 여러끼를 번지고도 지칠줄 모르고 산을 넘고 령을 지나 종횡무

진하여 원썬들을 족친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작품에 주어진 눈꽃이 날리는 밀림속의 정광, 홀옷을 걸치고 끼니를 번지며 행군해가는 유격대원들의 모습에 대한 시적형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과 고귀한 은정을 형상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시의 마지막부분에 주어진 《대오를 이끄시는 김일성장군 눈길을 헤치며 나는듯 앞서시네》라는 시적표현은 위대한 사랑의 손길로 대원들을 원썬격멸의 성전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집약적으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시 《한되박의 쌀》은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고귀한 은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경위대원 간수한 한되박의 쌀
김장군님 마을에 남겨두라네
산밭 타고 팔백리 행군을 하고
산나물도 눈속에 묻히었건만
김장군님 조용히 가르치시네
《동무들, 언제나 명심해두자
인민들은 우리의 부모형제요
인민을 도우면 승리를 하오》

시는 매우 간결하지만 그 사상정서적향기는 참으로 크다. 비록 8행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에 얼마나 크나큰 인민사랑의 대하가 흐르고있는것인가.

참으로 《한되박의 쌀》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시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 항일전의 나날에 이미 현실로 꽃피났음을 뜻깊게 확증해주고있다.

시 《추리나무숲 이루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깊은 사색과 정서를 불려일으키는 이 시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치게 하고 래일의 풍요한 열매가 주렁진 푸른 숲을 그려보게 할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조국애를 엿볼수 있게 하는 열정의 송가이다.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항일혁명 시가작품에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려는 인민들의 뜨거운 지향과 결의를 반영한 작품들도 있다.

이러한 사상감정을 담은 대표적인 시가작품들로서는 《어머니 노루가죽 울리네》, 《김사령이 오신다네》, 《이라 이 소 산길을 타자》등을 들수 있다.

시 《어머니 노루가죽 울리네》는 아들을 항일전에 내보내는 한 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께 지성품으로

노루가족을 삼가 올리는 소박하고도 진실한 생활을 형상적으로 담고있다.

누른색금빛털노루가족
땅우에 퍼머는 습기 막네
어머니 살림이 가난하여
항일전 나서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면서
노루가족 올리라 당부하네
누구에게 드리나 묻는 말에
어머니 가슴속 말을 하네
《김일성장군께 올려다오》

작품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한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살림이 가난하여 어머니는 유격대로 떠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가정의 유일한 재산으로 소중히 보관하고있던 노루가족 한장을 꺼내놓으며 아들에게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소원을 담아 당부한다. 《김일성장군께 올려다오》라고, 누른색금빛털노루가족은 습기와 땀기를 막을수 있는것이다. 어머니의 이 지극한 정성을 인적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에 솟아나는 정가로운 샘물에 비기랴, 지동속에 분출하는 활화산의 용암에 비기랴. 이처럼 순결하면서도 강렬한 내적 감정을 안고사는 한 녀인의 지성품에 깃든 사연은 애국애민의 최고화신이시며 민족의 구성이신 우리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들의 축원의 마음이 함축되어있는 전인민적송가이다.

시 《김사령이 오신다네》는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이끄시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 마음에 오시는것을 가장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로,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고 나무를 패여 방을 덥히며 분주하게 서두르는 흥겨운 정황을 노래하고있다.

시 《이라, 이 소 산길을 타자》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려는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 지향이 진실하게 반영되고있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황소를 몰아 산타령 부르며 비오나 바람부나 원호미를 나르고 밤이나 낮이나 쉬임없이 연락을 다니는 소박한 애국농민이다. 작품은 이 서정적주인공의 서정토로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원호사업에 펼쳐나서도록 한 힘의 원천이 군민을 이끌어 나라를 되찾으려고 뫼로속하시며 왜놈들을 무찌르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에 보답하려는 애국충정에 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승냥이왜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수령님 계

시여 마음 든든히 원군으로 나라를 찾는 싸움에 이바지해나갈 철석의 결의를 광만적인 정서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그밖에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항일혁명시작품들가운데에는 《샘물은 영웅들을 키워주오》와 같이 한모금의 샘물을 놓고도 혁명전사들을 숭고한 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는 인상깊은 작품도 있다

2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작품들은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담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세련된 시적기교로 형상하고있다.

항일혁명시작품들의 높은 시적기교는 무엇보다도 철학적으로 심오한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는 데서 찾아볼수 있다.

항일혁명시작품들에 관통되어있는 철학성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에 기초하고있다.

항일혁명시작품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지위와 역할은 조선혁명,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유일한 령도의 중심으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을 끝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의 혈연적인 관계로 뭉치게하는 혁명의 위대한 품으로, 다시말하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이끌어줄 구성으로, 태양으로 격찬하고있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자세와 립장은 수령님을 민족의 구성으로, 태양으로 모신 무한한 궁지와 기쁨, 확고한 신념과 행복으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영원히 모시고 받들어가려는 드높은 열망으로 자랑스럽게 울리고있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항일혁명시작품들에서 철학성은 형상적으로 심화된 깊이있는 생활의 진리로부터 우러나오고있다. 다시말하여 항일혁명시작품들에서의 철학성은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생동한 시형상속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작품들에 관통되어있는 사상예술특성이다. 그 실례를 《조선민중의 해님》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고려삼씨 붉고붉어도
유격대의 기발처럼 붉지 못하네
강철이 굳고굳어도
유격대의 의지보다 굳지 못하네
압록강이 깊고깊어도
김사령의 은정보다 깊지 못하네

혁명의 수령 김일성
조선민중의 해님이시네

시에서는 생활의 진실한 체험으로 안받침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동한 생활현상들의 구체적인 대비속에서 깊은 생활의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조선의 유명한 고려삼씨는 붉고붉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붉다 해도 유격대의 기발처럼 붉지 못하다는 시형상은 그 색깔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있는가. 시에서 나오는 붉은 기발은 단순히 색깔에 대한 표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이 불멸의 사상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혁명의 기치, 투쟁과 단결의 기치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다시말하여 그 붉은 기발은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해발이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맹세이며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혁명승리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뚜렷한 상징이다. 고려삼씨가 아무리 붉고붉어도 유격대의 기발처럼 붉지 못하다는 시형상은 이렇듯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깨우쳐주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것이다.

시에서는 기발하게 발견한 이러한 시적계기를 틀어쥐고 형상의 철학적의미를 더욱 승화시키고 있다.

《강철이 굳고굳어도 유격대의 의지보다 굳지 못하네》라는 시형상은 또 얼마나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는가. 강철은 제아무리 굳다 해도 비바람에 녹이 쏘고 굳은 바위에 마주치면 무디여지기마련이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서도 기어이 뚫고나가야만 하는 혁명의 길에서 티끌만한 변심도 순간의 동요도 모르는것이 조선인민혁명군대오의 굳센 의지였다. 사실 항일투사들이 지닌 의지는 일찌기 조국사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역경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보통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솟구쳐일어나 대오의 선두에 붉은기를 더 힘차게 날리며 곳곳이 전진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적필승의 위용과 기상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만이 아닌 신심을 북돋아주는 고무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역사적현실의 목격자, 체험자들인 인민은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진 주체의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고 그 대오를 백절불굴의 강毅한 의지의 소유자의 대오로, 순결의 결정체, 불변의 결정체로 다쳐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정이야말로 압록강이 아무리 깊고깊다 해도 비길수 없다고 진정을 다해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되어온 내면적체험을 결구에서 폭발시켜 《혁명의 수령 김일성/조선민중의 해님이시네》라

고 사람들에게 심원한 충격을 주는 작품의 사상을 밝히고있다.

이처럼 풍부한 생활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생동한 시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하여 가지게 되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회인하였다는데 《조선민중의 해님》의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안겨주는 생명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작품들의 높은 지적기교는 다음으로 통속적이면서도 품위있는 시형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시어와 시문장이 쉽고도 풍부하고 고도로 함축되어있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시가문학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인민성의 높이를 좌우하는 결정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고유한 우리 말 어휘와 인민대중이 늘 쓰는 말에 기초한 인민적인 시적언어의 일관성은 항일혁명시작품들의 언어구사에서 일반적특성으로 되고있다.

장백산 하늘높이 솟아있고
질은 안개 허리에 감도네
높은 령에 붉은기 날리며
김일성 항일로 동포 구원하시네

...

(시 《장백산 하늘높이 솟았네》중에서)

김일성 기발 드니
천군만마 달리네

김일성 명성 높아
왜놈들 벌벌 떠네

김일성 위대하여
사람들 환호하네

김일성 승전하니
모두가 환호하네

(시 《김일성 기발 드니》)

...

앞선 놈 유격대 발견하고서
김일성 나타났다 소리지르니
장교는 살겠다고 먼저 내뛰고
피뢰군 총 버리고 숲속에 숨네

(시 《달구지길》중에서)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혁명적시가작품들에서는 그 어떤 미사려구도, 사상을 애매하게 하는 어려운 표현도 없으며 고유한 우리 말 어휘와 인민대중이 늘 쓰는 말투가 기본으로 되어 다양하게 쓰이고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언어구사들은 군더더기가 없이 집약적이고도 함축된 간결한 표현을 통하여 시적형상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레중한 작품들에서 보게 되는 《높은 령에 붉은기 날리며》, 《김일성 기발 드니/천군만마 달리네》, 《장교놈 살겠다고 먼저 내뒤킵/피뢰군 총버리고 숲속에 숨네》 등은 시형상의 생동성과 명료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고있을뿐 아니라 그자체속에 많은 뜻을 함축하고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높은 령에 붉은기 날리며》라는 시행만 놓고보더라도 험산준령에서 기세 좋게 원썩 일제놈들을 죽치는 조선인민혁명군대오의 용기백배한 모습을 그려보게 하고있을뿐 아니라 높은 곳에서 기세 좋게 펄럭이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붉은 기발을 올려다보며 궁지와 자랑에 넘친 인민들의 가슴 부푼 후더운 정서를 느낄수 있게 한다.

항일혁명시가의 언어표현에서의 간결성은 시어의 어휘구성과 시의 문장조직에서 중요하게 표현되고있다.

물론 시문장자체가 산문에 비하여 짧은것이 일반적현상이지만 시가문학일반을 놓고보더라도 이 혁명시가의 시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짜임 문장으로 일관되어있다.

산까지 우네
 깎깎 우네
 등잔에도 불찌가 맏히네
 기쁜 소식 날아왔네
 ...

(시 《김사령이 오신다네》 중에서)

로야령 아득히 높고높아
 구름 두르고 하늘에 솟았네
 얼음 덮인 봉마다 칼날같고
 층암절벽 깎아지른듯 하여라

(시 《김일성 설령을 넘어》 중에서)

이 시가들에서는 정확히 선택된 꼭 필요한 시어들에 의하여 구성된 시문장조직의 높은 예술적 기교를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시가의 언어표현의 간결성은 또한 시어구성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시가들의 시어구성을 보면 적은음절수로 이루어진 간결한 단어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이 시가들의 음절수를 보면 2~3개 음절 또는 많은 경우 4개 음절로 이루어진 시어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항일혁명시가작품의 언어표현에서는 준말의 사용과 토의 생략, 비유 등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널리 사용하여 시적언어표현의 간결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항일혁명시가들의 언어표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시어의 명료성은 적중한 어휘의 선택과 의미의 평이성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그밖의 반복의 수법과 대조의 수법과 같은 표현수법들을 통한 시적언어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있는것은 단어나 단어의 결합, 시문장의 반복이다. 이러한 수법은 표현하려 하는 사상과 정서적색갈을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청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그것을 강조해준다.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나무는 흰옷 입고 산은 새 이불 덮었네
 ...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산나물 풀뿌리 모두 눈속에 묻혔네
 ...

(시 《눈꽃이 날리네》 중에서)

남호두야
 아홉고개
 고개마다 총소리 울린다
 ...

남호두야
 아홉굽이
 굽이마다 붉은기 날린다
 ...

(시 《남호두》 중에서)

장백산오지 돌길우에
 큰 발자국 남겼네
 항일혁명의 선봉인
 김일성장군 지나가셨네

압록강기슭 모래불우에
큰 발자국 남겼네
일제격멸의 영웅인
김일성장군 지나가셨네

(시 《큰 발자국》 중에서)

여기에서는 반복의 수법이 시가의 사상과 정서를 명백히 드러내고 더욱 강조해주는 표현적기능을 놓고있다. 특히 《큰 발자국》에서 두번째 시행과 네번째 시행에서 의미적색채가 진한 시문장을 련속 반복함으로써 앞의 시행에서 제시한 사상을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표현적효과를 더욱 강조하고있을뿐아니라 힘있는 운물을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표현수법들의 능란한 활용은 시가내용의 명료성과 정서성, 강조하려는 사상감정의 부각, 시적운물의 풍만한 조성 등 다양한 시형상적효과를 나타내게 하는데서 효과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의 통속적이면서도 품위있고 세련된 시형상은 풍만한 서정과 통일된 정연한 론리성과 짝인 시적구성에서도 나타나고있다.

혁명시가작품들에서는 시적구조가 빈틈없이 짝 짝이면서도 그것이 생경한 론리가 아니라 치밀하고도 섬세한 정서조직으로 구현한 능란한 숨씨는 《백마장군》, 《눈꽃이 날리네》, 《한되박의 쌀》, 《진달래꽃》, 《이랴, 이 소 산길을 타자》를 비롯한 모든 시가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데 이것은 항일혁명시가작품들에서 통속적이면서도 품위있는 시형상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항일혁명시가들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련파 시행구성에서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고 명료한 형식을 취하고있는 점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은 련구성에서 《손벽치기노래》와 같이 10개 련으로 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가들에서는 2~4련으로 구성되고있으며 한개 련으로 구성된 작품들도 적지 않다. 이것은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이 짝이고 간결한 시적구성을 낳게 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동시에 평이하고 인민적이며 전투적인 형식을 창조하기 위한데로 예술적기교의 관심이 돌려지고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이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속에서 널리 애송되면서 급속히 전파될수 있었고 오랜 세월의 풍파를 헤치고 고스란히 전승되어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의 높은 시적기교는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와 교양적목적에 맞게 무게있는 시적정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양상의 정서를 살린것, 생활세부적인 분석이 소박하면서도 예리하고 깊이있게 한것 등 품위있고 세련된 솜씨들에서 엿볼수 있다.

참으로 새로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은 주체시가문학의 커다란 자랑이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하여갈 민족의 커다란 재부이며 국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는 실로 크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가작품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시키고 수령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모셔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는데 있다. 또한 이 시가작품들이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시원으로 하는 주체적인 수령송가문학전통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것으로서 그 전통을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칭송한 항일혁명시가작품들이 새로 발굴되어 수령송가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게 된것은 일찌기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주체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로, 만년초석으로 규정해주시고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고 수령송가문학의 대화원을 꽃피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계승하시여 선군문학예술전설위업을 령도하시는 한 우리 문학예술의 앞길에는 언제나 양양한 전도만이 약속되어있다.

모든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고귀한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문학예술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높이 태양의 노래, 수령송가가 대를 이어 더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다.

백송리의 진달래

림금단

진달래 진달래
 포화속의 그 봄날
 내 마음속에 피어난
 백송리 진달래
 먼 세월의 눈비속에서도
 시들지 않아라
 지지를 않아라

1

새봄맞이 진달래
 연분홍빛진달래
 내 한아름 안고
 발걸음 재촉하노라
 푸른 언덕의 수령

부드러운 실바람이 술술 불어와
 내 불을 어루만지누나
 내 머리칼도 훑날려보고
 꽃잎도 살뜰히 쓸어보누나

그리워 그리워 꿈결에도 찾던 수령님
 그 품에 안길듯 달리여가니
 기다리신듯
 우리를 맞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내 목메여 심중으로 아뢰여라
 —어버이수령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전화의 그 봄날 백송리에 오신 수령님께
 진달래꽃다발을 드렸던
 제대군인녀대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령님
 그날처럼 맑게 웃으시며
 이 꽃다발도 받아주시고 말씀도 하시는듯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귀전에 정다와라

—동무들이 왔구만
 그날의 단발머리녀대학생이
 오늘은 조선의 녀류작가라!
 참 대단해...
 인자하고 다심하신 아버지 그 품에 안긴 딸
 행복에 아롱지는 맑은 눈물

아, 세월이여
 흘러갔는가 흘러왔는가
 언제나 여기 백송리에 오면
 나는 열여덟살, 그날의 마음
 수령님 옷소매 부여잡고
 너무 기뻐 두발 동동 구르며
 떨어질줄 모르던 처녀대학생

죄송스럽던 마음 아직도 무겁구나
 지금도 이 가슴에 어려있는
 포연먼지 뽕양게 올랐던 수령님 군화
 이 손으로 닦아드리지 못하였으니

전호의 뜨거운 탄피를 밟으며
 불에 뛴 강물에 젖고 또 젖으며
 화선천리를 주름잡은 그 군화
 그 군화를 신으시고
 불비 쏟아지는 험한 길 헤치시며
 이름없던 작은 산촌마을
 백송리의 종합대학을 찾아오신 수령님

그때는 그 누구나
 전쟁 하나만을 생각할 때
 우리 공화국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미제와의 결전이 한창이던 때

력사의 증견자 너 백송리 밤나무야
 추억의 하늘가에 푸른 가지 펼치고
 너와 나 오늘 다시 이야기해보자
 너의 년륜에 새긴 력사의 사연
 너의 가슴에 새긴 못 잊을 사연

한사람의 전투원이 것처럼 귀할 때도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을
 최고사령관명령으로 대학에 불러주신 수령님
 멀리 산속의 대학을 찾아오시였거니

우리는 수령님께 다 말씀드리고싶었다
 돌격전에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마지막수류탄을 넘겨주던
 그 전우의 말없는 당부를,
 미국놈 줄폭탄에 숨진
 고향집 어린 동생의 복수를

우리 마음 다 읽어보시며

한동안 말씀 없으시던 수령님
소담한 진달래꽃다발 연락우에 놓으시고
그이는 연설을 시작하시었다

이때
하늘에선 적기들의 평음이 울렸다
한순간 적기들을 향해
번개인양 번쩍이던
천출명장의 그 안광
허나 그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말씀하셨다

미제의 서산락일의 운명을 선언하시던
수령님의 통쾌한 그 음성이며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더미만 남은 이 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이는 연설을 마치고
연락우의 진달래꽃다발을
이윽도록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우린 그때 너무도 몰랐어라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진달래꽃다발을 받으시고
그처럼 기뻐하시었는지
연분홍꽃속에 어린 따뜻한 미소
어찌하여 그리도 환하셨는지

우린 그때 알수 없었어라
조국진군의 길에서 빨찌산의 너전사 삼가 드린 꽃
해방의 새봄을 안고 피어난 백두산의 꽃이어서
수령님 그처럼 깊은 추억에 잠기신줄

아, 그래서 그때따라
수령님 맞이한 백송리의 산과 들, 골짜기에
진달래 진달래야
너 그리도 붉게붉게 피어났더냐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승리의 해빛 안고
탐스럽게 아름답게 피어났더냐

세월도 지울수 없는 그리움이여
그날처럼 진달래꽃다발 안고
수령님께 달려가는 오늘
분명 가볍게 밀어주는 손길이 있나니
—어서 드려요
수령님께선 진달래를 몹시 사랑하신답니다

그 목소린 분명 백두산어머님의 목소리...

생각할수록 송구함을 금할수 없어라
우린 그날 수령님께
너무나도 소박한 진달래꽃다발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수령님 우리에게 주신것은
조국의 위대한 승리
전승의 7. 27을 앞당겨 안겨주셨나니

잊을수 없어라 정녕 잊을수 없어라
만세의 환호성 터져오른 전승열병광장이여
동서고금 그 어느 전승사에 있었던가
륙해공군병종도 아닌
대학생종대가 지축을 울리며 나아갔거니
우리는 최고사령부의 《특별병종》이었어라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대오를 향해
답례하시였어라
만면에 환하신 미소
어깨우엔 빛나는 원수벌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애지중지 키워주신
지식인부대 과학자부대
전후복구건설의 전망설계도와
원대한 자연개조의 구상을 가슴마다 안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부대

아, 그날 어버이수령님
우리 대오를 사열하시며 얼마나
대견해하시였던가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대오속에서
백송리에서 수령님께 헌시를 읊어드린
그 청년대학생의 림름한 모습도 알아보시는가
부대에서 대학으로 올 때
최고사령관동지 석고상을 모시고왔던
그 제대군관대학생의 목소리도
다 들으시는가

만세! 만세!
미제를 력사의 내리막길로 쳐박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
만세! 만세!
포화속에서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가꾸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내 그날의 감격을
어찌 이 시 한편에 다 담을수 있으랴
지금 여기 백송리의 숲은 고요하여도
그날의 만세소리 메아리쳐오고

그날의 걱정이 파도치는듯싶구나

물소리 유정한 숲속
새소리 정다운 밤나무아래서
내 다시금 새겨보노라
어느해였던가
백송리를 찾으신 장군님
수령님 앉으시였던
야외강의실의 통나무의자에 앉아보시며
뜨겁게 하시던 말씀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예지를 알려거든
여기 백송리에 와보면 알게 될거요
여기에 와보면 그 누구나
우리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에 탄복할거요

아, 장군님의 그 말씀 속삭여주며
이 봄에도 유서깊은 백송리엔
진달래 이리도 만발하였는가
위대한 태양의 해빛아래
그윽한 향기 풍기며
봄은 겨울을 이겼다고
조선은 미제를 이겼다고
뜨겁게 뜨겁게 이야기해주는가

진달래 진달래
아버이 우리 수령님
눈바람 불바람 다 막아주시며
봄해빛 따스한 양지에서 키워주신
전승의 봄진달래
태양의 봄진달래

2

높낮은 산발들엔
백송나무 푸르려 설레이고
산새들의 청아한 지저귂소리
깊은 계곡의 맑은 물소리 ...
여기 백송리는 우리의 옛 교정
전화의 그날로 추억은 달리는데

아버이수령님
문득 대돌에서 내리시여
내 손 이끌며 말씀하실듯싶구나
어서 나와 함께
너희들 공부하던
저기 풀안으로 가보자고

가슴은 후두두

내 설레이는 마음 안고 발길 옮겨라
낮에는 강의실 밤에는 숙소였던
산기슭의 반토굴집으로

아버이수령님 모셨던 그날처럼
내 반토굴교실에 들어서노라
—여기가 너대학생들이 공부하던 자리지
아버이수령님의 그 음성 방안에 가득차는듯
우리르면 눈앞에 삼삼해라
그날의 수령님의 자애론 영상

맨 노전바닥에
허물없이 우리 학생들과 나란히 앉으시여
나무책상도 손수 쓸어보시고
잉크가 핀 누런 학습장도 번져보시며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수령님

내 이제 흰 종이를 보내주겠으니
학습장을 매여쓰라고
공부를 잘해서 재더미만 남은 이 땅우에
세상으뜸 락원을 세우자고
동무들은 량반학자가 아니라
폭탄맛을 아는 혁명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전선에서 원쑤 미제를 족치던 그 기세로
학습전투를 벌려야 한다고

벽에 걸린 탄피깍지등잔에서도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않으시던 수령님
우리 입은 색깔은 군복
견장자리 또렷한 제대군인옷차림을
찬찬히 여겨보시며
수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셨지
—우리 아무리 전쟁시기라 해도
우리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동무들에게 대학생교복을 해줍시다

아, 우리 그날엔 꿈에도 생각 못했어라
새 조선 건설의 푸른 희망을 안고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입던 그 교복
보란듯 멋들어지게 펼쳐입었던
잊지 못할 우리들의 그 교복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
해방된 새 나라를 빛내이는 역군이 되라
배움의 날개 달아주시려는 마음으로
밤이 지새도록 기쁨에 넘치시여
친히 도안을 보여주시고 골라주신
첫 대학생교복!
그 교복이 불타는 고지를 넘어
이 산촌에까지 찾아올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감격에 젖어
반토굴교실을 나서는데
산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유정한 물소리 물소리...
세월은 가고가고
그날의 옥계수는 흘러흘러 갔건만
어찌하여 저 물소리만은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저리도 아름답게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것이나

이 마음 다시금 그날의 처녀대학생
잊을수 없는 추억에 잠기나니
주시고 주시고도 더 주고싶어하시던 어버이사랑
그끝은 어데였던가
외지로 공부하러 떠나보낸 딸자식을 찾은
어머니의 심정인듯
너학생들방에 누기가 찬것을 근심도 하시고
얼마나 다심하게 말씀하셨던가

—너학생들에게는
숨포단도 더 보내줍시다
내의도 보내주고
비누도 잊지 말고 보내줍시다

그 물소리에 실려 또 안겨오는
잊지 못할 모습들 나의 동창생들
한쪽의 그림같이 눈앞에 선하여라
바로 여기 남학생숙소앞 이 자리였지
수령님 모셨던 그날의 대학생들
다시 이 자리에 나란히 모여 대렬짓고있는듯

대렬 뒤줄에 서서
한팔이 없어 박수를 치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만 흘리며 서있는
한 영예군인대학생을 알아보신 수령님
그를 앞으로 불러주시였어라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상처가 아프지 않는가고
어느 전투에서 이렇게 됐는가고
오른팔이 있으니 얼마든지 공부를 할수 있다고
다정히 하시는 그 말씀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던 영예군인대학생
한손으로 눈물을 씻고
가슴펴며 힘차게 말씀올렸어라

—수령님 !
수령님 쥐여주신 펜대를 총으로 삼고
원썩들을 죽치는 마음으로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수령님은 장하시여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동무들이야 승리한 병사들이 아닌가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건설할
나라의 역군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소 병사대학생동무들!

아, 봄이었다
정녕 봄이었다
마음에도 산천에도 질게 깃들던
전쟁의 그늘 다 가셔준 화창한 봄이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결도
여기서는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게 아닐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 력력한데
해빛밝은 언덕길에서
마음속 목소리로 내 아뢰이노라

—수령님!
여기가 그때 수령님 들리셨던
학생식당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날처럼 앞에 계시는 어버이모습
그날의 그 음성 따뜻하게
내 가슴속에 흘러들어라

그때는 학생들이 아침식사중이었어라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르며
만세부르고 박수치는데
—식사할 땐 박수를 치지 않아
만세도 부르지 않고
어서 앉아 식사를 해야지

다정히 어깨를 눌러앉혀주시고는
곧바로 배식구쪽으로 향하신 수령님
덜건 국그릇을 오래 들여다보시는데
배식당번 남학생 병사시절처럼
씩씩하게 말씀올려라
—우리 병사대학생들은 이 국을
《염수대근탕》이라 합니다

그 무슨 《인삼보신탕》이라도 된듯
락관에 넘쳐 말씀올리는
그 대학생들 마주보시며
얼마나 즐거웁게 말씀하셨던가
—《염수대근탕》이라?
맨 소금물에 몇조각의 무우가 떠있는데?!

멋있게 이름지었군

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만 어려움도 잊고 소리내어 터치는
우리 대학생들의 웃음소리 웃음소리 ...
백송리꽃안은 더 밝아지고
망울졌던 진달래는 꽃잎을 펼치었다
우리 모습 진달래로 활짝 피었다

여기 산골짜기에
드넓은 교정은 없어도
수령님의 손을 잡고 작은 오솔길을 걸을 때
우리 희망은 가없는 하늘에 나래펼쳤다
한없는 사랑의 세계
끝없는 미래의 세계를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 우리는 걸었다

아, 진달래 진달래
태양의 해빛 안고 만발하여 설레이는
사랑의 봄진달래
조선의 봄진달래

3

봄이 와서 진달래더나
진달래 피여 봄이더나
산촌에도 진달래
마음에도 진달래

꽃잎마다 수령님미소 어려있고
송이마다 수령님뜻 지녔으니
세월이 갈수록 불타는 그리움속에
가지 않아라 백송리의 4월은
지지 않아라 백송리의 진달래는

말해보자 진달래야
속삭여보자 진달래야
우리는 백송리출신 졸업생들
가렬치절했던 전화의 그날
수령님축복 안고 여기 뿌리내려
포화속에서도 곱게 핀 봄진달래들

다정한 백송리의 학우들
어버이슬하에 자식들 모이듯
수령님동상아래로 다 모여왔노라
장군님께서 하나같이 달아주신
김일성종합대학졸업휘장을 가슴에 빛내이며
백송리시절 그날처럼
가슴속 자초지종을 다 아뢰이노라

—수령님, 우리들이 왔습니다
저기 저 은백색머리의 녀인
그가 바로 녀학생숙소로
수령님을 안내한 호실장
야전병원 간호장이었던 그 더퍼리
오늘은 대학의 교수선생입니다

그리고 저 소나무아래서
진달래꽃나무에 복을 주는
과학원의 책임일군
그 동무가 부대에서 대학으로 올 때
수령님석고상을 모시고왔던 그 제대군관

그리고 그옆에는
백송리에서 수령님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을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과 들을 뛰어다니
그 유명한 지질학자입니다

장령도 당일군도 있습니다
모두들 장군님 받드는 선군혁명 한길에서
백발홍안의 청춘들입니다
백송리의 변함없는 진달래들입니다

아 백송리의 어제와 오늘이
한자리에서 이어지고 이어지며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끝없는 사연이여
이 가슴에도 격정은 북받쳐올라
그날의 소중한 시첩을 펼치나니
갈피갈피에 넘었던 진달래꽃잎은
그 흔적만 남았구나

첫장을 펼치면
서정시 《진달래꽃다발아》
수령님 모셨던 감격을 노래한 소박한 시
또 펼치면 대학시절 시를 배우며
한편한편 써넣었던 자작시들

수령님 그리울 때면
마음속 이야기 도란도란
수령님초상화앞에서
처녀대학생의 리상을 아뢰이던
그 소중한 나날이 새겨진 시첩

자애로운 수령님의
그 정다운 음성 울려오는 시첩
수령님 하루밤 지새우신
대학본부가 자리잡았던 저 농가집

그 한밤의 승엄한 불빛이 어려있고

밤새워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복구건설전망을 밝혀주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그 목소리
다시금 이 가슴에 울려주는 시첩

아, 우리 수령님
천리혜안의 그날의 말씀
우리 심장 활화산처럼 불타게 하는데
이 가슴에 울려오는
수령님 말씀이여
—오늘이 바로 내가 백송리에서 내놓은 구상을
김정일동지가 현실로 되게 한 날입니다

백송리의 그날도 4월 13일
봉화갑문의 그날도 4월 13일
맑고맑은 물결우에 아롱진
아름다운 칠색무지개는
백송리의 그 봄에 뿌리를 둔것 아니더냐
그 우람찬 갑문의 한끝은
전화의 날 여기서 시작된것이 아니더냐

백송리의 봄이 있어
이 땅의 북변 첩첩산을 꿰질러 뻗어간
북부철길에 기적소리 높이 울리고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에
흰 갈매기떼 훨훨춤을 추며 날아라

가을이면 이삭들이 물결치는
전변된 간석지의 새 옥토별
백두고원의 대홍단삼천리에
설레이는 감자꽃바다
그 모든것은 전화의 그날
수령님품에서 태동한 지상락원의 모습

백송리의 정다운 나의 학우들아
우리 추억깊은 옛 모교앞에서
조국의 모습 둘러보자
끝에서 끝까지 마음으로 걸어보자

저 멀리 장자강기슭
태천의 충만강, 대령강 굽이굽이
황홀한 불야성도 그날의 수령님의 뜻
범안리와 한드레벌의 선경이며
사회주의대평원을 적시는 푸른 물줄기들도
백송리에서 펼쳐주신 수령님의 뜻

하기에 우리 장군님
선군시대의 새 창조물이 솟아오를 때마다
얼마나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던가

—오늘 우리가 강성대국이란 말을 할 때
그 강성대국의 기틀은 이미
백송리에서 우리 수령님 마련하시였습니다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걸음걸음 고난을 헤치신 길우에
그날의 수령님구상
사회주의 내 조국의 현실로 꽃피었어라

제 국주의원썬들의 고립압살광풍이 휘몰아치고
포성없는 전쟁이 그칠 날 없었어도
이 땅우엔 날에 날마다
백송리의 봄이 꽃피여 설레이나니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수령님
확신에 넘친 그 음성
선군의 하늘가에 울려간다
천만의 심장에 메아리친다

—이제 두고보라구
김정일동지는 오래지 않아
세상에 으뜸가는 나라
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우뚝 세울것ियो

자랑높아라
선군의 내 나라는 무적의 강국!
일심단결의 강국!
백두령장의 신념과 의지로 강해진 이 나라를
세상에 당할자 그 어데 있으랴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내 조국의 저 하늘가에
강성대국의 려명 밝아왔나니
아, 4월의 이 봄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그 붉은 려명을 안고
류달리도 탐스럽게 피어났구나
진달래 백송리의 진달래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먼저 알리며
강성부흥 내 나라를 먼저 마중하며
백송리의 진달래야
더욱 곱게 더욱 붉게 피고피거라

푸른 하늘 저 멀리 이 세상 끝까지
조선의 승리를 전하며
만발하고만발하라
아, 승리의 봄진달래
사랑의 봄진달래
강성대국의 봄진달래여!

하늘이 정해준 성지

1970년대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 의사당을 훌륭하게 지어드리리라 결심하시고 그 터전을 잡을데 대하여 해당 일군에게 과업을 주시였다.

그 일군은 평양시 중심은 물론 교외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다니면서 신고했으나 꼭 마음에 드는 자리를 잡을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 그 일군과 같이 차에 오르시였다. 날은 좀 흐린 날씨였다.

승용차는 안학동을 지나고 어느덧 식물원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차가 합장강다리를 건너자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합장강이 감돌아흐르는 금수산기슭이며 눈덮인 대성산주작봉을 일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시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펑 뚫려지고 그리로 해빛이 쏟아져내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 차를 타시고 동물원앞으로 가시더니 주작봉으로 걸어오르시였다. 한동안 주위를 부감하신 그이께서는 미암동쪽을 가리키시며 해빛이 비치는 저 자리에다가 의사당터전을 잡자고, 교외도 아니고 도시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경치가 좋고 공기도 맑으니 명당자리라고, 합장강과 대동강이 합수되는 저기 금수산기슭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저기는 애국명장들의 발자취가 어려있고 유구반만년의 력사가 깃든 유서깊은 고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중히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던 그 일군은 신기하게도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곳에만 해빛이 밝게 비치여 마치 지도우에 금을 그어놓은것처럼 구획이 또렷한것을 보았다.

그후 금수산지구가 명당이고 하늘이 정해준 성

지라는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증명되였다.

의사당이 세워지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하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금수산기념궁전이 일떠선 후 여기에서는 신기한 천지조화가 자주 일어나곤 하였다.

쌍무지개가 비끼고 새벽과 달이 겹치는 합달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를 더 유난히 밝게 비쳐주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수령님께서 산보하실 때마다 다른곳엔 모두 비가 내려도 금수산의사당 정원에만은 해빛이 비치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주체83(1994)년 7월 8일 새벽에 지구가 깨질듯 한 요란한 천둥이 울어대국상을 당한 민족의 슬픔을 온 세상에 제일 먼저알려준것도 금산의 하늘이였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임진왜란시기 서산대사의 의병들과 김응서장군의 군사가 평양성탈환전투를 벌려 패승을 이룩하였을 때에도 바로 여기 금수산지구에 웅거해있지 않았는가.

참으로 금수산지구는 명당일뿐아니라 유구한 력사가 깃든 성스러운 고장이다.

최근 우리 나라 력사학자들이 발굴한 금수산지구의 청암동 토성에서는 3세기 중엽 고구려의 왕궁성이였으며 단군조선시기의 수도성이라는것을 말해주는 여러가지 유적유물이 나타났다.

그러니 금수산지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유서깊은 고장인가!

뿐만아니라 이곳은 지세 또한 신묘하여 하늘이 점한성지라 아니할수 없다.

진정 금수산의사당터는 하늘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려고 유구반만년을 아껴두었다가 드디어 경애하는 장군님으로 인하여 천의가 오늘에 닿았음이 분명한것이다.

승리의 조준경

김수성

병사들 들어온 총대마다엔
원췌 미제 겨냥한 조준경 있다
조국수호신념 비긴 이 총대앞에
침략자는 죽음을 피할길 없다
아 승리의 조준경

멸적의 불을 재운 우리의 총대

백발백중 한치의 편차도 없다
우리 존엄 건드리는 원췌놈들은
이 조준경안에서 박살나리라
아 승리의 조준경

철천지 원췌와 최후결산할
결사의 각오로 닦는 조준경

백두산총대를 높이 추켜든
선군조선 영원히 백승떨치리

아 승리의 조준경

그날 그 시간만은

진춘근

가고
또 오는것이 시간이라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안고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
영예군인 우리 일터를 찾아주셨던
못잊을 그날만은
잊지 못할 그 시간만은...

다정히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다친데는 일없는가
부상자리도 가볍게 눌러보시며
기대결에 오래오래
함께 계신 어버이수령님

미제의 땅크포신을 잘라
우리 만들어낸 압연로라
썩썩 돌고도는 그 모양을 지켜보시며
그날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소문없이 큰일했다고
동무들이 여기서
또다시 미제를 깔고앉았다고

우리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실 때
눈굽을 적시던 감격의 그 눈물이
아직도 이 가슴에 그대로 뜨겁습니다

바로 이렇게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라시던
뜻이 깊은 그 말씀
가슴깊이 불덩이로 새겨안던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그 은정
어찌 그날 그 시간에 머문것이겠습니까

미소도 그 미소
음성도 그 음성
수령님과 다름없으신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자주 찾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은
수령님품에 안겼던 그날의 그 기쁨입니다

나의 공장 하늘도 그날의 푸른 하늘
나의 일터 기대들도 그날의 세찬 동음
나의 심장 이 박동도 그날의 억센 맥박
내 언제나 그 시각에 삽니다
그날 그 시간만은 흘러가지 않고
선군의 세월속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

김학률

수령님을 뵙고싶을 때마다
때없이 찾아오는
금수산기념궁전
오늘도 사람들의 물결 그칠줄 모르는
태양의 성지

눈부신 태양의 미소
함뼉 받으며
아이들은 여기서
성장의 키를 자래우고
어른들은 여기서
참된 삶을 가다듬는다

보아라

인생의 먼길을 앞에 둔
소년단원들과 청년전위들도
앞가슴에 가득 훈장이 빛나는 사람들도
수령님의 축복속에
저렇듯 밝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있지 않는가

명절이면 그리움에 먼저 찾고
행복하면 행복에 겨워 먼저 찾는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곳
여기를 거쳐야 인생이 되듯
오늘도 천만군민이 끝없이 물결쳐오는
아 금수산기념궁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였다. 아버지는 혁명하는 사람으로서 성격이 강毅하고 엄한 분이였으므로 따뜻한 사랑은 내가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받았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어렵게 살면서도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없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 산다>, <돈이라는건 있다가 없어 지기도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이 것이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 없는 사랑은 없을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그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이따금씩 내 꿈에 나타나곤 한다.》

언제나 이 마음속에

최정용

그리움의 물결에 실려
오늘도 눈에 어린다
등잔불심지를 돌구시며
첫 무장대오의 군복을 누비시던
강반석어머님 그 잊을수 없는 모습이

홍벽을 치며
오늘도 이 가슴에 울려온다
잘 싸워서 기어이 나라를 찾으라고
안도의 푸른 밀림에서
총을 든 유격대원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어머님 남기신 간곡한 당부가

못 잊어라
진정 못 잊어라
선군의 총대높이
세상에 한껏 존엄을 펼치며
태양복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삶의 오늘을
결코 어머니를 떠나 생각할수 없기에

우리 수령님 성업을 받드시여
목숨을 내대야 하는 준엄한 길도
서슴없이 헤쳐오신 어머니
그 사랑은 육친의 정만이 아니었다
깃발힌 조국, 억눌린 인민의
피맺힌 원한을 두고

한가정의 어머니로만 살수 없으신
조선의 어머니이시였다
몸은 떠나 이역에 계셨어도
마음은 떠나신적 없는
그 조국 그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어머님의 심장은 언제나 뜨겁게 고동치셨거니

그 숭고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온갖 지성 기울여오지 않으셨던가
수많은 열혈투사들을 친자식처럼 품어안으시고
그 한마음으로 되돌려세우지 않으셨던가
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발걸음을

주체혁명의 첫 기슭에서
가장 고결하신 인생관으로
가장 열렬하신 혁명관으로
불같이 한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그 숨결을 받아안고
백두산총대가 태여났고
내 나라의 오늘이 밝아왔거니
아 흘러흘러 세월은 가도
변함이 없으라
위대하신 어머니를 그리는 이 마음은
인민의 태양, 주체의 태양을 받들어올리신
조선의 어머니를 못 잊는 인민의 마음은

가사

어머니의 소원

안명애

아침까지 트랙가에 유난히도 우짚더니
군대에 간 막내아들 표창휴가 왔다오
장군님병사가 된 그 모습이 하도 장해
어머니는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하네

초소로 떠날 때는 철없던 내 아들이
나라앞에 공세운 대장부가 되었다오
앞가슴에 번쩍이는 훈장들을 만져보며

키워준 그 사랑에 어머니는 눈물짓네

오늘은 이 어머니 자랑이 된 내 아들
래일은 나라의 영웅이 되리라
자식을 키우며 안고살던 그 소원을
우리의 장군님 꽃피워주셨다오

아 한없이 고마운 어버이장군님께
어머니는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네



한정아

1

기차는 북으로 달리고있었다 하늘은 구름에 덮여 별빛 하나 볼수 없다. 수수떡같은 별건 전등이 매달린 열차안은 각이한 옷차림과 용무, 각이한 경력과 생김새를 가진 손님들로 꽉 찼다. 살길을 찾아 식솔을 거느리고 떠난 사람, 장사꾼, 학생, 유지신사차림의 사람, 사자머리를 한 사자가... 그러나 그 각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열차안에 드리운 나라 잃은 당국노의 설움과 울분이었다.

공기마저 흐리터분했다.

리은영은 숨넘어가는 짐승처럼 험쩍거리는 기차의 시달림보다 이 모든 불운한 광경에 더 시달려 가슴이 아팠다. 마주앉은 젊은 녀인은 애기가 양탈을 쓰며 자지러지게 울어대도 기척이 없다.

《아주머니, 애기가 젖을 찾는군요.》

리은영이 말해야 녀인은 저고리앞섶을 헤치고 젖을 물렸다. 몇번 빨아보던 애기는 젖이 나오지 않는지 그냥 울어댔다.

리은영은 트렁크를 열고 서울에서 떠날 때 사넣었던 첫물 딸기봉지를 꺼내 한알을 애기에게 물려주었다. 그제야 애기는 잠잠해졌다.

《고마와요.》

녀인은 이마전에 흐트러져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비로소 첫마디를 뱉다.

《어디까지 가세요?》

리은영의 물음에 녀인은 북간도로 돈벌이를 떠난 애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처녀는 어디를 가요?》

녀인은 차츰 생기를 띄우며 말을 걸었다.

《무송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무송? 그게 어디예요? 먼가요?》

《예, 이국땅이에요. 개천에서 기차를 내린 다음에는 회천, 강제, 중강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림강이란데를 거쳐 무송까지 가야 해요.》

리은영은 김상백이 편지에 적어준 지명을 상기하며 마치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듯 대답했다.

《에그— 그 먼델... 처녀몸으로 혼자서... 쫓쫓.

그래, 거기 누가 있어요?》

순간 리은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가.

꿈결에도 그려보던 김상백의 둥그런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비밀리에 인원으로 보내온 편지에 쓴 글줄들이 상백이의 목소리가 되어 가슴을 울린다.

《은영이, 어서 오오. 이 무송땅에서 독립의 참다운 길이 열리고있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난 그 감격과 환희를 표현할 말을 못 찾겠소. 정말이요. 백번 듣기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은영이가 와서 제눈으로 봐야 나의 이 감정을 알수 있소...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신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어서 은영이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하시였소. 내가 직접 서울에 가서 데려오라 하시는걸 난 은영이도 보통 강한 녀성이 아니니 제발로 울수 있다고 말씀드렸소.》

(고마와요, 상백씨. 그렇게 믿어주어서. 난 지금 내앞에 마주 앉은 이 아주머니의 물음에 답변을 주어야 해요, 무엇이라고 말할가요, 예?)

리은영의 크고 아름다운 눈에서 고통과 피로움의 빛이 씻은듯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반짝거렸다.

《아주머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 희망을 찾아갑니다.》

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였다.

《아주머니도 희망을 가지세요 꼭 애아버지를 찾게 될거예요. 나라가 독립되구 고향에 돌아갈 날이 있을거예요. 그날을 믿으세요.》

《그렇게 될가요? 그랬으면 산 보람이 있으련만... 지금같이서는 하루에도 죽고싶은 생각이 열두번도 더 치미는걸 이 애때문에... 후유—》

녀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칙... 칙... 덜컹... 덜컹...

기차의 단조로운 음향에 몸을 맡기며 두 녀자는 말없이 제생각에 잠겼다. 리은영의 머리속에는 무송까지가야 할 로정이 련달아 떠올랐다. 그리고 그뒤에는 두팔을 벌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마중하여 달려나오는 상백의 림름한 모습이 커다랗게 떠올라 느닷없이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아, 상백씨...)

2

피의 절규가 삼천리를 진감하던 3.1봉기... 남대문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들으며 시위에 나섰던 아버지는 왜놈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아버지의 시체앞에서 통곡하던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 한달동안 먹으며 말며 자리를 일지 못하던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은영아, 예로부터 순국렬사들의 부인들은 자결로 절개를 지켜 후세에 련녀로 칭송했다만 어머니는 그러지도 못하고 너만 고생시키누나.》

병간호로 주제가 말이 아닌 은영이를 붙잡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눈물에 코를 흘쩍이며 어깨를 떠는 은영이를 보며 이웃집 김상백이 힘을 주었다.

《어머니, 련녀도 좋지만 그렇게 죽거나 해서 왜적은 누가 치고 나라는 누가 찾겠습니까. 죽을 생각을 하기에 앞서 살아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자면 병을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최익현선생의 부인이 대마도에서 순국한 남편을 따라 자결했지만 그렇다고 왜놈이 눈섭하나 까딱합니까.》

김상백은 은영의 어깨를 잡아 돌리며 부르짖었다.

《은영씨, 조선녀성들은 예로부터 외유내강하고 절개가 높기로 이름났습니다. 이 슬기로운 품성을 항거의 절개, 반항의 절개로 만드는 길은 없겠습니까. 은영씨나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 길을 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상백의 이런 고무가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돌아갔을때 은영은 영영 주저앉고말았을것이다.

모래불에서 주어진 조가비로 소꿉놀이를 함께 했던 이웃집 상백오빠는 홀로 남은 은영에게 있어서 의지로, 기둥으로 되었고 련정까지 품게 되었다.

녀학교를 졸업하는 날 무슨 계몽운동을 한다고 떠돌아다니던 상백이 은영을 찾아왔다.

《은영씨, 지금 근대화로 내닫고있는 세상형편을 보면 장성한 나라는 다 일찌기 개명했습니다.

난 집의 가산을 팔아서라도 사립학교를 하나 세우고 아이들을 공부시키자는것입니다. 은영씨가 교사로 일했으면 하는데...》

그뒤 서울교외의 외판 시골에 사립학교가 일어섰다. 개교식날 은영은 자기 집 뒤울안에 있는 무궁화나무를 학교마당에 옮겨심었다. 상백은 자기 아버지가 넘겨준 종을 처마밑에 매달았다. 날마다 은영이가 치는 종소리가 조는듯 한 시골의 정적을 깨고 무궁화꽃이 피여난 마당에 학생들이 부르는 《학도가》의 노래소리가 높아갔다. 이것이 왜놈들의 눈에 나지 않을수 없었다.

무궁화꽃이 흩어져 마당에 뿌러지던 그날을 은영은 잊을수가 없다. 왜놈들이 총칼을 마구 휘둘러 꽃나무를 짓이겨놓고 상백을 포승으로 묶어 잡아가던 날... 총탄에 얻어맞은 종은 깨어져 조각이 떨어진채로 덩굴고... 아, 그날의 통분, 원한을 죽어선들 잊으랴.

은영은 이를 갈았다. 깨어진 종을 안고 꺾이운 무궁화가지를 일궈세우며 이발을 사려물었다. 보란듯이 이튿날 또 종을 울렸다.

굵직한 조각이 떨어져나간 누런 낫쇠종은 그전처럼 공명이 크지 못하고 소리가 허실했지만 은영이의 반항의 마음처럼 날마다 울렸다.

어느날 밤 상백이가 불시에 뛰어들었다. 다짜고짜로 은영이의 손목을 잡아끌고 뒤산 송림속으로 들어갔다.

《은영이, 난 탈출한 몸이요. 이길로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가려고 하오. 흥범도의병대가 그쪽에서 활동한다는데 나도 의병에 참가할 결심이요. 은영인 어떻게하겠소?》

《어떡할것 있어요. 나도 따라가겠어요.》

《녀자의 몸으로 전장에?》

《그럼 나혼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은영은 울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기다리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 오겠어요》

《그건 기약할수 없소 참, 편지를 하든가. 우리 어딜 가나 나라위한 마음만은 변치말구 삼시다.》

이렇게 떠나간 김상백이었다. 그가 떠나간 때로부터 마당의 무궁화는 다시 살아나 두해째 꽃이 피고 졌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첫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그것은 은영을 절망의 나락에 굴러뜨린 불행한 소식이였다.

《망했소. ... 조선은 다 망했소》

상백은 편지에 자기가 흥범도의병대에 속하는 《팍두

령부대》라는데 들어가서 칼을 차고 싸우다가 어느 한 전투에서 패전하여 다 죽고 흩어졌다는 것, 자기는 아래다리에 총상을 입고 겨우 살아나 이국의 어느 한 집에 숨어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통분을 터쳤다.

《...의병투쟁으로 왜적을 친다는건 다행으로 바위를 깨겠다는것과 같다는것을 난 뼈저리게 느꼈소. 신식무장을 한 왜놈과 화승대나 칼로 맞서서 어떻게 이길수 있겠소. 게다가 의병의 내부는 똑똑한 주의주장도 없이 서로 물고 뜯는 싸움질이요.

간도땅 여기저기에 독립군의 명칭을 띤 부대들이 생겨나 활동하고있는데 그들도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소. 환멸이 가오. 아 우리 조선은 어디로 가야 하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영영 멸망하여 저 마야족처럼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지나 않겠는지 모르겠소...

이렇게 된바치고는 은영이와 함께 일생을 가정이나 돌보며 살든가 아니면 자결하든가 둘중의 한길밖에 없소. 자결을 증오하던 내가 이 처지에 떨어지고보니 순국렬사들의 심정이 헤아려지고 공감이 가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고 쥐구멍에도 해를 날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엔...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소. ...

은영이, 내 상처가 나으면 그대 품으로 돌아가려니 그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려주오. ...》

그 편지를 받은 날 은영은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가을밤의 처량한 달빛이 교묘히 흘러내리는 뜨락에 나가앉아 쓸쓸히 울어대는 풀벌레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랴. 그렇게도 기상이 도도하여 떠났던이가 절망에 빠지다니?! 그러다가 혹시... 별의별 몸쓸 생각과 자기 슬픔에 모대기며 땅에 떨어진 무궁화꽃잎에 짜디짠 눈물을 뿌렸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이 켜 지난 이해의 5월초 상백의 두번째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것은 상백이나 은영이를 다같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린듯 한 희소식이였다.

3

은영이, 살았소, 조선이 살았단 말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지 않나 하고 은영은 생각할테지. 하하... 꿈이 아니요. 현실이요. 그 만단사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할가 아, 그렇지. 전번 편지에 부상을 입고치료한다는 소리를 했지. 그게 무송현정의 작은 시골에 있는 가난한 중국집 주인과 딸의 정성으로 이해 봄에는 걷고 일할수 있게 되었소. 난 너무 고맙고 미안하여 물도 길고 장작도 꽤주

며 신세를 갚으려고 했소.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화단이 될줄이야. 집주인은 여기에 아예 눌러사는것이 어떠냐며 자기 딸과 붙여줄 의향을 내비치고 딸 역시 눈치가 달랐소 성의는 고마웠지만 청운의 뜻을 품고 떠난 장부가 결국은 이런 줄부가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구슬프기 짝이 없었소.

더우기 은영이를 잊을수가 없고 배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일었소. 그러나 그동안 맺어진 인정을 봐서 주인에게 차마 말은 못하겠고 그대 야밤에 긴 편지를 써놓고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소. 무송, 립강을 거쳐 조선으로 나가는 길을 잡고 험산준령과 원시림과 수풀을 마구 헤쳤소. 한달가량 산중과 낯선 마을과 강과 들을 헤매다보니 옷은 엉마조각이 되고 몸은 여윌대로 여위여 뼈에 가죽만 남았소. 그런데 총상자리가 도지기 시작했소. 채 낫지 않은 상처가 가시에 긁히고 강물에 젖어 감염을 일으켰는지 쑤시기 시작했소. 나중에는 온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더이상 걸을수가 없었소. 어느 야산기슭의 수풀속에 아예 쓰러지고말았소. 이대로 죽는가... 무인지경의 수풀속에 쓰러져 가물가물 흐려지는 정신을 기다들으며 하늘을 쳐다보느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소. 그러다는 깜박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 일어나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꿈인지 생인지 모를 환각속에서 몇시간, 며칠이 흘렀는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지...

《성주 아버님, 젊은이가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꿈결에 들려오는듯 한 부드럽고 나직한 녀인의 목소리... 이게 어디인가? 나는 차츰 귀를 강구며 눈을 뜨려고 애를 썼소.

《급한 고비는 넘긴것 같소. 당신이 젊은이를 업고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뻔했소. 아까운 조선청년을 또 한명 잃을뻔했소. 정말 다행이요.》

뜨거운 인정과 조국애의 웅심깊은 세계에서 우러나오는듯 한 우렁우렁한 목소리. ... 나는 가까스로 눈을 떴소, 하얀 천정... 초불에 비친 약장, 향긋한 고려약냄새... 그리고 머리맡에서 나를 지켜보는 두분의 그윽한 눈길...

《여기가... 어딤니까?》

《젊은이, 마음을 놓으시오. 이제 한잠 푹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질거요. 여긴 병원이요》

은영이, 이렇게 되어 나는 무송에서 소문난 《무림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소. 나도 처음엔 김형직이라는 성함을 쓰시는분을 그저 유명한 의사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아니었소. 그분은 뜻을 멀리에 두라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민족자력의 힘으로 무장을 들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웅지밀에 모든 독립운동단체들과 독립군부대들, 민족주의자들, 무산민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반일투쟁

에로 불러 일으키시는 탁월한 지도자이시었소.
 은영이도 생각날거요. 1917년 가을 온 서울장
 안까지 들썩하게 한 평양의 조선국민회사건말이
 요. 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지도하신분이 바
 로 김형직선생님이었소. 내가 어떤 행운을 만났
 는지, 그 행운의 감격과 환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 지금 말마디를 찾을수가 없소. ... 김형
 직선생님은 과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명수이시
 요. 그분의 뒤에는 부인이신 강반석어머님께서
 계시오.

은영이, 난 지금 《무림의원》에서 두달남짓이
 치료를 받고있소. 돈 한푼 내지 않고말이요. 게
 다가 먹고 입고 쓰기까지! 세상에 인정, 인정해
 도 이런 인정이 어디있겠소. 그 인정의 화신이
 누구이신줄 아오? 20리도 넘는 먼길을 걸어 샅바
 느질감을 가지러 가시다가 수풀속에서 새어나오
 는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나를 업고 다시 맥으
 로 돌아오신 강반석어머님이시오. 이 은혜를 무
 엇으로 어떻게 갚겠소. 머리칼을 베어 신을 삼아
 울린들 갚을수 있으며 대를 이어 자손들이 보답
 한들 다 보답할수 있겠소.

운신 못하는 나의 병간호를 하시느라 밤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세끼 더운밥을 먹여주고... 나
 의 친어머니인들 이보다 더 극진할수가 있겠소.
 그래서 나는 어머님으로 부르며 받들고있소. 나
 뿐이 아니요. 술한 독립운동자들, 손님들이 어머
 님의 신체를 지고있소. 언제인가 어머님과 고향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어머님의 눈
 에 눈물이 맺히는것을 보았소.

《적은이, (어머님은 나를 한집안식구로 대해주
 시며 적은이로 부르고 계시오.) 난 평양 만경대
 가문의 장손며느리라네. 로할머님과 시부모님,
 시아우들을 어느 한시도 잊은적이 없네. 그분들
 을 돌봐드려야 할 장손며느리로서 효도를 못하는
 것이 늘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네. 그렇지만
 혁명에 나선 성주 아버님을 따라 천만고생을 이
 기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면 그것이 가장 큰 효
 도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힘이 솟구 사는 보람이
 있지. ...》

어머님은 이런분이시오. 어머님의 인정은 바로
 이런 애국으로 끓는 인정이요. 그러기에 김형직
 선생님께서 늘 혁명사업으로 나다니시다보니 집
 안살림을 도맡아 안으시고도 그것을 락으로, 보
 람으로 여기고 계시오. 무시로 찾아드는 독립운
 동자들, 손님들, 나와 같은 환자들 누구나를 다
 친절히 맞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때식을 끓여주시
 고...

이런 어머님한테 무엇을 허물하겠소. 은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소. 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
 고 어서 은영이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하시었
 소. ...

은영이, 난 지금 상처가 다 낫고 건강한 몸이

되어 백산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고있소. 무송지
 방에 흘러 온 조선의 망명자들과 선각자들이 세
 운 사립학교요. 명예교장은 김형직선생님이시오.

선생님께서 교육내용과 후원사업을 보시면서
 《국어독본》 교재도 쓰시었소. 우리가 계몽을 목적
 으로 세웠던 사립학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오.
 지식만 주는것이 아니라 독립운동투사들의 후비
 를 키워내는 학교란 말이요.

어서 오오. 립장에서 전보를 치시오. 그럼 내
 가 마차를 가시고 마중을 가겠소. 강반석어머님
 께서 함께 마중가자고 하시었소. 부모를 다 잃고
 서울바닥에 홀로 떨어져 고생한 처녀선생을 어
 떻게 앉아서 맞이할수 있겠느냐며...

4

(어머님, 강반석어머님. 정말 보고싶습니다.)

은영은 기차에서 내려 먼길을 오는 나날 내내
 상백이의 편지구절을 음미해보고 거기서 받아안
 은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용기와 힘을
 냈다. 어쩌면 어머님을 만나는 순간에 친어머니
 품에 안기듯 와락 안기며 눈물을 쏟게 될것 같은
 행복감이 전신을 휩싸기도 했다. 그때문에 발이
 부르터도 아픔을 참을수있었다.

기차에서 마주앉았던 녀인과 작별인사를 나눈
 때로부터 보름이 거의 되어서야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면방상업도시인 립강에 도착하였다. 사람
 들이 붐비는 낯선 거리에서 무송에 전보를 치고
 그쪽으로 가는 말수레에 앉아 수백리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6월 중순이었다. 송화강의 푸른 물이 서북으로
 흐르는 강기슭을 따라 하얀 길이 피처럼 뻗었다.
 길옆에 펼쳐진 밭들에서 수수며 강냉이가 푸른
 독을 쓰듯 한여름의 피약벌아래 소리치며 자라고
 있었다.

앞쪽 멀리서 먼지를 일쿠며 말이나 말수레만
 나타나도 은영은 가슴을 울렁이곤 했다. 혹시나
 하고 눈을 쫓프리며 다가오는 말수레에 시선을
 못박았다. 허나 립강의 현경계를 벗어날 때까지
 도 여러대의 수레와 길을 어겼으나 《은영이! 나
 요, 상백이요!》 하고 소리치며 내리는 사람은 없
 었다.

무송을 수십리 앞둔 대영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정오가 되었다. 흐린 하늘에서 비가 부
 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립장에서 떠나면서
 전보를 쳤으니 상백이 아무리 차비가 늦어져
 도 대영이라고 부르는 이 마을어간에서는 만
 날것 같았는데 말수레는 그림자도 볼수 없었
 다. 키낮은 초가지붕들이 땅에 머리숙이듯 하
 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이상할 정도로 피피한
 침묵에 잠겨있었다. 어찌다 눈에 띄우는 사람
 들은 머리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맥없이 진창

길을 밟으며 지나갔다. 너무도 쓸쓸하고 어둡고 침침한 공기가 은영을 마중했다.

울바자를 친 초가집마당이나 벽돌담장 밑에 늘어진 가게방앗을 오가며 물건을 사는 녀인들은 물론 어린 소녀애들의 머리에까지 하나같이 흰 땀기가 꽃혀있었다.

(?!)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독립군옷을 입고 모자를 쓴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느릿느릿 굴러왔다. 마차는 은영이가 탄 마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니 저쪽 뒤에 가서 멈춰섰다.

《여보시오—》

나이 40 쯤 돼보이는 텃석부리 독립군이 뒤를 돌아보며 목신 소리로 불렀다. 은영이 돌아보니 분명 자기를 찾는 소리였다.

은영은 마차를 멈추게 하였다. 얼굴이 벌겋고 눈이 뚱뚱 부은듯 한 두사람이 어정어정 걸어왔다.

《저 혹시—》

앞에 선 사람이 마차를 올려다보며 수염이 더부룩한 입귀를 실룩거렸다.

《절 보고 그러니까?》

《혹시 서울에서 오는 아가씨가 아닌지?》

《그래요. 한테 누구시나요?》

《그럼 리은영이라고...》

《그래요.》

텃석부리와 그뒤에 선 젊은이는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차에 옮겨타시우.》

《그럼?》

《예, 사모님의 분부가 계시여 아가씨마중을 나옵니다.》

마차가 천천히 굴러왔다. 은영은 자기를 태워준 마차부에게 사례금을 후히 주고 마중 나온 마차에 옮겨탔다. 머리위에 풍을 씌워 비를 막게 하고 밑에는 송진내가 싱그러운 하얀 널판자를 깔려 다른 마차였다.

리은영은 뭐가 뭔지 갈수 없는 어정쩡한 기분에 잠겼다. 무엇인가 크고 둔중한 타격에 가슴을 얻어맞은듯 숨이 가빠났다.

《저... 김상백씨를 모르십니까?》

겹에 질린 음성에 자기도 놀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앞에 앉은 텃석부리가 대답대신 굴뚝같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고삐를 잡은 젊은이가 고삐를 쥔다. 마차가 삐걱거렸다.

은영은 물기가 겁이 났다.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닥친 산천과 부슬부슬 떨어지는 비방울에 속속들이 배여 자기 몸을 칭칭 감는듯 하였다.

《김상백교사님은...》

젊은이가 용기를 짜내어 뜨적뜨적 입을 열었다.

《상복을 입고계시오. ... 김형직선생님께서...》

리은영은 눈앞이 아찔했다. 삼시에 주위의 모든것이 멎어선듯 귀안이 멍멍해졌다. 왼쪽으로 느린 경사를 이루며 솟아있는 야산이 왈칵 허물어져 쏟아지는것 같았다. 조금후에는 머리위의 풍천에 떨어지는 보슬비소리가 점점 커지며 복치듯 요란하게 귀청을 때렸다.

은영은 흑~ 오열을 터치며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해가 영영 떨어진듯 온 천지가 캄캄하게 안겨왔다. 옆에서 도간도간 들려오는 비탄에 잠긴 말소리, 꺾꺾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아득한 나락에서 웅글게 공명되는듯 했다.

《...다 우리들탓이네. 병석에 계시는 몸으로 안도에까지 오시지 않았잖나. 세력다툼이 얼마나 선생님을 괴롭혔으면 수백리나 되는 무인지경을 걸어오셨잖나.》

《후유— 독립운동이 키를 잃었으니 이젠 어떻게 할고... 사모님의 건강은 또 어찌될고...》

《놀라운 일일세.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더군. 자제분들만 묘소에 보내시고 이튿날 홀로 올라가셨다누만...》

(아, 강반석어머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은영은 그만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슬픔에 잠겨계실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듯 하였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았던가.

혹시 어머님도...

상백이의 편지를 통해 한번 본적도 없이 친어머니처럼 가슴에 간직된 강반석어머님이시었다. 인자하고 친근하신 그 품에 얼굴을 묻으며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마음껏 쏟으리라 했던 어머님이시었다.

그런데 이젠 분명 자리에 누워계실 어머님앞에 슬픔의 눈물을 바다처럼 쏟아붓는 은영이가 될것만 같았다. 친어머니를 잃었던 그때의 슬픔까지 합쳐 강반석어머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굶어놓을것만 같았다.

(상백씨, 이럴 땐 난 어쩌면 좋아요, 예?)

5

소남문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긴긴 여름날의 해도 벌써 젖는지, 하늘이 흐려있어 그런지 거리에 들어섰을 때는 어슬어슬 어둠이 내려앉고있었다.

길 양옆으로 기와나 새초를 엮은 지붕들이 련달려 늘어선 거리는 인적이기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말소리 하나, 개짖는 소리 하나 없이 무거운 침묵과 정적에 잠겨있었다. 선생님을 소남문거리에서 10리 떨어진 양지촌이라는 곳에 모신지도 보름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비애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것 같았다.

은영은 편지에 썼던 상백의 심정이 리해되면서

우리조선이 얼마나 크나큰 손실을 보았는가를 폐부로 느끼고 있었다.

마차는 《무림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집앞에 멈춰섰다. 열어놓은 널문으로 초불빛이 흘러나오고 술한 사람들이 방안에서 웅성거리고있었다.

텅석부리 독립군이 열려진 문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무어라고 말하자 키가 큰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다. 베천으로 만든 상복을 입었으나 큰 키풀이며 벌어진 어깨며 거동으로 보아 상백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김상백은 마차결에 다가오더니 비통한 기색으로 묵묵히 은영을 바라보기만 했다

은영이도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상백이를 넋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이럴 때의 심중을 표현할 말이란 없는가보다.

이윽하여 상백은 마차에 실려있는 트렁크를 내리우며 《고생 많았소.》 한마디 하였다.

그리고 힘겹게 마차에서 내리는 은영을 부축여주었다.

은영은 길에 내려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두거니 서있었다.

김상백은 마당에 나온 몇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은영에게 다가왔다.

《자, 갑시다.》

《예?》

《어머님한테 갑시다,》

《그럼 어머니는?》

《백산학교에서 은영이를 기다리고계시오. 은영이가 오면 곧장 거기로 데려오라고 하시였소.》

은영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댁에 누워계실 어머님앞에 어떻게 나서며 무슨 말로 위로하고 통곡이 터질것만 같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겠는지 알수 없어 집에 질렸던 은영이로서는 천만뜻밖이었다.

상백은 트렁크를 들고 앞서 걸었다.

《이제 만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어머님은 보통분이 아니시오. 은영이가 거처할 방을 꾸리시겠다며 점심전에 백산학교로 나가시였소. 교실옆에 쓰지 않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해야했다시며 자신께서 마중가시려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어 못 가시는걸 량해하라고, 비가 오니 마차에 풍을 치고 바닥에도 깨긋한 널판자를 깔라고 이르시였소.》

김상백은 걱정이 뿜어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은영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무슨 한 일이 있고 어머님을 도와드린것이 있다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고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계몽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 교편이나 잡아본데 불과한 저였는데 ...

백산학교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은 지붕에 채초를 덮은 크지 않은 집이었다.

창호지를 바른 커다란 창문이 량옆에 달리고 가운데 널판자로 된 출입문이 있었다. 반쯤 열어놓은 출입문사이로 불빛이 흘러나와 길바닥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어머님!》

김상백이 출입문앞에 서서 정중히 불렀다. 이윽하여 방안에서 자박자박 서두르는듯 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두짝으로 된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소복단장을한 강반석어머님께서 나오시였다.

《어머님, 은영이가 왔습니다.》

은영은 그 순간 고개를 들며 어머님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단정하게 입으신 흰 치마저고리의 옷차림... 부드럽고 인자하면서도 근엄하고 강한 기풍이 발산되는 체취... 곧게 탄 가리마...

《은영이가 왔다고? 어디 보자. 먼길을 혼자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반가움으로 떨리는 목소리 ...

《어머님!》

은영은 인사도 못 드리고 그만 오열을 터뜨리며 어머님의 가슴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떨고있는 은영의 어깨를 꼭 그리안으시고 한동안 말쑤이 없으시였다.

《됐네. 그만하라구, 은영이...》

어머님의 음성도 떨리시였다. 그럴수록 더욱 흐느끼는 은영이의 잔등을 어루쓸어주시며 말쑤하셨다.

《자, 어서 들어가자구. 어서—》

은영은 어머님의 손길에 이끌려 방안에 들어섰다. 교실이었다.

새로 짠 책걸상들이 너저로 놓이고 앞쪽에는 흑판과 교탁 그리고 풍금이 있었다.

등불이 환히 비치는 벽에서 특별히 눈에 안겨드느것은 먹으로 힘있게 쓴 《지원》이라는 죽자와 소나무그림들 배경으로 내려쓴 시구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은영은 교실가운데 멈춰서서 시구를 읽어보았다.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과 절개가 심장에 흘러들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성주 아버님이 지은 시라네.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구.》

어머님께서는 뒤벽에 난 새문을 열고 은영이를 이끄시였다. 바닥에 갈노전을 깔고 천정에는 하얀 백로지를 바른 작은 방이 나타났다. 벽에 창문이

있고 앉은책상 하나가 구석쪽에 놓인 아담한 방이었다. 책꽂이위에 세워놓은 초불이 밝게 타고있었다.

《은영이가 살 방이네. 마음에 들겠는지...》

방안공기가 훈훈했다.

《자 이젠 옷이랑 벗어 걸구 편안히 앉으라구, 여기 날씨는 평양이나 서울과는 달라. 여름에도 비가 오면 을씨년스럽지. 그래 군불을 때야 하네.》

아닌게아니라 방바닥이 뜨뜻하였다.

《어머님께서 손수 불을 때시었소. 우리가 해도 될일을...》

어머님, 좀 누워서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다...》

김상백이 자리에 앉으며 근심스레 아뢰었다.

《적은인 또 그 소리... 일없네. 난 일해야 살아. 은영이, 어서 편히 앉으라구. 오늘 밤엔 은영이가 살아온 이야기나 듣자구.》

《예.》

은영은 자리에 앉았다. 트렁크를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어머님께 드렸다.

《어머님. 변변치는 않지만 이거라도 살림에 보태 쓰십시오. 서울 떠날 때 집 판 돈입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봉투를 받아드리고 말씀이 없으시다가 도로 은영이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고맙네. 이 돈은 은영이가 쓰라구. 이제 교사를 해도 그래 먹고살려구 해두 그래 돈쓸 일이 오죽 많겠나.》

《아니, 전 일없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가정살림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은— 걱정두, 여기 상백이랑 성주 아버님 친구들이 있지 않나. 돈이라든지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물건이네. 사람이 돈이 없어 못사는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네.》

《예?》

은영은 어머님의 인생철학의 깊은 세계를 다는 헤아릴수 없었으나 자기가 여태 살면서 보아왔고 책을 통해 들어왔던 동서고금의 이름난 너인들과는 전혀 다른 어머님을 보는 류다른 감동에 휩싸였다. 자기 어머니만도 봉건을 반대하여 공부를 한 신식녀성이고 유학자인 남편을 섬긴 성실한 너인이었지만 기둥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못 이겨 꺾이지 않았던가.

자기 어머니를 추억하며 지나는 생활을 낱알이 말쑥드리는 은영이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 가끔 웃고음을 들어 눈굽을 찍으시었다. 자신의 슬픔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더니 남의 슬픔에는 눈물을 보이시는것이다.

은영은 트렁크에서 꺼진 종을 꺼내었다.

《어머님. 이 종이 그때 왜놈들이 깨뜨린 우리

사립학교의 종입니다. 상백씨의 아버님이 남긴 유물인데 제가 가지고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종을 받아드리고 살펴보시었다.

《잘했어요, 은영이. 이 종을 잘 보관하라구》

《어머님, 학교에 김선생님께서 달아주신 종은 종이있는데 그건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은영이의 성의는 고맙지만.》

《적은인 잘못 생각하고있네. 은영이가 이 종을 가지고 학생들앞에 나서서 조선에서 감행하는 왜놈들의 행패질에 대해 말해주면 좋은 실물교육이 되지 않겠나. 왜놈들은 조선의 명줄을 끊으려고 하지. 허나 안될거네. 성주 아버님이 저 시에 쓴것처럼 뜻을 멀리에 두고 우리 대를 이어 성주대, 손자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를 찾구 우리 조선을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 우뚝 세워야 하네. 그리구 저 깨진 종값을, 피값을 받아내야 하네. 그러니 은영이나 적은이가 종을 버리지 말구 잘 건사하게》

《어머님!》

상백이와 은영은 어머님앞에 머리를 숙이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으시고 머나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독립의 락관속에 슬픔도 다 묻어두시고 모진 고생을 꾀끗이 헤쳐나가시는 조선의 어머니!

어머님께서는 상백이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대와 믿음에 찬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은영이 나이가 지금 몇이던가. ... 늦었구만, 성주 아버님이 이제 은영이가 오면 성례를 갖추어 가정을 이뤄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

상백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우린 나라를 찾기 전엔 절대로... 은영이, 어서 어머님앞에 맹세하오》

《아닐세. 이제 날을 보아서 성례를 치르어야겠네. 나라를 빼앗겼다구 가정까지 이루지 못하겠나. 성주 아버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대를 이어 혁명을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혈통이 끊기우지 말아야 하네. 가정은 가정의 혈통을 이어야 하고 민족은 민족의 혈통을 이어야 하네.》

《어머님!》

은영은 너무도 크나큰 세계에 부딪쳐 숨이가빠울랐다.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 아직 이렇게까지 심원하고 원대하게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너성이란 그저 가정이나 돌보고 자식들이 잘 되거나 바라고 남편을 섬기고 기껏해야 자결로 절개나 지키고 그것을 숙명으로 삼고... 상백이의 영향으로 계몽의 길에 나서서 오늘은 무송이라는 낯선 이국땅에까지 왔으나 혁명의 대, 민족과 가정의 혈통과 너성...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해보지는 못하였다. 또 생각

할수도 없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심각해진 은영이를 일별하며 화제를 돌리시었다.

《적은이, 우리 집에서는 지금 뭘 하고있나?》

《예, 오동진사령이랑 장철호중대장, 공영선생이랑 독립군대장들이 모여 만아드님의 장래문제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미 며칠후에 화성의숙으로 떠나보내기로 하지 않았나.》

《예, 그런데 어머님의 건강이랑 또 동생분들도 그렇고 해서 한 두어달 집에서 가사를 돌봐드리다가 화성의숙에 보내기로 의견이 략착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매우 놀라운 표정이지었다.

《뭐라구? 안되네. 하루라도 빨리 화성의숙에 보내야 하네. 성주 아버님이 혁명의 길을 늘 바빠 걸으셨는데 성주가 두달씩이나 집에서 묵다니 될 말인가. 그건 성주 아버님의 뜻이 아닐세. 한시바빠 떠나보내야 하네. 그리구 적은인 어찌 할셈인가?》

상백은 머뭇거리다가 말쑤드렸다.

《예, 전 선생님의 묘소를 지켜 3년동안 상복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결심도 그렇구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렇구...》

《3년씩이나 상복을 입구 나라는 언제 찾겠나.

내 생각엔 적은이도 성주와 함께 화성의숙에 갔으면 하네. 여기 일이야 은영선생두 있구 또 철주랑 그만큼 컸으면 넘려될것 없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시오. 만아드님은 보낸다치구 전 어머님을 돌봐드려야겠습니다.

전 은인도 스승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은영은 어머님과 김상백을 번갈아보며 어중간에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였다. 방안이 너무 더워 얼른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이 개이는지 별들이 하나, 둘 나타난것이 보였다.

《모기성화를 받을수 있네. 잠자기전에 모기썩을 태우라구. 썩은 부엌구석에 놓아두었네.》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창문쪽을 돌아보고 다시 상백이한테 시선을 돌리시었다.

《배은망덕이라구? 섭섭하네. 그럼 나도 성주 아버님을 잃었으니 이젠 이사 집을 싸가지고 만경대로 나가 시부모님들을 모시겠네.》

《예?》

상백은 자책에 빠졌다.

《적은이, 내 언제인가 말했지만 가장 큰 효도는 나라를 찾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네. 성주 아버님이 만경대 사립문을 떠나면서 기어이 조선의 독립을 이루고야 돌아오겠다고 맹세를 남기셨는데 나라도 못 찾고 빈손으로 어떻게 시부모님앞에 나서겠나. 성주 아버님의 뜻대로 성주를 그

길에 내세우고 아들이 가는 길을 천만리라도 따라가며 도와서 꼭 독립을 안고 시부모님을 뵈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네.》

《어머님! 제가... 제가...》

《됐네, 그만하라구. 아무래도 내가 집에 가서 그분들과 다시 토론해야겠네. 적은인 여기서 은영이와 해후를 나누라구.》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은영이, 그럼 편히 쉬라구. 부엌에 차려놓은 밥상이 있네. 적은이와 함께 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라구.》

은영은 멀리까지 따라나가 어머님을 바래워드렸다. 상백은 어머님의 모습이 어둠속에서 사라지자 은영이에게 말했다.

《봤소? 어떤분이신지. 선량하고 인자하고 인정 많고 그러면서도 강직하고 굳세고 애국심이 투철하고... 정말 위대한 어머님이시오. 우리 조선이 독립운동의 령수를 잃었지만 만경대가문의 어머님이 계시여 김형직선생님의 위업은 곳곳이 이어지고 조선은 독립의 날을 맞이할것ियो. 그래 나도 자제분을 따라 래일 당장 화전으로 떠날 결심 이요. 은영이가 어머님을 받들어 백산학교를 잘 운영해주오.》

《알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길로 어머님을 뒤따라가 의논에 협력해야 할것 같소. 령감들이 어찌나 고집 불통인지... 안됐지만 오늘 밤 은영이 혼자서 쉬오. 래일쯤 댁에 손님들이 적어지면 어머님께서 은영이를 데리러 올거요.》

김상백이 어둠속으로 사라진 다음 은영은 빈방에 홀로 앉아있었다. 이 하루동안에 겪은 일들이 너무도 극적이고 격동적이어서 마치 한세기를 살아온것 같았다. 천리길을 달려왔으나 뜻밖에 당한 슬픔과 비애... 그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슬픔하고 슬기롭고 강毅한 어머님의 세계에 대한 감동과 걱정... 작은 심장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들로 하여 은영은 온밤 잠들수 없었다.

《땡땡땡... 땡땡땡...》

무송의 아침을 흔들며 종소리가 울려퍼졌다. 방금 화성의숙으로 떠나시는 아드님일행을 바래워주시고 돌아오신 강반석어머님께서 백산학교의 종을 울리고계셨다.

어머님의 옆에는 《국어독본》을 가슴에 안은 은영이가 서서 환희에 넘친 얼굴로 달려오는 학생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땡땡땡...》

은영에게는 그 종소리가 이 나라 녀성들과 아이들, 온 민족을 반일전으로 불려일으키시며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호흡하시는 강반석어머님의 숨결처럼 생각되었다

위대한 수령의 슬하에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태어난다(3)

박춘력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작가 백인준은 혁명가극창작사업에 참가하였다.

우리의 혁명가극들이 세계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기울인 백인준의 노력도 깃들여있다.

백인준은 혁명가극창조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비범한 예지, 무한대의 탐구정신을 가슴뜨거이 느끼고 배웠다.

정녕 혁명가극창작기간에 받아안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떠나 가극창작가로서의 그의 성공을 이야기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형상한 혁명영화 《민족의 태양》의 영화문학을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창작하였으며 또한 백두의녀장군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혁명영화의 영화문학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창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작품창작에서도 앞장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1(1972)년말 백인준의 앞가슴에 로력영웅메달을 친히 달아주시고 나는 동무를 믿고 동무는 나를 믿으면서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잘 관철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백인준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굳은 맹세를 다시금 다지였다.

그는 이 맹세를 한치도 드팀없이 지켰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대본을 창작할 때였다.

혁명가극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는 한주일동안 창작실의 책상에 붙어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를 잘 아는 작가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는 상이 떠올라 펜을 잡고 책상에 마주앉으면 낮과 밤이 바뀌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끼니시간도 아예 잊어버렸다.

식당에 통 발길을 돌리지 않는 그에게 밥을 날라갔지만 취사원은 점심에는 수저도 대지 않은 아침밥그릇을 도로 들고나와야 하였다.

그렇게 하여 한주일만에 완성한 가사를 들고 일어서던 그는 졸도하여 쓰러졌다.

저녁밥을 차려가지고 그의 방으로 가면서 또 수저도대지 않은 점심밥그릇을 들고나와야 될거라고 걱정하던 취사원이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다급한 소리를 질러서야 결방에 있던 작가들과 작곡가들이 달려오고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가 주사를 놓아 피어나게 한 다음 그를 침대에 옮겨눕혔는데 그가 신은 구두를 벗길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손칼로 구두끈을 모조리 끊고서야 간신히 구두를 벗길수 있었다고 하니 그의 창작적열정의도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극장에 데려다 주시오.》

그러자 취사원이 놀라서 부르짖었다.

《아니, 식사를 드신지가 언제데... 그 몸으로 극장에 못 가십니다.》

그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취사원을 안심시켰다.

《난 극장에 꼭 나가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언제 극장에 나오실지 모릅니다. 그이를 뵈고 돌아와서는 내 식사를 끝배기로 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부축을 받으며 극장에 나갔다.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때가 가장 값높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는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긍지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예술영화에 조국에 대한 시를 넣으라는 과업을 주셨을 때였다.

교교한 달빛이 흐르는 밤 그는 련광정에 나갔다.

거기서는 청류벽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여울물소리가 들려왔다.

모란봉의 그윽한 술바람소리가 가슴에 젖어들고 버들술에 달빛이 안개처럼 서린 룡라도가 정겹게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조국에 대한 시는 어떤시이겠는가를 생각하는 그의 머리속엔 마침내 파란곡절을 다 겪은 주인공의 가슴에 서른해 동안 쌓이고쌓인 온갖 시름을 대동강 맑은 물에 씻어주리라는 시상이 떠올랐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만년필과 종이를 찾았다.
그런데 종이는 자그마한 휴지조각뿐이었다.
그는 거기에 머리속에서 줄줄이 떠오르는 시구
를 썼다.

손바닥과 손등, 팔에도 썼다.

그는 그것을 더듬어보면서 이틀동안에 서정시
《조국에 대한 생각》을 명작으로 완성하여 영화에
넣었다.

이 서정시처럼 시구마다 풍만한 서정이 넘치는
주옥같은 서정시들을 명작으로 창작한 그가 풍
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걸작으로 내놓았다
는 사실은 세계적인 대문호로서의 그의 재능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것이다.

그가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창작한것
은 주체49(1960)년이였다.

그해 설날 아침 동두천에 등지를 틀고있던 미
제침략군 어느 한 부대 중대장놈은 미제침략군사
명 두놈을 시켜 20대의 녀성을 강제로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하반신에 뽕끼칠하여 거리에 내쫓았
다.

신문에서 이 보도를 본 백인준은 격노하였다.

연약한 녀인이 당한 수난을 백배, 천배로 복수
하기 위하여 그는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
를 썼다.

미제야만들은 연약한 한 녀성을 벌거벗겼지만
시인은 풍자시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쭉 벌거벗기고 온 미국을 벌거벗겨 썩은 《라체왕
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쭉 벌거벗은 워싱턴 네거리를 활개치는 아메리
카 《신사》들, 벌거벗은 알몸똥이에 빠져이 중절
모를 쓴 미국의 은행가들, 훌딱 벌거벗고 유엔의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미국대표...

시인은 더럽고 치사한 이놈들에게 호통친다.

《야, 이 깨끈한 새끼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조선의 밖으로 내쫓을테다

인류의 속에서 내쫓을테다》

시인은 세계의 전면에서 아메리카의 야만들로
부터 인간의 허울을 벗겨 인류밖으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백인준의 세번째 시집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미제의 야수성과 포악성, 도덕적저열성과 문화적
후진성을 폭로조소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필치의
풍자시들로 묶여졌다.

작가 백인준은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것은 그의 평론활동에서도 표현되였다.

그는 해방후 일제사상잔재와 반동적문예사상을
반대하여 시집 《응향》의 반동성을 날카롭게 분
석비판한 평론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하여야
할것이다》를 창작하여 《로동신문》에 발표하였
으며 일부 편협한 작가들과 평론가들속에서 어느
한 장편서사시를 혈투고 성과를 깎아내리는 그
릇된 경향이 나타나고있을 때 작품의 사상예술적
성파를 옹호하고 그의 높은 예술적풍격을 전면적

으로 분석한 평론 《북조선문단의 새로운 수확》
을 써서 당보에 발표하였다. 이 평론들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의 문예리론
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선도하는 당적평론의 모범
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백
인준은 참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그의 한생의 나무리는 세계적인 대문호
답게 후세에 커다란 정신적유산을 남기는 놀라운
창작적수확기로 장식되였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해의 봄에 외국에 가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
는 보고를 받으시고 하실수 있는 모든 치료대책
을 세워주시였으며 그를 외국의 권위있는 병원에도
보내시여 치료받도록 해주셨던것이다.

외국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는 침대우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
상한 작품인 《영원한 합창》을 썼다.

입원실에서 그는 조국의 방송을 늘 듣고있었
다.

그는 서사시의 줄거리를 극성이 강하게 끌고나
가면서 기쁨진 장면을 창작하여 독자들의 기억속
에 남아있게 하려고 고심하였다.

그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투쟁하시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
지의 신묘한 사격술을 형상한 장면을 썼을 때였
다.

조국방송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
월15일, 주체87(1998)년 태양절을 앞두고 온 나
라가 들끓는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전하고있었다.

그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진보적인류가 뜻깊게
기념하는 태양절!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태양국에서 태양절을
맞이하는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그런데 태양절을 이국의 병원에서 맞다니?! 안
돼, 빨리 돌아가자. 내 나라 태양국으로 어서빨
리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그 나라 의사들의 완강한
반대와 그 나라 주재 우리 외교대표부의 간곡한
권고도 뿌리치고 기어이 어머니조국으로 돌아오
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안에서 백인준은 그 나라 의사가 한 말
을 생각하였다.

《선생은 지금 끝수종을 앓고있단 말입니다. 우
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여 선생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원한다는겁니까?》

백인준은 자기가 불치의 병을 앓고있다는것을
이미예감은 하고있었다. 의사는 그 예감을 확인해
준것이였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정작 그 불길한
예감을 확인하게 된 그의 마음은 평온할리 없었다.

그는 지난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의 시창작을 총화하는 시선집을 출판하도록 해주셨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고 가다나...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하루를 한달, 한해 맞잡이로 살 결심을 다졌다.

그는 조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동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리고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그는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권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백년을 살아선 뭘해! 병원에서 빨리 나가자. 해야 할 일이 많다.》

병원에서 며칠만이라도 입원치료를 받자는 소설가인 아들에게 한 그의 말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연극 《최학신의 일가》가 상연될 때였다. 어떤자들은 이 작품을 계급의 자멸성을 설교하는 반동작품이라고 하면서 작가를 위협하였다.

—이 작품을 철회하라. 작가인 당신이 작품을 취소하고 공연을 중지하게 하라.

—안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작가대렬에서 나가야 한다는걸 알라.

—그래도 안돼!

이처럼 작가는 순결한 창작적량심과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였다.

그런 작가였기에 백인준은 병원침상을 뿌리치고 나가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인생총화를 하게 될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렸다.

그는 서사시 《영원한 합창》을 끝낸데 이어 아버지수령님을 노래한 서정시 《태양의 탄생》,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노래한 서정시 《위대한 미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노래한 서정시 《그리움》과 서정시 《주작봉마루에서》, 《삶에 대한 명상》을 탈고하였다.

주체88(1999)년 1월에 들어서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노래의 가사를 창작할 결심을 안고 긴장한 창작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몸을 움직이기가 시시각각으로 어려워졌다.

가끔 의식이 흐려지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약기운으로 의식이 맑아지면 다시 펜을잡았다.

그러던 주체88(1999)년 1월의 어느 토요일이였다.

그날 아침 백인준은 아들에게 자기를 사무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가사를 끝내겠다는것이였다.

다.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글이야 침대에 누워서도 쓸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 그는 대답하였다.

《내가 가극에서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그길에선 죽어도 영광이라는 노래를 썼지? 총잡은 병사는 결전장에서 쓰러지는것이지 배개를 베고 죽지 않아. 펜을 잡은 작가는 글 쓰다 죽어야지.》
하는수없이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하고 출근하였다.

사무실책상앞에 앉은 그는 그리움이 짙게 어린 눈길로 오래도록 전화기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이 전화기에서 그리운 우리 장군님의 다정한 음성이가 들려오는것만 같구나. 이 전화기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는 펜을 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노래를 그는 바로 그날에 완성하였다.

...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

그리고 가사의 제목도 이 마지막구절을 그대로 옮겨달았다.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

생명이 경각에 다달았지만 한생을 불같이 태우고 싶었다.

작가 백인준은 그 며칠후에 사망하였다.

숨을 거둔 그의 책상우에는 완성된 가사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송가를 주체36(1947)년에 창작한 때로부터 52년이 되는 주체88(1999)년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송가를 창작한것으로 백인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세계적인 대문호로서의 값높고 빛나는 한생을 마쳤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50여년간 창작활동을 한 백인준은 우리 군대와 인민, 인류에게 많은 문학유산을 남겨놓았다.

참으로 그는 20세기 문학사에 찬란한 페이지들을 두툼하게 기록한 세계적인 대문호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문호가 김일성조선에서 태어난것이 얼마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것인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장군님의 비범한 재능을 닮은 세계적대문호 백인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백인준에 대한 이야기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면 평범한 작가도 세계를 놀래우는 대문호가 되고 인류의 정신문명창조에 커다란 공헌을 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소류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예봉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는데 돌려져야 한다.

사상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의 해외침략을 위한 주되는 수법의 하나이다.》

《사상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우리는 약초밭의 독초와 같은 부르쵸아사상문화가 뿌리내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부르쵸아사상문화의 자그마한 요소도 제때에 밀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그모습 그마음은

김송남

뜻깊은 명절
태양절 그날에
인민들모두를 공원과 유원지로 내세우시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선
멀고먼 최전연초소를 찾으시였어라

태양절을 맞는 동무들이
아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할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하시며
감격에 목메이는 병사들을
따뜻이 안아주시는 우리 장군님

수령님 모시고 여기에 오시였던
오래전 그날을 그려보시며
절절히 하시는 말씀
—여기에 오니
조국통일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던
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추연하신 표정
숙연하신 음성
여기 밤깊은 숙소마당가에서
밤새 우는 소리도 새겨들으시던 수령님
그이께서 그날 자신에게 하시던
뜻깊은 말씀을 더듬으시여라

지난날 산에서 싸울 때는

저렇게 밤새가 올면
짓밟힌 인민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분계선이 가까운 여기서 또다시
저 밤새소리를 들으니
남녘동포들 생각에 잠들수가 없다시던
그 말씀... 그 말씀...

그 말씀 그 뜻을 더 깊이 새겨주시려
몸소 준비해오신
소박한 점심식찬도 권하시며
손수 축배잔도 부어주실 때
장군님의 눈빛은 뜨겁게 불타시여라

—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여 듣시다
수령님의 유혼을 언제나 잊지 말고
조국을 꼭 통일합시다

눈물을 삼키며 병사들은 들었다
뜨거운 축배잔을
사연깊은 그 밥과
취기밥 덩이덩이를...

수령님의 유혼을 지켜갈 맹세를 안고
병사들모두가 뜨겁게 우러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은
아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시였다!
통일된 조국의 창창한 미래였다!

가사

장군님의 새벽길

신운호

저 하늘 별들도 고요히 즐고
새들도 숲속에 잠든 이 새벽
요람속 아기들 단꿈을 꿀 때
전선길 가시며 생각도 깊네
아 새벽 장군님의 새벽길이어
애국의 열정 노을로 피는 전선길이어

수령님 한평생 가신 새벽길
장군님 이으신 전선새벽길
야전차 불빛에 먼동이 트고

사랑의 미소에 새날이 밝네
아 새벽 장군님의 새벽길이어
애국의 열정 노을로 피는 전선길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신 길에
날마다 첫새벽 남먼저 맞네
장군님 쉽없는 그 길 이어져
새날의 내 조국 더욱 부강해
아 새벽 장군님의 새벽길이어
애국의 열정 노을로 피는 전선길이어

인민의 보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량민보증서에 대한 감동깊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량민보증서란 도천리에서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던중 적들에게 체포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백명의 사람들이 그이의 청백성을 보증한 문서이다.

500 명의 도장과 지장이 주련이 찍혀있는 량민보증서, 그것은 김정숙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사랑이었고 지지였다.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시는 김정숙동지에 대한 군중의 평정서와도 같은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비범한 성품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늘 자신을 인민의 딸, 인민의 총복, 인민의 벗으로 생각하시였으며 동시에 인민을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선생으로 여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던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이 없이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찼어주곤 하시였다.

한번은 한 지주가 열병에 걸린 부엌데기 소녀를 산중초막에 내버린 일이 있었다. 아무도 불쌍한 그 소녀를 돌봐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거리낌없이 초막에 찾아가 소녀와 침식을 같이하며 병구완을 해주시였다.

그 소식을 듣고 동무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살릴 가망도 없는 아이 하나때문에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다가 감염되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떻

게 하는가, 돌봐주더라도 침식을 같이하는것만은 제발 그만두라고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시였다. 목숨이 두렵다고 아이 하나 살려 못내면 나라는 어떻게 찾고 인민은 어떻게 구원해내겠는가, 인민을 살리자고 내댈 목숨인데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는 김정숙동지를 그들이 어찌 말할수 있었으랴.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끝내 불쌍한 소녀를 살려 내시였다. 도천리사람들은 마침내 김정숙동지를 《우리 옥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한마리가 생겨도 그들은 《우리 옥순이》를 찾았고 갓난아이의 백날잔치를 차려도 《우리 옥순이》부터 찾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딸로 되었고 손녀로 되였으며 누이로 되였고 언니로 되였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도천리사람들은 비분의 눈물로 그이를 배웅하였고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량민보증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누를수 있었던것이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인민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수가 없다, 김정숙은 인민에게 사랑을 바친것만큼 자기가 그처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웅대한 보답을 받은것이다, 그러고보면 500명의 인장이 찍힌 량민보증서는 그가 인민의 참된 총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라고 해야 할것이다라고 회고록에 쓰시였다.

량민보증서에 깃든 뜻깊은 사연은 오늘도 천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인민에게 자기의 심장을 바치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다운 사랑을 받을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깨우치고있다.

교정의 백양나무

류춘선

해빛도 따스한 교정의 이 봄날
초소로 떠나며 제자가 심은
한그루 백양나무
뜨거이 쓰다듬어보는 스승의 마음

그날부터
교정에 뿌리내린 백양나무는
한돌기 년륜도 다 감지 못했던만
돌아왔구나 나의 제자
파도 사나운 적구에서
원썩들을 이긴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되어
조국의 축복속에 돌아왔구나

봄별에 살랑이는 애어린 잎새
이 세상 찬바람 눈비가 무엇인지
이 백양나무 어이 알수 있으랴만
제자의 마음속엔
그날에 벌써 뿌리깊이 내렸구나
장군님 따르는 신념의 역센 기둥이
사랑스런 백양나무 보느라면

달마산마루에 올라
쇠물노을 비낀 교향하늘 바라보며
즉흥시를 읊던
그날의 너의 목소리 들려오누나

쇠불이를 모아들고
용해장을 찾아가며
강철지구 사연깊은 백양나무앞에서
생각이 먼저 커가던
너의 작은 발자국이 어려오누나

이 백양처럼
열정에 부풀던 너의 가슴은
밤가는줄 모르던 교정의 불빛아래서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기 전에
태어난 교향을 알았고

용해공아버지들의
몸에 배인 쇠물내음새를
생의 향기로 뜨겁게 새겨안은
너는 강선의 아들

그래서

난바다 풍랑속에서도
장군님 그리는 네 마음은
두려움을 몰랐고
그 신념의 목소리로
수천의 원썬들을 전률케 하였거니

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쇠물이 끓는 뜨거운 이 땅
어디가나 백양나무
무성한 숲을 이룬 이 땅은
너를 키운 사랑의 대지

강선땅
정든 모교에 억센 뿌리를 내린
한그루 어린 백양나무
또다시 폭풍이 몰아쳐온대도
끄떡없으리라
꺾이지 않으리라
내 또한
한생 밀거름이 되려니
우리 장군님 받드는 훌륭한 제자의
영원한 스승으로

새벽길의 발자욱

고남철

피현군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투쟁의 발자취가 뚜렷하게 새겨진 력사의 땅이다.

간밤에 내린 비로 하여 숲속의 오솔길에 바지가팽이는 물론 옷웃까지 다 젖었어도 걸음걸음 후더운 생각은 없으며 동틀무렵에야 백마땅에 들어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청신한 산향속에 우렁이 드러난 백마산고개를 바라보았다.

은빛모래가 정히 깔리고 넓고 환한 도로가 열린 고개를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 얼마전에 만났던 반일에국렬사유가족인 주영희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체7(1918)년 가을 평양감옥을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쇠약해진 몸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을 일떠세우시려 결연히 교향 만경대를 떠나 또다시 투쟁의 길에 나서시었다.

혁명의 먼길을 이어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어느날 의주를 거쳐 삭주로 가시려 백마산고개를 넘으시었다. 그때 산림간수로 위장한 신응식(주영희의 시아버지)이라는 《조선국민회》회원이 선생님의 신변을 호위하여 동행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이 앞서시고 신응식은 열뒤걸음 뒤에서 걸으며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

름드리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우고 그아래 뻑뻑이 자란 참나무숲이 술렁거리더니 불길같은 온몸에 줄무늬가 짙죽 건너간 중소만 한 범이 선생님의 뒤에 나타났다. 너무 뜻밖이라 소리도 못치고 있는데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아무 일도 없으신듯 혼연히 가시던 걸음새로 걸어가시는것이였다.

범은 선생님의 뒤를 느릿느릿 따르며 누가 나타나면 당장 거센 앞발통으로 후려칠듯싶은 태세로 좌우를 살피며 가는것이였다.

그렇게 고개를 내려 의주땅 압록강가의 동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땅거미가 진 늦은 저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사립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서시자 호랑이는 어둠속에 슬며시 자취를 감추는 것이였다.

땀에 흠뻑 젖어 뒤로 들어서는 신응식을 보신 선생님께서서는 몹시 놀라시며 그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난 응식이 호랑이때문에 놀라서 돌아간줄 알았는데 끝까지 따라왔구만》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백마산 호랑이도 선생님을 알고 호위하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저도 호랑이와 함께 왔습니다》라고 겁을 먹었

던 자신이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히며 신응식이 말씀드렸다.

《호랑이도 선생님을 알아보신다!》...

전설같은 이 사실앞에서 나는 흥분을 억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자기를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찬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 간 아버지였다.》

정녕 김형직선생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초행길이며 새벽길이었다.

새벽길은 남모르는 길이다. 남이 자는 새벽, 남이 걷지 못하는 외롭고 험한 길아닌 길,

눈보라치는 새벽, 굶은비 내리는 밤, 험한 산발을 넘고 강을 건느시며 이름모를 바위밑에서 쉬고 시내가의 한모금 물로 허기를 달래시며 땀으로 젖고 때로는 피로 적시며 걸으신 새벽길에 사람이 아는 발자욱보다 산천이 아는 발자욱이 더 많은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이었다.

왜놈들의 시퍼런 칼날이 걸음마다 독을 쓰며 기회를 노리고 살벌했던 그때, 뜻있다는 우국지사들마저 혈강들을 찾아 구결행각을 떠돌 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총대혁명, 무산혁명의 원대한 리념인 《지원》의 사상을 안으시고 동지들을 찾아, 인민을 찾아 걷고 걸으시며 력사의 떠명을 불러오시던 김형직선생님!

의주의 통군정, 벽동의 완월루에서 무장투쟁에로 부르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불같은 목소리를 오늘도 담아내고 압록강 푸른 물결이 격량을 일으킨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여러차례나 다녀가신애국의 발자욱이 새겨진 이 산천!

가사

벌나비 꽃을 찾아 춤을 출 때면
꽃들도 벌을 반겨 활짝 웃어라
향기가 넘치는 고운 꽃같이
너와 나 인정미 풍겨야 하리
아 인정미는 우리 삶의 향기
참된 삶이 간직한 향기라네

인정미 없으면 향기없는 꽃
있이 진 나무와 다름없으리
향기론 꽃 찾아 벌이 오듯이

그날의 호랑이도 눈오고 비오는 험한 산발을 넘고넘으시는 선생님의 억센 기상에 머리숙이고 길동무되어 해불같은 눈빛으로 앞길을 밝히며 주변을 보위한지 어이 알랴!

그랬으리라, 금수도 이 나라의 금수일진대...

새벽길은 위인들의 길이며 대를 이어 가는 길이다. 백두산의 천만산악을 다 헤치시며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새벽길, 오늘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에 새겨가시는 새벽길의 자욱마다 얼마나 가슴뜨거운 하많은 전설들이 수놓아지고 위대한 창조의 변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은빛언제가 하늘에 이마를 번뜩인다.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태천의 언제들이...

전설속의 은빛룡마런듯 대령강굽이마다 나래퍼고 솟아오른 내 고향의 전설도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자욱에서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태천4호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는 것은 이른아침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오신곳이 최전연초소가 아니면 어느 전설장일진데 온밤을 수백리 아니, 수천리길에서 이어진 새벽에 이어 밝아온 아침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새벽길의 자욱우에 웅장한 수력발전소들이 일떠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실현되었으며 선군시대의 새로운 전설들이 꽃피나고있다.

백마산고개길을 걷는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남먼저 초행길에 바지가랭이를 적시며 걷고걸으리라는 다짐이 더욱 굳어졌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걸으신 그 새벽길과 함께 백두산3대장군들의 그 길을 심장속에 새기고 오늘은 수천수만의 선군혁명선구자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선군혁명총진군길에 위훈을 수놓으며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겨 힘차게 걸어가고있다.

내 삶의 향기

오순영

너와 나 인정미 풍겨야 하리
아 인정미는 우리 삶의 향기
참된 삶이 간직한 향기라네

자연의 꽃들은 한철 피지만
우리의 인정미 계절이 없네
일심단결 내 나라 고운 꽃 되여
너와 나 인정미 풍기여가자
아 인정미는 우리 삶의 향기
참된 삶이 간직한 향기라네

전 쟁

럼형미

아장아장...
전쟁인줄도 모르고
세살난 어린것은
엄마엄마 울며 찾다가
어느 락업무지속에 쓰러져 잠들겠지

깃도 돌지 않은 아기새
둥지에서 떨어져
포탄튀는 풀송구리속에서
저혼자 무서움의 깃을 치겠지...

그 애는
평범한 한 인민군군관의 아들
울망줄망 세 어린것을 데리고
후퇴의 보통이를 인 후방가족녀인이
어느 한 마을에서 잃어버린 아이

최고사령부 작전도
붉고푸른 무수한 화살표들에
어룡어룡 보이는것은
오직 아이뿐
심장을 저미는 아픔을 느끼시며
수령님께선 나직이 물으시었다

《가만, 애를 잃은 지점이 어디라구?》
드리지 말아야 할 보고를 안고온듯
눈길을 떨구는 연락군관
후퇴의 엄혹한 시련
삶과 죽음의 도가니속에서
무슨 일인들 차마 없으랴
삶중에도 가장 거대한 삶
승리중에도 가장 팽절한 승리만이
관가리되는 여기 작전도
최고사령관의 붉은 색연필에
어이 알았으랴 엄마잃은 세살난 어린애가
천만근의 연추를 그을게 될줄을...

벌써 몇번째
가사

그이께선 자신에게 되물으신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이란 적아간의 공방전? 전략의 두뇌전?
평화의 도덕이나 질서
사랑의 물리가 무시되는 전쟁?
인간에게 아픔을 줘도
리유와 조건이 성립되는 전쟁?

아니!
수령님께선 단호히 고개를 저으신다
다시금 왼쪽가슴언저리가
짜악— 아이의 숨결을 그려안는듯

그렇다
나의 전쟁은 아이를 되찾는 전쟁
나의 포탄도 아이를 지키는 포탄
나의 군대도 아이를 싸안는 군대
적구의 아이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포탄도 군대도 최고사령관도
무의미하다!

쭈욱—
남으로 화살표 그어진다
래일의 승리를 위해 그어지던 화살표들
적후의 빨간 동그라미를 향하여
무겁게 무겁게 돌아선다

전선을 날으는 최고사령부의 명령
《포위작전!
아이를 잃은 지점에서부터 찾지 말고
30리밖에서부터 포위진을 치고 수색할것
진대나무 하나 바위돌 하나도
스쳐보내지 말것 !》

아, 전쟁
이것이 1950년 10월
준엄한 조선의 전쟁이었다

아버지의 군복

김성준

우리 집엔 소중히 걸려있어라
전화의 포연스민 아버지의 군복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색날은 군복은 말하여주네

우리 집엔 자랑으로 걸려있어라
싸움마다 위훈세운 아버지의 군복이

침략자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군복의 훈장은 말하여주네

우리 집엔 가보로 걸려있어라
거울처럼 보며 사는 아버지의 군복이
전세대 넘을 이어 한목숨바쳐
조국을 지켜갈 맹세 불타네

단편소설



회답할때가 되었다

김철민

1993년 3월

그 미국인의 첫번째 편지가 온것은 클린턴정부가 우리의 원자력지구를 군사적수단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뒤이어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과 방위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바로 그때였다. 유엔대표부성원으로 뉴욕에 가있던 한 외교일군이 출장차로 제네바에 왔다가 스위스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참사 안류경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제임스 케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진행된 반전국제행사에 참사동지가 나온것을 CNN의 TV 통로로 보았는데 지난 조선전쟁때 자기가 만나본 사람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참사동지가 연설하는 장면을 수록한 록화테이프를 가지고 왔더군요.》

편지결봉엔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시 xx 거리라는 발신지와 함께 《제임스 케빈》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도수높은 안경을 끼고 개봉한 편지의 글을 한참 읽어내려가던 참사가 마침내 머리를 끄덕였다.

《필적이 옳소.》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가 이제 40년이 돼오는데 필적이 기억나신단 말입니까? 참사동진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젊은 외교일군은 놀라와하였다.

《기억력이야 뭐 특별하겠소만... 전쟁때 겪은 일이야 다 잊혀지지 않지.》

전쟁에 대한 추억과 회상이 전화의 나날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슴을 평생토록 적시며 내리는 비와 같다고 안류경은 늘쌍 생각한다.

《그 미국인은 참사동지가 회답을 보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그것 참 미국식이군. 그에게 전하시오 회답을 하고 안하는것은 나의 자유라고 말이요.》

그 일군이 떠나간 다음 안류경은 미국인의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때 당신과 내가 국가의 전략을 결정하거

나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가나 장군들이 아닌 쌍방군대의 하급장교들에 불과했지만 당신과 내가 그때 개인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조선사이의 관계를 서로 논의했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있는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신문에 공개하였습니다. ...》

편지를 보는 안류경의 눈앞에 전쟁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1952년 11월

포로수용소는 미군폭격기들의 공습을 받고있었다.

불덩어리가 된 건물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미군포로 한명이 절망에 빠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혼비백산하여 덩벼치다가 다리를 상한 포로는 주저앉은채 살려달라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있었다.

저마다 죽기내기로 병실을 뛰쳐나온 포로들중 어느 누구도 동료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건물을 통채로 휘감은 불길의 형세는 엄청난것이였다. 비행사가 어찌나 조준을 정확히 하고 투하했는지 나뭇잎이 건물지붕을 직격하여 병실은 물론 그 주변이 온통 무서운 불길을 뿜으며 흐르는 나뭇잎혼합물천지였다.

최선돌상위가 불길속으로 달려들어갔고 몇순간후에 질식되어 늘어진 포로를 어깨에 둘러멘 그의 모습이 화염을 뚫고 나타났다. 병사들이 달려나가 불이 당긴 최상위와 포로의 몸에 준비했던 흙모래를 뿌렸다.

적폭격기들이 비행운을 남기며 동남쪽 하늘가로 사라졌을 때 수용소측은 포로들을 점검하였다. 직탄을 맞아 죽은 70의 포로들과 스무명가량의 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포로들이 다 무사하였다.

불속에서 포로들을 구원하다가 우리 군인이 두명 희생되었는데 그들의 시신은 수용소근처의 야산에 안치되었다.

목의 화상부위에 붕대를 대충 둘러감은 최상위의 지휘에 따라 한개 분대의 병사들이 동지들의 봉분 앞에서 조총을 쏘았다.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저쪽 등성이에서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집단안장하고 십자를 굿던 미군포로들이 총소리가 울리자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 시각 안류경소위는 고통스러운 의혹에 사로잡혀있었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저 인간들의 목숨을 살려주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아이들과 녀인들과 늙은이들을 죽이는 데서 그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미군병사들이 자기들의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보존의 문제앞에서 얼마나 가련하고 비굴해지는가.

전투에 참가할 때부터 《포로로서 나의 생명을 담보해줄것을 청원한다》는 글이 영어와 조선말로 각기 인쇄된 카드들을 몸에 지니고있던 그들이 포로될 당시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했는가에 대에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여기 포로수용소에 온 포로들은 노상 허공을 향해 십자를 굿는다, 그들은 전쟁의 신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은데 대하여 그리고 이토록 안전한 포로생활을 할수 있게 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것이였다.

포로가 된것을 수치가 아니라 행운으로 여기는 군인아닌 《군인》들! 양키들이란 다 저런 종자들이다.

포로들을 관리하는 이곳 군인들의 심사는 늘쌍 이런 경멸감으로 가득차있었다.

전쟁시작부터 포로수용소의 통역 및 심사성원으로 복무하고있는 안류경소위 역시 미군놈들이 하나같이 비굴하고 너절한 작자들이라는 견해에서 남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이 박히다싶이 굳어진 그 견해를 뒤집어놓은 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최상위가 오늘 불속에서 끌어낸 미군비행사포로의 출현과 관계되어있었다.

그 포로가 수용소에 온것은 며칠전의 일이였다.

키가 거의 2미터에 달하고 얼핏 보기에다 체중이 100로를 넘을것 같은 장대한 체구의 그 미군비행사가 심사실로 처음 들어섰을 때 포로를 데리고 온 어린호송병의 정수리가 포로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름과 나이, 소속과 직무를 말하시오.》

《이름은 제임스 케빈. 나이는 스물여섯입니다. 제5공군사령부 전략정찰비행대 비행사, 직급은 대위입니다.》

《고향은 어디요?》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입니다.》

《언제부터 공군에 근무하였는가?》

《나는 태평양전쟁시기 하버드대학 정치행정학원을 다니다가 대학을 그만두고 1945년 8월에 미군공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류경의 안경렌즈가 호기심으로 빛났다. 하버드의

정치행정학원이라면 《백악관으로 가는 통로》로서 그곳은 미국권력의 총아들을 키우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존 아담스로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이르기까지 여러명의 대통령이 《하버드의 산아》들이며 미국인들은 하버드대학을 《권력과 부의 해산실》이라고 부른다. 하다면 이자는 하버드의 가혹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 2. 3부류의 계층으로 탈락한자인가.

《교육과정을 끝내지 못한걸 보니 공부에 꽤 힘이 부쳤던 모양이요.》

그러자 케빈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럼 대학을 그만두고 군대로 들어간 리유는 뭐요?》

《군대로 들어간 리유 말입니까?》

포로는 류경의 눈치를 약간 살피다가 이윽고 웅크렸던 거대한 몸집을 쭉 폈다.

《1945년 8월 6일은 미국공군이 일본에 원자탄공격을 진행한 날이지요. 세계대전을 종말지은 그 사건은 나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고 나는 공군에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조선전쟁에는 언제부터 참가했소?》

《전쟁시작부터입니다. 우리 비행부대는 상대측 지역에 대한 정찰비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수행한 임무의 내용을 상세히 말하시오.》

《전략폭격을 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촬영, 주요 폭격지점들을 지도상에 표기하는것이 비행소조들의 과제입니다. 레컨대 당신네 지역에 대한 우리 공군의 대규모폭격이 진행되기 하루 혹은 이틀전에는 반드시 우리 비행소조들이 당신네 상공을 비행합니다.》

포로는 대화과정에 심사가 누긋해져서 류경이 문건을 기록하는 동안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방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창문밖을 기웃이 내다보았다.

반듯하게 닦아놓은 수용소마당에서는 마침 일요일이라 포로들이 투구경기를 벌려놓고 벽척 떠돌고 있었다. 고함소리와 휘파람소리들이 뒤섞여 울렸다. 실눈을 지은채 그 광경을 바라보던 포로는 류경이 철필대로 책상을 딱딱 두드려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시선이 서로 마주치자 어깨를 으쓱하였다.

심사는 계속되였다.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느쪽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자 포로는 눈을 쪼프리면서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선전가들은 이 전쟁이 붉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물론 그 반대로 해설할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견해로 보면 이 전쟁은 두 국가가 서로 자기 리익을 놓고 벌리는 싸움입니다. 력사상의 어느 전쟁이나 다 그러했지요. 어느쪽에 정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힘이 센쪽이 정의지요. 세상만사는 강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전쟁에서 어느쪽이 강자라고

생각되오?)

여기서 포로는 약간 주저하며 류경을 바라보았다.

《물론 당신은 내게서 솔직한 대답을 바라시겠지요?》

《그렇소.》

《좋습니다. ...나는 사실 이토록 작은 나라가 세계최대의 국가와 전쟁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글썄... 어느 쪽을 강자라고 해야 하겠는지? 그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포로는 애매한 어조로 말끝을 얼버무리고말았다.

류경은 이자가 여느 포로들과는 확실히 다른 놈이라는것을 재삼 느끼며 포로의 심리를 더 파헤쳐보기로 하였다.

《당신은 자기네 미군이 강자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어쩔소, 내 말이 옳지 않소?》

포로는 류경의 시선을 피해 눈길을 돌리면서도 대답은 피하지 않았다.

《예, ...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경은 포로치고 그렇게 발언하는자를 처음 보았다. 그는 포로를 다시한번 관찰해보았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본적 없는 천연스런 얼굴... 피동피동한 몸집... 희고 매끈한 기다린 손가락들... 전선에서 전투의 세례를 겪은자들과는 판이한 작자였다.

공중전에 한번도 참가해본적이 없는 정찰비행사! 이런자들이 바로 《리론적인 전쟁》에만 숙달되어있는 미국식기계주의적사고의 맹신자들일것이다. 만약 이자가 전선에서 교전의 맛을 톡톡히 보고 끌려온자라면...

류경의 가슴속에 경멸과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제하여야 했다. 포로에 대한 육체적 학대행위는 물론 정신적압박을 주는 사소한 행동도 포로취급규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있는것이다.

그는 포로에게 다시 질문하였다.

《그럼 당신네 미국이 강자로 되는 근거를 말해보시오.》

포로는 상체를 꼳꼳이 하였다.

《미국은 신에 의해 선택된 나라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실험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신은 우리 미국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과 가장 큰 재부를 가질 기회를 주었으며 그리고 또한 이 세계를 미국식으로 개조할 사명을 주었지요. ...》

포로는 웅변가였다. 어느새 흐릿하던 재빛눈이 도취에 빠져 번쩍거렸다.

류경은 이자가 어린시절에 보았던 하와이의 망신적인 종교전도사들과 비슷한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포로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문건에 써넣었다.

기록을 끝낸 그는 호송병에게 포로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려다가 아무래도 포로에게 한마

디 침을 놓고싶은 생각을 버릴수가 없었다.

《이만합시다. 그런데 말이요. 당신이 미국에 대해서 그럴듯 한 말들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네 미국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하나 상기시킬가 하오.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지만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았을것이다.>》

포로는 두팔을 벌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마크 트웨인! 아주 훌륭합니다. 당신의 영어가 대단합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쓴웃음을 지은 류경은 호송병에게 포로를 데리고 나갈것을 지시했다. 포로에게 다가선 병사가 새된 소리로 명령했다.

《일어섯 !》

그날 저녁 군관침실에서 미군비행사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류경이 하였을 때 최선돌상위는 류경을 힐책하였다.

《동문 뽀뽀하구만. 그따위 수작을 제맘대로 켜치게 내깔려둔단 말인가.》

최상위는 1차진격때 락동강계선까지 나갔다는 사람으로서 전선에서 보병중대장으로 싸우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조동되어왔는데 포로수용소에서의 근무를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에 의해 가족을 모두 잃은 그는 《모조리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의 종자들과 이마를 맞대고있지 못하겠다.》며 전선부대로 다시 보내줄것을 상급에 여러번 제기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쨌든 이날 밤 군관들사이에 여러가지 얘기가 오갔다.

《원자탄에 대한 승배로 군대가 되었다? 광신적인 놈이군. 여적 보지 못했던 녀석이요.》

《들으니 요새 적들이 원자탄사용에 대해서 또 떠든다고 하오.》

《양키들이 전선에서 몰릴 때면 꼭 그 원자탄타령을하지. 원자탄은 그것들이 궁해빠질 때마다 내두르는 호신부란 말이요.》

군관들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아군이 이 전쟁에서 강직한 정신과 우월한 전략전술로 적들을 이기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아군의 화력과 적의 화력의 차이가 너무 심한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힘겨운 전쟁을 하고있는가.

총! 바로 무기가 부족하여 우리 군대는 승리를 눈앞에 둔 락동강에서 돌아서야 했다

그때 자기 생각에 빠져 안경을 닦고있던 류경이 《우리도 그 원자탄이라는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요.》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군관들은 일시에 말을 끊고 류경을 보았다. 이상야릇한 침묵이 병실을 지배하였다.

《안동무. 혹시 요새 패배주의사상에 빠진건 아니요?》

최상위가 쏘는듯 한 시선으로 류경을 보고있었다. 사람의 속을 꿰뚫는 매서운 그 눈초리에 접하자 류경은 당황해졌다.

《그런게 아니라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들보다 화력이 우세하다면 미국놈들이 전쟁을 걸어올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가령 우리도 그 원자탄이라는것을 가지고있다면...》

《그만두라우!》

최상위의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울렸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건디는줄 아는가. 그건 이 정신때문이야. 1차남진후에 비행기가 없어서 싸울 못하겠다는 비겁분자들이 군대에 나타나더니... 어디서 또 이런 패배주의 《도깨비》가 나타나났어?!》

《패배주의자라구요?》

류경의 두눈이 억울함을 금치 못하여 화등잔만 하게 커졌다. 다른 군관들이 옆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보 최동무, 아무렴 이 사람이 패배주의자겠는가.》

《안동무, 최상위동무의 말은 동무를 준비시키자는거요. 변증법으로 봐두 발전이라는건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잖소.》

그러나 최상위의 분위가 삭지 않은 거센 목소리는 그들모두를 놀려버렸다.

《여하튼 내 그 제임스란 놈을 가만두지 않겠소. 개자식! 그놈이 바루 손이 고사리같은 아이들을 죽이는 폭격에서 앞잡이노릇을 하던 놈이 아닌가. 포로가 된 주체에 아직 정신을 못 채리구 건방지게 놀아대는 그런 놈은 아예 사등뼈를 꺾어놔야 해!》

그런데 미군비행사의 사등뼈를 분지르겠다면 최상위의 맹세가 바로 그 포로를 죽음에서 구원해주는것으로 끝나고말았다.

안류경은 장례식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에 대렬뒤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최상위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목에 감겨진 봉대를 살펴보며 물었다.

《아프지 않습니까?》

최상위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입가에 쓰거운 미소같은것이 언뜻 스쳐지나갔다. 최상위의 씩씩한 표정, 팽엄한 철빛 얼굴은 왜선지 안류경의 마음을 괴롭혔다.

착잡한 눈길로 자기를 보고있음을 느낀 최상위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채 큼직한 손으로 류경의 어깨를 톹쳤다.

《뭘 그러우.》

최상위는 곤란하거나 따분한 처지를 피해야 할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최상위는 포로 대렬을 감시하는 호송병들에게 소리 쳤다.

《총대를 유지 할것!》

무쇠방치로 철관을 내려치는듯 한 구령이 울리자 들쭉날쭉 느슨하고 산만하던 포로행렬이 인차 팽팽한 바줄처럼 정 연해졌다. ...

그날 저녁이 거의 될무렵 기통수가 류경을 찾아왔다.

《소위동지, 군사우편 <군 61257> 에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

그것은 류경이 언제나 기다리는 편지였다. 그러나 류경은 그 편지를 선뜻 받아쥐지 못하였다.

소위의 어두운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 기통수는 회답편지를 인차 주겠는가를 물으려다 그만두고 돌아섰다.

편지를 켜 류경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지를 뜯었다.

《...적비행기와와 전투를 끝내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전투와 진지보수를 하느라 그새 읽지 못했던 신문들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 동무의 시가 인민군신문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저의 기대는 여전합니다. 나는 오늘도 동무의 시 <봄의 버드나무>가 적힌 수첩을 펼쳐보면서 전쟁전의 일들을 생각하였답니다. ...》

류경의 눈앞에 귀엽게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 어깨너머 흘리내린 쌍태머리를 꼭 쥐고 선 날씬한 처녀가 떠오르고있었다. 아울러 그의 뇌리속에 서정시, 무용... 같은 전쟁이란 말과 거리가 먼 개념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의 명상속에서 여름밤의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것들이다.

그러나 그는 가슴을 비수처럼 찔려들어오는 생각에 소스라치며 꿈을 털어버리는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어둠이 깃드는 수용소의 전경, 아직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수용소의 파괴상이 눈앞에 다가들었다. 수용소근처에 립시가설한 천막들안으로 미군포로들이 밀려들어가고있었다.

그는 포로들을 구원하다가 불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두 병사를 생각하였다. 그 한사람의 얼굴은 끝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류경은 그 병사가 중학을 졸업하고 입대한지가 한달이 안된 신대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뿐이다.

공습을 받은지 한주일이 되는 날, 포로수용소는 민족보위성명령에 따라 서북부국경근처의 산간오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것은 포로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2002년 1월

《...이란, 이라크, 북조선 등 《악의 축》국가들을 포함한 7개의 적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3원전략적핵전쟁능력의 수립, 미싸일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한 능동적방어와 팽전시기부터 수립된 기존의 3원전략적핵전쟁능력 (지상발사탄도미싸일, 잠수함탄도미싸일, 장거리폭격기)에 의한 핵선제공격의 준비...》

《2002년 1월 미국군사전문 웹사이트 《세계안보》에 공개된 미국방부 《핵태세검토보고서》중에서》

《북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의 계획은 새로운것이 아니다. 1998년 6월, 백악관에서 클린톤대통령이 남조선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새로운 대북조선접근방법과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론하고있었다. 그 시각 노스캐롤라이나의 세이모어 존슨공군기지를 출발한 미공군의 <F-15E>전투기비행대대가 B61 핵폭탄의 실물크기모형인 (BDU-38)을 탑재하고 플로리다 에이본 파크폭격장으로 향했다. 우리의 임무는 대북조선장거리핵폭격 모의실험이었다. 우리는 조선반도전쟁시나리오에 따라 핵모의훈련을 실시했다.》

(xx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미공군중좌 랜덜비그엄의 발언)

2002년에 제임스 케빈의 두번째 편지가 제네바로 왔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낸지 10 년이 되었어. 오늘까지 당신은 회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의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그 편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피치못할 침묵인지 혹은 완전한 무시인지 그 태도를 분간할수 없는 무언의 뽕담한 상대에게 다시 대화를 요청하는것이 나 개인의 자존적견지에서 결코 유쾌한 일이 못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한 국가의 시민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행동은 지난세기 50년대 조선전쟁과 같은 가혹한 열전이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시민으로서의 희망과 신념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조선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현실로 되어가고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년두교서에서 <악의 축>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의지를 언명하였으며 이로 하여 반세기전 당신들의 국가가 역사적우연으로 피할수 있었던 핵공격의 세례가 눈앞의 현실로 도래한것입니다. ...》

제임스 케빈은 장황한 그 편지에서 부쉬2세의 강경보수정권을 이끄는 《체이니컬사대》의 핵심인물중의 하나인 미국방장관 램스펠드가 미군비행사로 전쟁에 참가했었다는 사실도 려거했다. 그는 《전쟁에 참가한 미국의 로병들이 전쟁을 잊지않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미싸일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국동수역에 배비된 미태평양함대소속 《이지스》본전함대의 기함 이름이 《장진》호로 명명된것은 바로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미군이 진행한 비극적인 전투의 하나였던 장진호반전투는 물론 그 전쟁의 모든 교훈들을 잊지 않았고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회고는 이 행성을 주도하는 역사적인 위치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미합중국의 의지에도 부합되는것입니다. ...》

안류경참사는 그 두번째 편지도 회답을 보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임스 케빈은 지난 50년대 전쟁에 대한 미국로병들의 기억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부합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에게는 과거를 인간의 태도와 자세로 돌이켜볼 의지가 그토록 없는가. 《력사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배운다.》는것은 그들의 소위 력사적지성을 대표한다는 토인비의 말이 아닌가.

1952년 12월

포로대렬의 이동은 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행되었다. 한산한 바람이 락엽을 흩날리는 깊은 산골길로 긴 미군포로행렬이 흘러갔다.

미군포로들은 행군은 커녕 도무지 제대로 걸을 줄조차 모르는 무리들이었다. 하루면 충분한 150여리밖에 안되는 거리를 포로들은 거의 3일간을 갔다.

포로대렬전체가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행군이 시작되어 불과 몇십리를 못 가서 포로들은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저따위들이 다 군대라고!》

휴식구령이 내리자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거나 너부러지는 포로들을 바라보며 최상위는 경멸을 금치 못해하였다.

《2차세계대전때 련합국측 군인들이 트럭만 타고 흔들거리는 미군을 <트럭군대>라고 야유했습니니다.》

류경의 이 말에 최상위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코웃음을 쳤다.

《트럭군대라, 흥! 그럴듯 해. 저 녀석들은 그 기계자가 붙은 물건에 명을 건 놈들이니까. 그러니 저놈들은 날 때부터 기계! 기계! 하고 떠들다가 죽을 때도 그 기계에 매달려죽을 종자들이야.》

《거 괜찮은 정치강의요.》

호송대렬을 책임진 박대위가 한마디 하였다.

이때 안류경의 시선은 비행사포로 제임스 케빈한테 가있었다.

길가녘의 풀섶들에 들개처럼 웅크리고 쪽잠이든 어느 포로들과는 달리 그자는 선채로, 서성거리며 군관들쪽으로 눈길을 돌리곤 하였다.

《저 녀석이 아까부터 여길 흘끔흘끔 넘겨다보는데 아마 담배생각이 나는 모양이요. 한테 갖다 주라구, 안동무.》

류경이 포로에게로 갔다. 포로는 그를 긴장하게 바라보았다.

《담배를 피우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민 커다란 손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기색을 보니 수용소에 처음 왔을 때 취했던 오만성은 이미 찾아볼수 없었다. 저승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포로는 큰 정신적충격을 받았을것이다.

포로가 담배 한대를 꺼내들고 담배갑을 다시 내밀자

류경이 손을 저었다.

《동료들과 나누어 피우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경이 담배불을 붙여주고 돌아서는데 포로가 《미안합니다만 장교님.》 하고 그를 찾았다.

《무슨 일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장교가 (포로는 최상위를 가리켰다.) 나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류경이 돌아와서 그 말을 하자 군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제법 인걸. 최동무, 가서 인사를 반소. 저 량반들이 이럴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좀 보자구.》

《아예 조선식으로 절을 시켜보지 그래.》

최상위는 손을 뻗 내저었다.

《별놈의 자식 다 보겠군.》

30분 후에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포로들은 여전히 허우적거렸다. 예정시간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여 도중에서 급식문제가 제기되었다. 비상미를 털어서 포로들을 먹이고 대신 호송병들은 모두 굶어야 했다.

박대위는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이러다가 포로들이 로상에서 다 쓰러지고말겠소.》

그의 명령에 의해 호송병들과 군관들이 제일 녹초가 된 포로들을 말아 끌고갔다. 개중엔 우리 병사들에게 업히다싶이하여 움직이는자들도 있었다.

포로대렬이 예정된 xx 읍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의 해가 서쪽산마루로 사라져가는 저물녘이었다.

길거리 량켠에 화포들을 피워놓은 음식점사들이 줄느런히 앉아있었다. 길거리의 대기는 따끈하고 구수한 음식냄새로 차있었다.

포로행렬이 거리에 막 들어서는데 누군가 《미군놈들이다!》 하고 소리지르자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삽시에 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미군놈들이다!》

《미군놈들이요!》

호송병들이 포로들의 주위에서 경계태세를 취했다. 군관들이 먼저 나가며 술렁거리는 군중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이놈들은 포로들입니다. 다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양심을 잔뜩 품고 달려드는 사나운 애녀석들을 향해 호송병들이 위협적인 소리를 거듭 질렀다.

《저리를 물러가, 애들아.》

《돌맹이질을 했단간 없어!》

지휘관은 대렬을 멈춰세웠다. 포로대렬은 거리의 한켠에 몰려서고 그 반대켠에 군중이 서서 응성거렸다.

박대위가 군관들을 모이게 하였다.

《포로들에게 우선 요기를 간단히 시켜야겠소.》 군관들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모아친 박대위가 찌리광주리를 앞에 놓고 선 녀인들에게로 갔다.

먼저 한 중년녀인한테 박대위가 《고구마값이 얼마인가요?》 하고 묻자 낡은 솜옷의 겹친 말소매안에 손을찌르고 섰던 몸매 양바툼한 그 녀인은 목도리속에 감추었던 목을 약간 내밀며 군관을 빠끔히 올려다보았다.

《하나쯤은 그냥 자시라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 고구마를 다 사겠습니다.》

《다요? 그럼... 그렇게 하시구려.》

녀인은 광주리앞에 재빨리 주저앉아 보자기를 벗겼다. 녀인에게 돈을 치른 대위가 호송병을 불러 고구마광주리를 안겨주었다.

《가서 나누어주라구.》

병사가 광주리를 들고 포로들에게 갔다. 그런데 그때까지 눈을 울롱하게 뜨고 사태를 주시하던 녀인이 와들 놀라 달려나가더니 호송병의 팔꿈치를 잡으며 광주리를 붙잡았다.

《저놈들을 맥illery구요?》

병사가 대답을 못하고 군관들쪽을 돌아보자 박대위가 녀인에게 다시 갔다.

《아주머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녀인은 받았던 돈을 박대위의 손에 무작정 쥐여주더니 병사에게서 광주리를 빼앗아내었다. 녀인은 광주리를 안고 군중쪽으로 종종걸음을 쳐서 되돌아오며 소리쳤다.

《저 백정놈들한테 내 고구마 멕여?》

군중들속에서 《아주마이, 그거 참 잘했시다!》 하는 통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대위는 구슬프게 웃으며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우린 포로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은 군인들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군중속에서 《거참 별난 임무도 다 있군.》 하는 비양이 올라나왔다.

한편 음식점사들은 죄다 군중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닐곱살 나보이는 조그만 개구장이녀석 하나가 광주리를 들고 박대위한테로 다가왔다.

《인민군대아저씨, 지짐 잡주세요.》

《?...》

커다란 광주리를 작은 팔로 그러안고 뒤통거리는 그모양이 위태로와 박대위는 얼른 허리를 굽혀 아이에게서 광주리를 받아 땅에 놓았다.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쳐다보는 애녀석의 먼지얼룩이 가득한 얼굴을 보자 박대위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보자기가 반쯤 벗겨진 찌리광주리안에 금방 집에서 해내온듯 한 수수지짐이 가득차있었다. 아마도 지짐을 팔려고 거리에 나오던 어떤 아낙네가 아이에게 광주리를 맡기고 잠깐 자리를 뜬 모양이었다. 애녀석은

자기의 행동이 자랑스러운듯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너의 엄마는 어디 갔니?》

박대위의 물음에 아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엄마 아니야요. 우리 할머니 이제 저기서 와요.》

《오— 그래, 할머니! 어쨌든 좋다. 그럼 이 지짐을 우리가 다 사겠다.》

박대위는 아이의 손에 돈을 쥐여주고나서 호송병을 다시 불렀다.

《빨리 가져가요.》

병사가 광주리를 들고 가자 군중속에 숨어버렸던 고구마녀인이 머리를 내밀며 아이를 향해 뺨소리를 질렀다.

《애 용이야! 너 이제 할머니한테 혼쌀난다. 미군놈들한테 지짐을 주면 안돼!》

미군놈이라는 소리에 아이는 그만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오탁 굳어져 박대위만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다. 의혹과 불안으로, 동그해진 그 까만 눈이 하도 애처로와 박대위는 아이를 성큼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의 할머니가 오시면 내가 얘기를 할테니 걱정말아.》

한 로파가 다가왔다. 쪽박처럼 일그러지고 새까맣게 탄 로파의 조그만 얼굴은 무명수건으로 꼭 동여져있었는데 조글조글한 얼굴에서 작은 눈이 뿌연 빛을 뿌렸다.

《아, 할머니...》

아이를 내려놓고 인사를 한 박대위가 사정을 설명하려 하자 로파는 그만두라고 손을 내저었다.

《됐수다. 군대들이 하는 일인데 내 웬걸 나무라겠소.》

《고맙습니다. ... 할머니.》

안도의 숨을 내쉬 박대위가 다시 고개를 숙이는데 로파는 아이가 쥐고있던 돈을 박대위에게 내밀었다.

《이 돈을 도로 건사하시우.》

《할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받을수 없소. 우리 군대한테 돈을 받는다는게 웬말이요.》

로파의 어조는 조용했지만 강단기가 있었다. 끝내 돈을 박대위의 손에 쥐여준 로파는 길 건너편에서 지짐광주리앞에 웅기중기 모여있는 포로들을 보더니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술렁이던 군중은 조용해지고 거리엔 숨소리 하나 없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박대위의 눈짓에 의해 류경이 로파의 뒤를 따라섰다

로파는 지짐을 급히 먹어대는 포로들의 몰골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마침내 광주리가 텅 비었다. 그때 꼭오무라든 로파의 입이 열리며 추상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놈들! 처먹은 값을 뭘루 낼테냐?》

갑자기 터져나온 로파의 욕설에 포로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특히 지짐을 급히 먹고 입을 닦

던 케빈의 유포한 몸뚱이가 류경을 향해 돌아섰다. 류경이 로파의 말뜻을 알려주자 머리를 끄덕거린 제임스 케빈은 주위의 포로들에게 소리쳤다.

《값을 치르라구!》

포로들은 품안에 손을 넣어 1팔라, 5팔라, 10팔라짜리 지폐들을 꺼내들고 로파에게 다시 다가왔다. 그들은 《고맙다》는 사례의 말들을 중얼거리며 광주리안에 푸른 지폐들을 놓았다.

《우리는 신에 의지한다》라는 글이 찍혀진 푸른 지폐들! 그것이 전쟁에 나온 미군병사들이 귀중히 품고다니던 물건이라는것을 류경은 알고있었다. 그들에게는 전쟁마당으로 떠나는 남자들에게서 녀인들이 작은 단위의 화폐를 호신부로 주는 관습이 있다. 포로들은 그 《호신부》들을 광주리안에 놓았다.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찍힌 1팔라짜리 지폐가 제일 먼저 쓰러광주리안에 떨어지고 그뒤로 《링킨 에이브라함》, 《알렉산더 해밀톤》 등 미국전국의 조상들이 차례로 떨어졌다.

군중과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보았다. 무겁고 팽팽한 분위기는 여전히 사위를 지배하였다.

이윽고 《지불》을 끝낸 포로들이 모두 물러섰다. 로파는 광주리를 들어 안의것들을 땅바닥에 활활 털어버렸다.

《이따위 종이조각들루 값을 치르겠단 말이나. 이놈들!》

돌연히 불어온 바람이 지폐들을 산지사방으로 날려보냈다. 로파는 분연한 어조로 말했다.

《상통을 보니 너희들두 사람의 종자는 분명코나. 그런데 이놈들아! 왜 제 고장에 처박혀있지들 앓구 예까지 와서 짐승같은 지랄들이냐. 네놈들두 어미와 할미들이 있겠지. 난 네녀석들의 어미나 할미들한테서 값을 받아야겠다. 이 룡실할 것들아!—》

어느덧 로파의 말이 절규로 변하고 조글조글한 눈귀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까맣게 조그라든 얼굴을 적시고있었다.

그때 조국보위후원회 성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포로대렬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미처 빨리 나오지 못했습니다. 포로들의 숙식준비는 다되었습니다. 어서들 가십시오.》 서두르는 그들을 제지하며 박대위가 포로들앞에 서있는 로파를 말없이 가리키자 한사람이 말했다.

《저 할머니의 일가식술이 미제놈들의 폭격에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전선에서 대대장을 하던 아들 (저 애의 아버지이지요.)은 51년도에 전사했습니다. 남은건 손자녀석 하나뿐입니다. 군당에서 저 애를 유자녀학원에 보내도록 결정이 있었는데 녀석이 할머니와 떨어지겠다고 해야 말이지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로파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때까지도 최상위의 품에 안긴 아이는 도

리머리를 치며 흐느껴 울고있었다.

《할머니... 미군놈들이야...》

최상위는 불이 흐르는 두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꼭 그러안고있었다.

그날 밤 포로들은 읍거리의 주민집들에 분산되어 숙식하였다.

다음날 아침 포로들이 출발한지 한시간쯤 지난 뒤 호송병이 류경에게 미군비행사포로가 만나게 해줄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류경은 포로에게로 갔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 늙은이가 우리가 치른 돈을 왜 버렸는지 알려줄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의 돈으로는 그 값을 치를수 없기때문이에요.》

《돈이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돈이면 음식값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군포로의 재빠른 타산은 혐오감과 분노를 대뜸 일으켰다. 그러나 류경은 자기를 자제하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분은 당신들의 폭격에 일가식술을 다 잃은 할머니요.》

제임스 케빈은 흠칫하고 고개를 움츠렸다. 골똥한 생각에 파묻혀 걸던 포로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늙은이는 우리에게 왜 음식을 주십니까? 장교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난 사실 그 할머니가 욕을 퍼붓다가 리성을 잃고 당신들에게 달려들 줄 알았겠소. 그 늙은이는 당신들한테 온 식술을 잃은분이란 말이요, 알겠소?》

류경이 다시 못을 박으며 쏘아보자 케빈은 난처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머리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찌겠습니까. 전쟁이란 그런것이지요.》

포로의 그 말은 류경의 가슴속에 불덩이같은것을 대뜸 치밀어오르게 했다.

《전쟁이란 그런것이라구?》

류경은 지금껏 지켜오던 점잖은 태도를 버리고 말았다.

《케빈! 너의 고향이 필라델피아라고 했지. 우리의 비행기들이 필라델피아를 폭격했다면, 그 폭격에 너의집이 파괴되고 가족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말할셈인가? 그래도 그것이 전쟁이라고 말하겠는가?》

《...》

류경은 돌아서며 침을 뱉고말았다. 몇시간후에 포로대렬은 새로 꾸려놓은 깊은 산중의 수용소에 도착하였다.

수용소는 아찔한 산봉우리들로 사방이 둘러막힌 커다란 호수주변의 골짜기에 전개되었다. 태고적부터 내려온듯 한 깊은 정적이 서린 계곡! 묵은 송진내를 풍기는 장대한 소나무들이 끝간데

를 알수 없이 우거진 그 골짜기에 그해의 첫눈이 내렸다. 계곡의 하늘을 짙 채우며 내리는 눈송이들이 거울같이 매끈한 호수수면에서 가뭇없이 녹아버렸다. 그것은 가혹하고 소란한 전쟁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한없이 맑고 푸른 안정과 고요한 적막으로 가득찬 정경이었다.

그곳에서 류경은 전날 받은 편지에 대한 회답을 썼다.

《...이 전쟁은 내가 이전에 알수 없었던 심각하고 무거운 진리들을 가르쳐주고있습니다. 나는 장차 교단에 다시 나설 때 학생들에게 외국어수업에 앞서 보다 먼저 알려주어야 할 인간의 진실을 배우고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겪은 이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도덕과 윤리, 이 전쟁에서 우리 사람들이 지킨 정의와 양심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

2005년 2월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2005년 2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중에서)

공화국이 세계에 그 성명을 발표한 2005년에 제임스 케빈의 세번째 편지가 왔다.

《...의혹과 억측으로 혼란스럽고 미래는 커녕 오늘의 현실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이 시대에 당신들의 선언이 또 하나의 무서운 수수께끼로 등장하였습시다.

나는 당신들이 이라크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혹시 그 선언으로써 비극을 자초하는것이 아닌가를 숙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당신네 국가에 핵선제공격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를 상상해보았습니까?

1952년 12월, 포로수용소가 이동해가던 그 산골길에서 당신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들이 필라델피아를 폭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때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일이거니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미국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또 선제공격선택의 권리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눈앞에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을 보고있는것입니다.

조미간의 핵대결은 이 지구상에 구약성서에 예시된 아르마게돈(세계종말의 최후대결전)의 시대를 몰아올것입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결심여하(국가의 존속과 유지, 혹은 그 리익을 기준으로 한)에 따라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자기의 국가가 그 공격을

보장할수 있는 물리적힘을 정말로 갖추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시각, 1953년 7월에 내가 수용소에 남기고 간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류경은 눈을 감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또렷이 떠오르는 글줄들을 보고있었다.

《평양... 필라델피아... 키스토운주... 선물을 보내다... 원자공격...》

이것은 52년전 제임스 케빈이 포로수용소에 남기고 간 글속에 있던 말들이다.

류경은 그 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한페지가량 되는 글의 전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있었다.

1953년 7월

류경은 포로들에 대한 마지막문건을 가지고 민족보위성으로 올라왔다. 군수수송차편으로 평양까지 오는 파정에 적들의 폭격을 많이 겪었지만 그의 기분은 별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번 임무수행차에 시간이 나면 보위성직속반항공부대의 한 녀성군인을 만나볼 생각이였다. 그가 바로 류경에게 편지를 보내준 하던 처녀였다.

전쟁전 xx 대학에서 외국어교원을 하던 안류경은 1949년초에 《민주청년》신문에서 발표한 문학작품현상모집요강에 마음이 끌려 서정시를 써서 투고하였다.

대동강반의 버드나무풍경을 《봄의 버드나무》라는 제목으로 서정화하려는 노력을 재간껏 기울였는데 운수가 좋았는지 시가 신문에 발표되었다.

시가 나간 후 대학으로 서너통의 편지가 왔다. 시가 좋다고 축하한 편지도 있었고 표현과 형상문제를 놓고 논쟁을 걸어온 편지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편지는 이상한것이였다. 그것은 어느 유치원 교양원이 보낸 편지로서 발신인의 이름이 《xx 유치원 교양원 성류연》으로 되어있었다.

《같은 녀성으로서 평양에 대한 좋은 시를 지은 류경동무를 축하합니다.》라고 서두를 댄 편지의 필자는 《류경, 류연의 두 이름이 자매의 이름같다》는것, 자기의 이름은 버드나무와 제비를 의미하는 이름으로서 자기 아버지는 훈풍에 설레는 봄의 수양버들과 그 주위를 살같이 날아에는 제비들을 그린 풍경화가라는것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처녀는 자기가 지금 유치원교양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장차 무용가가 될 희망을 안고 민족무용연구소에 무용전습을 다니는중이라고 썼다.

《...사람들은 제가 기악을 하는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 꼭 민족무용가가 되려 합니다. 류경동무! 회답을 꼭 보내주세요. 우린 예술을 지향하는 녀성으로서 서

로 리해하고 도울수 있을겁니다. ...》

류경은 이 처녀한테 정말 회답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자를 녀자로 알고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닌가.

《나는 녀성이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를 떼었던 편지종이를 그는 끝내 구겨버리고말았다. 상대를 자기와 같은 녀성으로 알고있는 처녀를 실망시킬 필요가 있으라는 일종의 너그러운 생각과 함께 한번 흥미있는 장난을 해보고싶은 마음이 동한 류경은 회답을 녀성의 편지처럼 꾸며보냈다.

회답을 보낸지 한달이 채 되기 전에 처녀의 편지가 또 왔다. 처녀는 무척 기뻐하고있었다. 그 녀자는 류경의 나이를 들었다. 그냥 동무라고 불러도 될지 아니면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다고 했다. 일이 점점 재미있게 번져간다고 생각한 류경은 두번째 회답을 또다시 보냈다.

《우리 나이가 신통히 서로 같으니 허물없는 동무가 됩시다.》

이후 처녀의 편지는 한두달을 넘기지 않고 오곤 하였는데 처녀는 편지에 숨기는것이 없었다. 자기의 생각과 사물사들을 죄다 또박또박 적어보내는 그 처녀는 지어 무용전습을 다닐 때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들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는 푸념도 써보냈다.

《글쎄 그들은 내가 그런 시시한련애생각을 꼬물만큼도 하지 않는 민청원이라는걸 알고고 하지 않으니 막 속상해. 류경동무는 나의 이 심정을 잘 리해할거야.》

그들의 편지거래는 웅근 한해동안 이루어지다가 1950년 6월초에 처녀로부터 《오는 두번째 일요일에 련광정앞의 버드나무밑에서 만날것》을 희망한 편지가 왔다. 저으기 당황하여 며칠간을 잠 못 이루며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던 류경은 일요일 오전 비상한 결심을 품고 기숙사문을 나섰다. 처녀를 한번 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것이 다.

류경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련광정근처로 갔다. 가슴속으로 야릇한 기쁨과 호기심이 밀물처럼 가득 밀려드는가 하면 줄지에 썰물같이 흩어내리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슴을 텅 비우기도 하였다. 강력한 자성에 끌려든 물체처럼 그곳에 당도한 그는 서신거래의 대상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다.

(!...)

깜장치마에 진홍빛저고리를 받쳐입은 날씬한 처녀가 버드나무결에서 머리를 수그린채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류경은 황황히 자기 차림새를 살폈다. 새벽부터 물을 추겨가며 일껏 다려입고 나왔다는 양복이 왜 그리도 후줄근한지? 게다가 리발을 한지 퍼그나 오래 되었다는것이 생각키워다. (저 날씬한 제비가 이 텅텅한 존재를 알게 되면 아

주 실망할것이다.)

그는 멀찌감치 서서 안경을 벗어두고 하염없이 담기만 하였다.

처녀는 거의 세시간을 기다렸다. 주변을 오가는 술한 일요일 휴객들중에서 자기 또래 처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는 처녀는 한낮이 가까와오자 이마천으로 자주 손수건을 가져갔다. 그 모양이 류경에게 어떤 죄의식까지 불러일으켰다.

드디어 오전시간의 마감을 알리는 정오의 고동 이 요란히 울릴 때 류경은 처녀에게 다가갔다.

《성류연동무이십니까?》

《동문 누구세요.》

《전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

의혹과 경계가 어린 처녀의 검은 눈이 류경을 보았다. 예리하게 쳐들린 긴 속눈썹이 가슴을 찌르는듯하여 류경의 얼굴이 대뜸 붉어졌다.

예상했던것보다는 너무도 훨씬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래서 그는 처녀의 시선을 땔수록 피해가며 중얼거렸다.

《동무가 기다리는 xx 대학사람은 오늘 오지 못합니다.》

《아! 그 대학에 계세요? 그런데 류경동무는 왜 오지 못합니까?》

《그는 오늘 사정이 있습니다.》

《...》

처녀가 어쩐지 자기를 수상스럽게 보는것만 같아 류경은 고개를 돌리며 서둘러 얼버무렸다.

《여하튼 오지 못하지요.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황황히 돌아선 류경의 등뒤에서 의혹과 실망에 찬 처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근데... 저 좀 봐요. 류경동무가 어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류경은 눈을 질끈 감은채 그냥 걸어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을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처녀에게 모든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랑해를 구하는것이 어떨가. 그러면 필경 저 처녀는 나를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녀석으로 생각할테지. 그래도 솔직히 털어놓는것이 이렇게 도망가는것보다는 옳은 처사가 아닐가?

두서없고 혼란스런 생각에 쫓겨 류경은 발걸가는대로 허둥지둥 달아났다. 처녀의 안타까움에 젖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잔등을 때렸다.

《그럼 다음 일요일에 여기서 또 기다리겠다고 전해주세요!》

그 사건이 장차 자기의 운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런지 그때 류경은 알수 없었다. 다만 그가 내린 결론은 그 모든것이 녀자이름인지 남자이름인지 언뜻 분간키 어려운 자기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맹랑한 일이라는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류경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이였다. 이름!

인간의 이름에는 인생이 비친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는 조국으로부터 수천키로미터 떨어진 하와이 호노룰루의 이주민 공동묘지에 묻혀있었다.

안류경은 상해에서 태어났다. 《한일합병》이후 고국을 떠나 이국을 전전하던 그의 아버지는 마흔다섯살에야 상해에 거처하는 독립운동자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안해가 해산을 한지 며칠만에 죽어 홀아비의 몸으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안권(류경의 아버지)은 왜놈들이 현상금을 걸고 찾는 《테로조직자》로서 《상해협정》이 주도한 목탄투척사건과 저격사건들에 거의 다 관계한 사람이었다. 왜놈형사들의 사냥개처럼 검질긴 추적에 피할수 없었던 그는 중국인으로 변성명을 해가지고 여섯살난 아들 류경을 러행용트렁크속에 넣고 바다 건너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로 도망을 쳐야 했다.

가지각색의 인종들이 북적거리는 호노룰루의 이주민거리에서 류경의 소년시절이 흘러갔다. 그곳에선 중국아이건, 월남아이건, 필리핀아이건 모두 《찰리, 보브, 잭키》하는 식으로 불리워졌고 류경에게도 《도날드안》이라는 얼치기이름이 붙었다.

부친은 아들을 엄격히 훈시하였다. 너는 도날드가 아니라 류경이다, 양키식이름을 짐승의 이름으로 여겨야한다.

양키들에 대한 부친의 증오는 왜놈들에 대한 감정 못지않게 격렬한것이였다. 양키들은 왜놈들보다 다 고약한 승냥이족속들이라고 부친은 늘 강조했으며 왜놈들이 조선을 강탈할 때 양키들이 부추겼으며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하여 한 애국지사가 미국에 건너가 스티븐스라는 자를 저격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알아두어라! 쪽발이건 양키건 말로는 통하지 않는 종자들이다. 특히 양키들과 마주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놈들은 약한자는 무작정 때리고부터 보는 흉포한 종자들이니라.》

한편 고국에 대한 향수로 가슴을 늘쌍 적시고 살던 부친은 조상대대로 뼈를 묻고 살던 고향 평양으로 언제면 돌아가라는 기대를 안고 살았다.

《천부인을 지닌 하느님의 아들 환옹이 태백산 신단수하에 내려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으며 단군은 1천 5백년간 아사달(평양)에서 조선국을 세워 다스렸거늘, 아사달은 아침의 산, 아침해살, 양지, 양곡을 뜻함이라 예로부터 수려한 버드나무풍치로 이름난 류경이 바로 단군조선이 태어난 곳이다.》

부친은 아들에게 조선은 평양을 출생지로 일떠선 나라이니 이제 하늘의 운세가 유리하게 돌아오는 날이면 조선은 독립될것이며 다시 평양을 중심으로 그 위세를 누리에 떨치게 될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명하는 시각 아들에게서 기어이 평양으로 가겠다는 맹세를 받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유지대로 안류경이 8.15해방후 필리핀, 홍콩, 중국을 거쳐 조국으로 돌아온것은 1946년이였다.

류경은 다음 일요일에 처녀를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이룰수 없었다 그 세번째 일요일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즐겁고 낭만적인 온갖 계획들이 기억되었던 그 일요일을 빼앗기고 준엄한 운명의 길을 따라 조국을 수호하러 떠나간 수많은 청춘들과 마찬가지로 안류경 역시 조국해방전쟁이 인 다음날로 군사동원부에서 군복을 타입고 방향별로 떠나가는 대렬차에 올라 배치된 부대로 갔다. 부대에 온지 한달이 지난 후 그는 성류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문학에 대한 성실한 존중과 깨끗한 동경의 마음을 무책임하게 대하여 동무를 속인 실없는 한 사람을 용서해주시시오...》

류경은 귀중한것을 잃어버리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치고 처녀와 헤어지는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어디 가서 또 찾아볼수 있으랴. 허나 어쨌든 그것으로써 자기와 처녀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끝난셈이라고 치부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반년후에 처녀한테서 편지가 왔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자기가 평양부근의 반향공구분대에서 고사기관총수로 싸운다는 것을 알려온 그 편지에서 그 처녀는 이렇게 썼다.

《지나간 일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연 무엇을 용서해야 할가요? 전 그때의 일들이 즐겁고 귀중하게 생각될뿐입니다. ...》

이후 그들은 군사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성류연은 적비행기와와의 싸움에 대해서 주로 쓰곤 하였다. 전투공로로 하여 그 녀자는 전쟁기간 병사로부터 분대장이 되었고 군공메달을 두차례나 수여받았다. 그러나 안류경은 회답을 쓸적마다 실로 복잡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운명이란 기묘한것이였다. 전쟁전에는 놀음삼아 처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사실을 말할수 없게 된 것이다. 편지에 포로들과의 담화며 포로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쓸수는 없었다. 류경은 전선군인이 되지 못한 자기 운명을 한탄하며 처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도 군인의 임무를 힘껏 수행하고 있노라》는 식으로 적당히 써보내곤 하였다.

하지만 류경은 이번의 임무수행차에 성류연을 꼭 만나기로 하였다. 전쟁의 승리는 눈앞에 다가왔다. 이 전쟁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이 조국을 지킨 군인의 긍지를 안고 고향으로, 자기의 일터와 교정으로, 자기의 혈육, 안해, 혹은 애인들에게로 돌아갈것이다. 나 역시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다. 나는 전쟁기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처녀에게 내가 겪은 모든 체험들을 이야기해주리라. 그는 리해력이 풍부한 처녀가 아닌가. 류경은 이렇게 자신을 고무하였다.

민족보위성 해당부서의 참모일군에게 문건을 인계한 류경은 그길로 반향공구분대로 갔다. 다

행히도 《군 1257》의 우편대호를 가진 구분대는 멀지 않은 곳에 주둔하고있었다.

걸음을 옮길적마다 장화에서 가죽소리가 기본 좋게 빠드득거렸다. 부대를 떠나기 전에 최상위가 그를 불러 검은 윤기가 흐르는 자기의 장화를 벗어주었다. 류경이 사양하자 최상위는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뭘 그러우.》

류경은 가슴을 쪽 찢고 걸어갔다. 잘 닦은 군관혁띠고리와 구리단추들이 해빛에 번쩍거렸다. 지금 자기가 처녀앞에 처음 나타났던 후출근하고 빈약한 그 청년에 비할바없이 튼튼한 인격을 지닌 군관이라는 사실을 흐뭇하게 느끼면서 류경은 보무당당히 걸어갔다.

그러나 운명은... 그가 성류연을 만날수 없게 하였다. 그를 만난 반향공구분대의 녀성군관은 한장의 사진이 들어있는 편지봉투와 가녀이 다스려진 두툼한 수첩을 하나 주었다.

《성류연분대장은 전사했습니다. 그 동무가 남긴것은 이것뿐이에요.》

그것은 군복입은 성류연의 사진이였다. 군모를 단정히 눌러쓰고 반짝이는 구리단추가 꼭꼭 채워진 군복앞가슴에 두개의 군공메달을 단 처녀! 귀엽고 자랑스런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제비》는 금방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는듯 한 눈매로 류경을 바라보고있었다.

(!...)

심장을 비틀어조이는 아픔이 온몸에 퍼져갔다. 급속성의 무거운 휘파람이 귀를 파고들고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후에야 자신을 다잡은 류경은 편지봉투속에 든 한장의 편지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류경동무! 그간 안녕하세요?》라는 단 한줄의 문장이 있었다. 처녀는 편지의 서두를 떼놓고 전투비상소집명령에 따라 사격진지로 달려나갔을것이다.

녀성군관이 이야기하였다.

《류연이는 여러군데 부상을 입으면서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강하하는 미군놈비행기를 격추하고야말았지요. 전투가 끝난 다음 보니 류연이는 방아쇠를 당긴채로 숨을 거두었던군요.》

류경은 성류연의 수첩을 펼쳤다. 첫장에 자기의 서정시 《봄의 버드나무》가 있고 시의 마감런 아래에 《1949년 5월 <민주청년> 신문에서》라는 글이 있었다. 그다음부터는 《나의 고지》, 《조선은 싸운다》와 같은 전쟁의 시편들이 적혀있었다.

고사총구분대를 떠난 류경은 발길 닿는대로 평양시가를 돌아보았다. 파괴된 도시, 완전한 폐허로 화해버린 거리와 거리를 지나 그는련광정부근에 도착하였다. 련광정도 형체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와 성류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자리의 버드나무는 허리를 잘린채 타버렸다. 소이탄을 맞았는지 나무등결이

까맣게 그슬려있었다.

...

방금 섰던 3층벽돌집은
아스팔트길에 거꾸러지고
반나마 타버린 가로수들은
허리부러져 길바닥에 덩구노니

...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남북 3천리에 채더미만 남았다

...

류경의 귀전에 성류연의 수첩에 적혀있는 시구
절들이 처녀의 목소리로 쟁쟁히 울리고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포로
들이 수용소를 떠나기 전에 제임스 케빈이 안류
경중위와의 개별적담화를 요청하였다.

《별이 하나 더 늘었군요. 승진하여 정전을 맞
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무엇ियो?》

《나는 당신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빛을 갇으
려 합니다. 포로수용소로 와서 당신과 담화할 때
나는 자신이 수행해온 정찰임무의 중요한 핵심
은 말하지 않았지요. 내가 수행한 임무의 대부분
은 원자탄공격을 위한 정찰비행이었습니다. 그것
은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대통령이 조선전쟁에
서의 원자탄사용의사를 발표한 후부터 진행되었
습니다.》

《원자탄? 그건 낡은 타령에 불과하오. 당신들
은 전쟁 전기간 그 원자탄사용을 떠들다가 수치
만 당하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소.》

《그러나 만약 우리의 대통령들이 원자탄공격을
결심하고 명령을 내렸다면 전쟁은 이렇게 끝나
지 않았을것입니다.》

류경의 안경이 번쩍 빛을 뿜었다.

《력사엔 만약이라는 가설이 통하지 않소. 들으
니 당신네 상관 클라크는 자기가 미국력사상 처
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의 정전협정에 조인한
불행한 지휘관이라는것을 한탄했다고 하오.》

이발을 지그시 깨무는 케빈의 재빛눈이 이글거
리고있었다.

《나는 다만 당신과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를 나
누고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선 약혼녀가 나를 기다
리고있지요.》

《?!...》

제임스의 입에서 튀어나온 약혼녀라는 말이 류
경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비수처럼 들이찔렀
다. 류경의 낫색이 순간에 창백해지였다. 제임스
는 품속에서 사진한장을 꺼냈다.

《나의 약혼녀 켈시 이바네즈입니다. 이 집은
필라델피아교외에 있는 그의 집이구요.》

그것은 자족에 넘쳐있는 금발머리녀인이었다.
웃고있는 이국녀성의 모습이 시야에 비껴들 때

류경은 눈을 감아버렸다. 군복 입은 성류연의 사
진과 파괴된 련광정! 불길에 까맣게 그슬린 버드
나무등걸이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류경은 끝내
자기를 자제할수가 있었다.

《그래 결혼을 한 다음엔 무얼 할테요?》

《다시 미국공군에 근무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조선으로 올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전쟁이 또 일
어난다면...》

《당신의 비행기는 또 추락될거요 죽지 않고 포
로가 되는 행운이 그땐 아마 차례되지 않을것이
요.》

두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짧은 순간에 보
이지 않는 물줄기가 두사람의 눈동자사이를 수십
번 오갔다.

《당신의 고향은 어딴니까?》

《평양ियो.》

《그곳은 우리 공군의 폭격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것입니다.》

《채더미뿐ियो.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소.》

《사람들이라구요?》

제임스 케빈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다음날 포
로들이 떠나간 다음 수용소를 정리하던 병사들이
종이 한장을 가져다 류경에게 보였다.

《중위동지, 이것이 4호동 수용실벽에 붙어있었
습니다》

종이장엔 영어로 된 이런 글이 있었다.

《미군비행사 제임스 케빈이 북조선군 장교 안
에게 남기는 이야기

미스터 안! 나는 당신들이 훌륭한 인간들이라
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높은 인격을 지닌 당
신과 또한 나를 죽음의 불속에서 끌어내준 인민
군장교 최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나는 52년
겨울의 산골거리에서 우리 포로들에게 음식을
주던 그 늙은이도 평생 잊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모든것을 초월하는 전쟁의
원리, 인간의 의사와는 무관계한 물리적힘의 법
칙이 존재한다는것은 피할수 없는 진실이다. 어
쨌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것은 폭력이다.

당신들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당신들의 모든
도시는 파괴되었다. 반대로 미합중국의 어느 한
도시나 거리도 전쟁의 세례를 받은 곳은 없다.

평양이 이 나라의 가장 조선적인 도시라고 한다
면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안전하고 풍요한 필라델
피아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이다. <미국독립선언>
과 <미국헌법>의 초안이 작성된 필라델피아는 미
국전국의 요람이다. 미국사람들은 필라델피아를 중
심으로 한 펜실바니아주를 <키스토운> (궁륭의 꼭
대기에 있는 마무리췌기들, 즉 궁륭식건축물의 핵
심중추부 주)이라고 부른다. 건축력학상견지에서
서 《키스토운》의 파괴는 그 건물의 전체적붕괴
를 의미하는것처럼 필라델피아의 파괴는 문자그

대로 미합중국의 총적봉피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세계에는 미국의 <키스로운>을 파괴할 힘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당신들앞에는 력사의 고난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령전과 더불어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뒤장에 뚱뚱하고 커다란 폭탄의 그림이 있었다.

가운데 영어문자 《A》가 새겨지고 그림에 《USA》라고 표기된 폭탄옆에 《미합중국이 앞으로의 결심여하에 따라 조선의 <키스토운도시> 평양에 보낼수 있는 선물》이라는 글이 있었다.

《이건 무슨 폭탄입니까?》

병사가 폭탄가운데 새겨진 《A》문자를 가리키며 물었을 때 류경은 종이장을 구겨쥐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원자탄이요!》

전쟁은 그렇게 끝났다. 전쟁이 끝나기 두달전에 포로호송임무를 수행하러 전선동부로 나갔던 최선돌상위도 전사했다.

2006년 10월

스위스는 근세유럽을 일대 전란의 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나뵐레옹의 운명적인 패망과 함께 국경이 확정되고 영구중립국가로 승인된 알프스의 산지국가이다. 1815년 원회의이후부터 이 나라가 지금까지 누려온 180여년간의 특이한 평화는 《세계의 공원》이라 불리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들에 대한 하 많은 상념을 낳는다.

웅글은 금속성을 울리며 레루우를 느릿느릿 달리는 궤도전차들과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의 유연한 거동을 바라보는 안류경참사는 조국의 지정학적운명과 그것으로부터 산생된 력사적인 싸움,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위한 민족의 존엄한 전쟁과정을 돌이켜보며 주먹을 힘껏 움켜쥐었다.

승리! 이것은 얼마나 환희로운 순간인가.

강대한 우리 조국의 힘에 대한 세계의 온갖 의혹과 억측이 최후로 종결되었다. 공화국은 지난 10월 9일 드디어 자기의 절대적힘을 세계에 공표하였던것이다.

안류경의 책상우에는 제임스 케빈으로부터 온 네번째 편지가 있다. 어제날의 전쟁포로는 이렇게 썼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선과 미국사이의 장구한 력사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언론들의 일부는 지금 미국의 강경자세와 압력이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드는 길로 나가게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있습니다.

결국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주는 작용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동반된다>는 뉴턴력학의 법칙이 사회력사적현상으로 증명된셈이라고 말할수 있

습니다. ...》

안류경은 제임스 케빈에게 회답을 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전 조선인민군중위 안류경이 전 미군포로 제임스 케빈에게 보내는 글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당시 포로수용소를 떠난 당신은 단언컨대 이 세계에는 미합중국의 <키스토운>을 파괴할 힘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로 지금 그 말을 당신 자신이 수정할 때가 왔다. 그 이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중에 당신들의 핵전쟁도발에 대처하여 미국의 <키스토운>을 철저히 파괴할수 있는 <선물>이 준비되어있기때문이다.》

반폐지 안되는 짧은 글을 끝낸 안류경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운명행로에 지울수 없이 새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있었다.

이국의 공동묘지에 묻힌 아버지...

불타는 건물에서 포로를 끌어내던 최선돌상위...

포로들에게 저주를 퍼붓던 산골할머니...

그리고 군복 입은 《제비》! 고사기관총수 성류연...

그들은 이 편지에 무엇을 더 쓰라고 할것인가.

그들은 어떤 흉포한 힘으로도 이제 더는 훼손시키거나 유린할수 없는 우리 공민들의 존엄과 생명, 선의와 도덕에 대하여 쓰라고 할것이다. 우리의 핵시험성공은 지난 세기 말의 고난과 시련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선군의 길을 걸어온 우리 나라의 전체 공민들의 심장의 힘이 응축되어 폭발된것임을 쓰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안류경은 그 이야기들을 쓰지 않았다.

제임스 케빈은 미국의 핵위협을 최종적으로 분쇄한 우리 나라의 힘을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고전력학의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단순한 론리다. 그 리론을 따른다면 이 지구상에서 미국의 위협을 받고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미국의 폭력에 맞서 대등한 억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력사적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인들은 어찌하여 조선사람들만이 자기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며 추호의 양보와 한치의 타협을 모르는 무서운 적수로 존재하고있는가 하는 력사적 수수께끼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있다. 인간의 생활과 력사를 기계적공리와 자연의 법칙으로만 해석하는데 습관된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 지닌 힘의 원인을 알수 없다.

그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우리 전쟁의 원리와 우리 식 힘의 법칙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도달할 때 세기를 넘어온 조미대결전의 최후결말이 인간의 참다운 정의와 룰리대로 정당하게 지어질것이라고 전쟁로병 안류경은 생각하였다.

고지의 흙 한줌

리연희

행복의 거리
풍요한 대지
내 나서 밟아온 그 흙이 아니다
여기는 351고지
오늘도 파편 절반 흙 절반
무겁게 쥐여지는 고지의 흙 한줌

내 미처 몰랐구나
백전백승의 이 땅의 력사속에
단 15분
통패한 승리를 새긴 351고지
허나 그 승리를 지켜 50여일간
이 고지엔
얼마나 가렬처절한 낮과 밤들이 이어졌던가
그 얼마나 많은 영웅들의 선혈이 흘렀던가

화강석 저 표식돌들은
걸음걸음 세워주누나
원췌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영웅들의 그 자리
당원들의 뒤를 이어 우리의 민청원들
멸적의 총창을 비껴들고 나아간 그 전호앞에도

여기였던가
부서진 팔다리를 안고
한몸이 수류탄이 되어 적진으로 뛰어들며

한몸으로 철조망을 덮어 돌격로를 열며
피로써 사수한 승리의 고지

세월의 눈비로도
지울수 없었구나
어제 밤 내린 비에 흙은 씻겨도
씻길수록 드러나는 파편들의 잔해
무성한 숲으로도
아름다운 꽃으로도 덮을수 없었구나
분홍빛코스모스 곱게 드리운 옛전호에도
파편 절반 흙 절반 땅은 붉어

내 아직은
맑은 땀밖에 씻어본적 없는 하얀 손수건에
소중히 흙 한줌 담아드니
흙물도 아닌 녹물도 아닌
성스런 피로 붉게 물들듯

내 한줌 흙을 안고
조용히 일어서는 이 마음속에
거연히 키를 솟구는 351고지
그날의 승리를 지켜 반세기
선군의 이 땅을 지켜 영원히
조국의 고지는
최전선에 서있어라

수필

한그루의 살구나무

림길명

금진강홍봉청년발전소언제우의 길가옆에 한그루의 살구나무가 서있다. 바다를 련상케 하는 대인공호수의 운치를 돌구며 설레는 이깎나무수림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그 한그루의 살구나무가 나의 관심을 끄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었던가.

얼마전에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셨던 그날의 감격으로 설레는 홍봉청년발전소를 찾았다.

건설이 한창이던 때 와본 곳이지만 완공된 언제우에 서고보니 모든것들이 새롭게 눈아래 굽어보였다.

산허리를 휘감으며 방망히 펼쳐진 대인공호수며 전기생산을 자동적으로 하는 콤퓨터화된 발전기설이며 정갈하게 다듬어진 방수로며 그리고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문화주력들과 염소떼 흐

르는 방목지... 눈보라 세차게 휘몰아치는 날 언제기초를 파는 건설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내 상해본 천지개벽된 락원의 금진강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되리라 생각이나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며 언제길을 걷던 나는 이깎나무수림기슭에 서있는 한그루의 살구나무밑등아리에 회물칠을 하고 있는 돌격대원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발전소건설 첫날부터 어렵고 힘든 일만을 맡아해제끼는 《돌파구중대장》으로 이름이 난 3중대장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중대에서 생활하며 중대장과 낯을 익혔었다. 중대장은 매우 엄격한 지휘관이였다. 그의 엄격성을 특징지을수 있는 하나의 사실만은 지금도 잊을수 없다. 어느날 중대의 한 꼬마대원이 살구를 한배낭 지고 나타났다. 노랑게 익은 살구를 본 대원들이 저저마

다 한마디씩 꼬마를 추어올리며 모여앉아 살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을 때 중대장이 다가왔다.

《이 살구가 어디서 났소?》

중대장의 얼굴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

《이건… 저…》

꼬마대원은 선뜻 입을 떼기 저어했다.

《금꿀샘물집살구를 따온게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그제서야 대원들은 입에 가져가던 살구를 슬그머니 배낭에 도로 넣고 죄송스러운 눈길을 들이금꿀쪽으로 돌렸다.

《누가 그 살구에 손을 대라고 했소.》

중대장이 엄하게 꾸짖었다.

《…》

꼬마대원 발끝만 내려다보고있었다.

호안의 막바지기슥인 금꿀샘물집뜨락에 한그루의 살구나무가 있다.

원래 이 고장은 살구나무가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샘물집주인이 몇해째 고생하면서 어린 나무모를 가져다가 풍토순환시켜 마침내 먹을 보기 시작한 살구나무였다.

얼마전에 마감박이공사가 끝나가면서 호안의 마을은 다 철수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샘물집살구나무만이 집터에 홀로 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있는것이였다.

《주인이 이사갔다고 살구에 손을 내다니… 정말 한심하오. 한심해!》

《아니 그럼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살구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누군 샘물집살구가 익어가는데 몰라서 여태 참고있는줄 아오? 주인은 갔어도 그 살구나무는 우리 건설자들에게 맡긴 인민의 재산, 나라의 재부라는걸 동무는 왜 생각을 못하고.》

인민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댄 동무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오!》

중대장은 꼬마대원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낮익은 중대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무심결에 호수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 살구나무가 서있던 금꿀의 샘물집터는 어느바루일까?

그러나 잘 가늠이 가지 않았다. 이미 그곳은 물밑에 잠기고 그우에 거대한 호수가 출렁이고있을뿐이다. 야산봉우리들조차도 물속에서 정수리만 내밀고 섬처럼 떠있었다.

지금은 모든것이 물밑에 있다.

중대의 병실자리도 밤을 모르며 타오르던 우등불자리도 강바닥과 거기에 무수히 새겨진 건설자들의 발자욱도 그리고 금꿀의 샘물집도…

《꼬마대원은 잘있습니까?》

나는 생각난듯 중대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없다니요?》…

중대장은 대답대신 금꿀쪽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섬찍해진 나는 더 물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윽하여 중대장의 조용한 음성이 귀전에 울려왔다. …

…수문을 막은 그해 여름에 예상치 않은 장마가 들이닥쳤다.

호안의 물은 급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공사지휘부에서는 불의의 정황에 대처하여 모든 부대들에 긴급철수명령을 내렸다. 호안에 전개하였던 기계설비들과 료전기재들을 언제밖으로 옮기는 전투는 긴장하게 벌어졌다.

새벽녘이 되어서 중대장은 철수에 앞서 인원점검을 하였다.

그런데 꼬마대원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온 중대가 떨쳐나서서 해불을 켜들고 꼬마대원을 부르며 호안바닥을 찾아 헤매었다.

날이 흰히 밝아서야 강상류에서부터 자그마한 떼우에 흙채로 뿌리를 비닐박막에 공공 썬 한그루의 살구나무를 싣고 떠내려오는 꼬마대원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그 긴장한 속에서도 물속에 잠기게 될 샘물집살구나무를 잊지 않고 떠돌길 생각을 해낸 꼬마대원의 기특한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떼는 사나운 물살에 밀려우며 떠내려오고있었다.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가는 산굽이 벼랑에 부딪칠수가 있었다. 떼를 구원하자면 코걸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중대장은 즉시 기슭의 여러곳에 지켜서서 지나가는 떼에 바줄을 던져주기로 하였다. 코걸이는 첫번째도 두번째 곳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세번째만에야 중대장이 던진 바줄을 꼬마대원이 덥석 잡았다. 하지만 떼는 이미 늦었다.

요행스레 잡은 바줄을 떼에 비끄러멜 시간적여유가 모자랐던것이다.

떼는 바위벼랑을 향해 거침없이 육박해갔다. 그 위기일탈의 순간에 중대장은 꼬마대원을 향하여 바줄을 놓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광하는 평음과 함께 벼랑에 부딪친 떼가 산산이 흩어져버리고말았다.

중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바줄을 당기기 시작하였다. 바줄 한끝을 잡은 꼬마대원만이라도 구원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

그런데 바줄에 끌려나온것은 꼬마대원이 아니라 살구나무였다.

《인철이!~》

대원들은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사품치는 강물속에 뛰어들었다. 동지를 위해 한목숨 바치려는 그들의 불같은 마음은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

《대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 구원된 꼬마대원은 의식을 차리지 못한채 군인민병원으로 후송되어갔습니다.》

《심하게 다쳤습니까?》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글썄 퇴원하겠다고 하니...》

《별써 퇴원한다구요?》

《우리는 오늘 다른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와 작별하려고...》

나는 승엄한 마음으로 살구나무곁에 다가갔다.

돌격대원들의 숭고한 애국의 넋이 깃든 살구나무를 손으로 쓸어만져보느라니 문득 여기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과 가정보다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공사장으로 달려와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쳐 금전강을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만든 돌격대원

들을 그토록 대견히 여기시며 그들모두를 《진주보석》이라 불러주시던 그날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젖어든다.

아직은 모두가 아득히 솟은 언제를 올려다보면서 그높이만 가늠하고있을 때 물밑에 찍혀져있는 건설자들의 발자욱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값높은 칭호—《진주보석》!

보석같은 마음으로 홍봉땅에 락원을 안아온 건설자들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놓은 행복을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오늘 다른 건설장으로 떠나간다. 이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진주보석》들을 만나보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고난의 천리를 걸어 행복의 만리를 앞당겨오는 선군시대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빛나고있는가를 력사의 증견자 살구나무가 다 말해주리라.

그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언제였에 높이 서있는 한그루의 살구나무, 살구나무...

마음속 찬사

허 일

잘한다!

한마디 말로만 칭찬하기엔

주는 감동 너무나 크다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멋있다!

단마디로 평가하기엔

받는 인상 너무나 깊다

선군시대 예쁜이들의 공연은

꾸밈도 가식도 없는 공연

눈물도 웃음도 있는 공연에

내 감동의 박수를 보내며

그대들 모습 새기나니

어디 보자

민요가락 멋지게 넘기는 그대

부모 잃은 한 병사의 동생을 데려다

자식으로 삼았다는 그 군관 안해는 아닌지

구성진 저대명수 그대

한해에도 수십마리

집집승을 길러

초소에 보낸다는 그 군관 안해는 아닌지

생각 깊어지노라

군관의 안해되어

별방 떠나 도시 떠나 심심산골 초소에

첫 살림도 웃으며 편 그대들이여

남편이 총대라면 총꾼되어 함께 가며

고향 다르고 취미 다른 병사들의

친어머니 되고

친누이가 되는 그대들이여

화선에 나설 때면 백발백중 명사수

담가 들고 나선다면 펄펄 나는 담가대원

무대우에 있어도

무대밖에 있어도

언제나 한모습인 군인가족들

볼수록 돋보이누나 미덥구나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되어

장군님뜻 받드는

선군문화의 창조자들이여

미더운 녀성혁명가들이여

전투적기백이 내려치는 공연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그네들 공연에

전률하리라 원수들은

그네들의 《기약총탄》앞에

그네들의 《화술포탄》앞에

그네들의 《노래미싸일》앞에...

아, 위대한 선군시대가 낳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최고사령부작식대원들의 노래여

더 높이 울리라

더 힘차게 울려가라

우리 당이 제일 아끼고

우리 조국이 제일 사랑하는

최고사령부작식대원들아

자랑찬 선군시대의 예쁜이들아

우리는 약속했다



변창률

어제 밤에 수리해놓았던 프락포르조명등을 찾아온 준호가 대문가로 향할 때였다. 무성한 넝쿨사이로 크고작은 애호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덕대밭에서 제사니와 오리무리에 아침먹이를 주고 있던 어머니가 그를 불러세웠다.

《준호야, 그냥 가면 어쩐다는거냐? 그 집에 오늘 당장 선보러 온다는데...》

《어머니두, 선을 보든 약혼을 하든 저하구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제 좋을대로 하라지요.》

시큰둥한 아들의 대꾸에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래 영숙이가 어떻다는거냐? 제대군인에 온 농장이 떠받드는 분조장이겠다. 무명실토리처럼 투실투실한게 일년열두달 가도 고뿔 한번 모르는 건강한 체질이겠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

《총각나이 서른이 되도록 여태 맘에 두고있던 처녀를 다른데로 보내겠다는데 그렇게두 속이 편하냐? 여러말할것없이 이길로 찾아가서 영숙이는 네 사람이다 하구 딱소릴 쳐라. 네가 정 못 가졌다면 내라두 가겠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떠날듯 손을 털며 호박덕대밭에서 나왔다.

《어머니, 뭘 자꾸 바빠 이러시나요? 가만 계셔두 될일이면 다 제대로 되겠는데...》

준호는 더 서있었잖아 어머니의 타는 속에 끼질하는격이 될것 같아 서둘러 마당을 나섰다.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느냐? 일생문제가 왔다갔다하는 대목인데... 군대복무까지 했다는 애가 맺고끊지 못하고 저렇게 프프미지근한지...》

어머니의 꾸짖음을 등위로 들으며 준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갈아빈진 거대한 들관같은 문양을 펼친 동컨하늘이 붉은빛으로 변해가고있었다.

오늘 관리위원회에서는 작업반들에 배속된 프락포르들을 한데 모아 소석회수송을 조직했다. 하루동안에 열탕이나 뛰여야 하는 혈치 않은 작업이었다.

제다가 준호에게는 오늘중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준호의 프락포르가 담당한 두개 분조중의 하나인 1 분조 강냉이밭에 주어야 할 분토를 읍에 가서 실어와야 했다. 1분조장인 영숙이가 일색이 변하기 시작한 강냉이밭에 당장 대응비료를 주어야 한다면래 집중수송을 끝내고 심기로 약속했다.

어제 저녁 밥상을 물리고나서 분토를 실어와야 할 일을 궁리하는데 어머니가 영숙이한테 선보러 온다는 소릴 꺼냈다. 여태 함께 일하는 동안 무슨 약속이 없었는가고 따지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준호는 머리만 저었다.

《해질녘에 농산반 김매기를 도와주러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집에 들렀었다. 한데 그 집에서 하는 말이 닭공장에 있는 영숙이 외삼촌한테 언제적부터 말이 있던 제대군인총각을 데리고 선보러 오라고 했다질 않겠니...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 혼사말을 비쳐보려던 참이었는데 그 말을 듣구보니 속이 불끈거려 우리 애도 봐둔 처녀가 있수다 하구 맛장굴 찼다. 그랬더니 제편에서 우리더러 랑손에 떡을 쥐고 기울거렸다며 저네가 판생각 하길 백번 잘했다고 우들렁거리더구나...》

내 결김에 그러진 했지만 이게 다 네탓이 아니고 뭐냐? 너하구 영숙이는 찍어놓은 한쌍이라구 다들 철석같이 믿고있었는데...

일생을 언약했다가 판맘을 먹는것만이 배신이 아니다. 사람마다 짝지지 않는다고 보는 처녀가 속을 주는데도 리기적인 타산만 하면서 외면하는 건 의리도 도덕도 모르는짓이다. 그런 사람이 제구실을 하는걸 난 이때껏 못 보았다. 인물이나 재물에 치우친 혼사는 살얼음장처럼 부서지기 쉬운 법이다. 이 예민 네가 한생을 후회하게 될가 봐 그런다.》

준호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밤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무엇인가 오랜 나날 가슴속에 은연중 자리잡았던 믿음이 줄지에 허물어져버린듯 속이 허전해났다. 하긴 일생문제를 두고 영숙이와 따로 만나 논의해본적도 없었고 고백같은건 더구나 없었다. 하지만 마주보는 눈빛과 표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자기들의

존재를 분명히 의식했었다. 요즈음에 와서 그런 느낌이 더욱 강렬해질수록 준호는 자기의 마음속을 헤쳐보이리라 몇번이나 결심했다가도 어찌된셈인지 때이른 고백인것 같아 하루하루 미루어오던 참이었다.

영숙이와 정작 마주서면 매번 그런 느낌이 드는것은 왜서인지 알수 없었다.

영숙이가 그러한 내 심정을 과연 모르고있었던 말인가?... 그리고 우리들 사이가 이렇게 번져진 것이 정녕 내탓이란 말인가?

작업반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준호의 눈앞에는 제대되어 오늘까지 흘러온 나날들이 두서없이 되새겨졌다.

그날 준호는 공구주머니를 들고 작업반으로 나갔다.

숨을 죽이고 서있는 트랙포르열에서 50대의 장영선반장이 반기며 맞아주었다.

《왔구만. 농장 자동차운전사로 배치하는걸 마다하고 우리 반으로 다시 왔는지? 하여튼 기다렸네.》...

그는 입대전 중학교를 졸업한 준호가 트랙포르 운전수양성소를 나오고 작업반에 배치되었을 때처럼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이 트랙포르는 준호가 군대에 입대하기전 3년동안 맡았던 차였다.

첫 작업지령을 기다리며 발동걸 차비를 할 때였다. 장영선반장이 문을 활짝 열어젖힌 창고에서 자기 턱밑에 닿는 커다란 고무바퀴를 굴러가지고 나왔다.

《가만, 발동은 좀 있다 걸구 이것부터 갈아맞추게.》... 그는 다른쪽의 큰 바퀴도 굴려내왔다. 뒤이어 작은 앞바퀴들을 랑팔에 끼고 날라왔다.

준호는 의아해했다,

《반장동지, 지금 차고있는 바퀴들도 한동안은 뒤흔었는데 왜 갈아맞추라는겁니까?》

《허, 이것뿐인줄 아나? 런걸차바퀴까지 여덟쪽 일식을 새것으로 갈아맞추어야 하네.》

그는 런걸차바퀴까지 날라다놓고 허리를 폈다.

《이건 1분조에서 작년에 군적으로 알곡생산에서 1등을 하고 상으로 받은거네. 그러니 1분조를 맡은 36호가 차는거야 당연하지 않나.》

바퀴축을 떠올리는데 쓸 고임목을 가져다 놓으며 그는 말을 이었다.

《1분조장의 목표가 뭔지 아나? 알곡소출을 해마다 정당 한톤씩 높여서 종당에는 군적인 1등자리를 도맡겠다는거야 ... 이젠 알겠나? 왜 이 바퀴를 갈아맞추는지. 자네의 책임이 무겁네.》

바퀴를 한창 때고 맞추는데 1분조장 영숙이가 작업반마당으로 들어섰다. 금방 뿔아낸 가을무우처럼 싱싱하고 공을 다루는 룡구선수처럼 활기롭게 보이는 처녀였다. 연록색작업복차림에 빨간 수건을 쓴 그의 손목에는 세면도구주머니만 한 까만색손가방이 치레거리처럼 매달려있었다.

《준호오빠, 함께 일하게 됐어요.》

군대에 나가기 전처럼 허물없이 오빠라고 반기던 그는 준호와 눈길이 마주치자 등실한 얼굴의

부드러운 살결이 금시 장미빛으로 물들었다.

《합바위산에 베여놓은 풀때문에 왔겠지? 조금만 기다리라구. 오늘부터 베여놓은 풀이 산에서 묵는 일이없을거야.》

영숙은 무늬가 또렷한 새 바퀴를 갈아맞추는 준호의 손놀림을 신기한듯 지켜보았다,

《이젠 거름이구 곡식이구 욕심껏 마련해놓으라구. 운반은 걱정 말구... 어떨까? 자신있겠지?》

두사람을 번갈아보며 반장이 하는 소리였다. 나트를 조이는 지레대에 끄끙 힘을 주던 준호가 눈길을 들었다.

《트랙포르가 할 일은 걱정마십시오.》

《그렇다?! 이제 보니 정말 보배덩이가 굴러들었구만. 어떨까, 1분조장, 이쯤하면 마음에 들겠지? 둘이서 손맞잡구 한번 본때를 보이라구. 나도 힘껏 떠밀어주겠네. 자. 그럼 우리 약속했네.》

능청기가 뻔 반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준호는 슬며시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약속까지야 뭘... 응당 해야 할 일인데...》

《처녀앞에서 하는 대답치곤 좀 미지근하다?... 하긴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자각이 중요한것이지. 그제 진짜 약속이란 말이야. 그렇지? 1분조장?...》

《호호...》입을 가리며 소리내어 웃던 영숙은 자기쪽을 스치는 준호의 눈초리에 얼굴이 빨개서 돌아섰다. 인차 웃음을 거두지 못하던 그는 쫓기듯 운전칸쪽으로사라졌다.

잠시후 바퀴를 다 갈아맞춘 준호는 공구들을 모아가지고 운전칸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던 그는 조향륜에 걸쳐있는 한컬레의 장갑이 눈에 띄자 무춤해졌다. 눈부신 흰색갈, 윤기흐르는듯한 고르로운 뜬새, 가락끝에 드리워진 매듭실... 준호는 용수철 튀기듯 운전칸에 올라타, 첫 운전을 앞두고 남모르게 가져다 놓은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이 쿵쿵 뛰었다. 했으나 장갑을 집어든 순간 그의 얼굴에 언뜻 실망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어느한 사람을 위해 뜨개바늘로 정성스레 뜬것이 아니라 몇천몇만컬레인지 세일수조차도 없는 고속화된 면직기로 다량생산한 제품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장갑목에 열쭉뻗어붙인 상표가 조롱하듯 울려다보고있었다.

엇그제 어머니가 한통구리나 사다준것과 똑같은 장갑이었다. 영숙이가 어느 틈에 가져다 놓은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준호는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러는데 물이 가득 든 고무바게뜨를 들고 영숙이가 나타났다. 맨앞의 작은 바퀴에 성큼 올라선 그는 뿔각기덮개를 제겼다. 뿔각수를 보충해넣고 내려선 영숙은 얼마 줄어들지 않은 물바게뜨를 준호앞에 놓았다.

비누칠을 하며 손을 씻던 준호의 눈길이 저도 모르게 영숙이가 올라섰던 바퀴위로 향했다. 방금 갈아맞춘 티 한점 없는 새 바퀴에 젖은 흙이 묻은 신발자리가 났던것이다, 이제 발동만 걸면 좋고 험한데를 가림없이 굴러다녀야 할 바퀴였지만 그 신발자리가 방금전

의 실장갑과 나란히 놓이면서 공연히 마음이 썩어졌다. 어쩐지 세심하지 못한 처녀의 빈구석을 보는듯싶어 낮빛이 흐려졌다. 제대되어온 첫날부터 어머니가 그토록 취율리던 영숙이가 이런 처녀였는가. ...

손을 씻는 사이 어디론가 사라졌던 영숙은 오이와 도마도가 가득 든 큼직한 다래끼를 안고 다시 나타났다. 발동을 걸고 운전칸에 오르자 영숙이도 옆자리에 앉았다. 프락포르가 동체를 떨며 자국을 땀 때 영숙은 싱싱한 오이 한개를 꺼내어 툇 꺾었다. 말라버린 꽃이 붙은쪽을 준호에게 내밀었다. 《맛보세요》

나머지 반쪽을 들고 한입 툇 떼내던 영숙은 어느결에 준호의 눈길과 마주치자 얼른 입술을 오무렸다. 그러면서도 밥알만 한 꼭지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 수집음을 타면서도 저 할노릇은 다 하는 것 시집은 색시같은 모습이었다.

(뭐 그닥 어렵지 않다는건데...)

프락포르가 마을앞길을 달릴 때였다.

《좀 세우세요.》 급제동을 하는 프락포르가 채 덤춰서기도 전에 뛰어내린 영숙은 마을쪽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무성하게 자라오르는 줄당콩넌출에 가리워 지붕만 보이는 자기 집 마당으로 얼핏 사라졌던 그가 무엇이 가득 든 배낭을 들고 급히 되돌아왔다. 운전칸발디개에 한발을 올려놓기 바쁘게 재촉했다. 《빨리 떠나자요.》

땀방울이 내뿜은 그의 얼굴에서 열기가 풍겼다. 프락포르를 세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나 한듯 덤벼치며 다물아대는 바람에 준호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산에 있는 풀이 대체 몇차나 되오?》

《한 열차는 될거예요.》

《그걸 오늘 다 싣는거요? 이틀작업량인데.》

《준전에 약속하지 않았나요? 프락포르가 할 일은 걱정하지 말라구. 호호...》

영숙은 무엇이 그리 좋거운지 웃음을 터뜨렸다.

《약속했다구?...》 작업반장앞에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한마디 한것을 자기와의 그 어떤 약속처럼 여기려드는 영숙의 처사가 어딘가 어물지 못한것처럼 느껴졌다.

프락포르가 산판에 도착하자 마침 풀베러 온 분조원들이 점심때가 되어 썸터로 모여오고있었다.

다래끼와 배낭을 들고 썸터로 간 영숙은 한 너인에게 말했다.

《윤이녀아주머니, 배낭안에 식초랑 조미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풀을 싣는 사이 식사준비 해주세요. 그리고 운전수동무부터 빨리 식사를 시켜야겠어요.》

웃음을 머금고 새로 나타난 운전수한테서 눈길을 땀줄 모르던 윤이녀는 푸점종게 대꾸했다.

《알았습니다. 번개불에 콩담듯 빨리빨리 다그쳐서 총각운전수한테 푸집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다른 너인과 함께 련결차에 오른 영숙은 분조원들이 올려던지는 풀단을 받아 쌓기 시작했다. 준호도 분조원들과 함께 풀단을 올려던졌다. 한돌기,

또 한돌기... 집채처럼 널찍하게 자리잡은 련결차의 풀더미가 반나마 키를 돋구었을 때였다.

윤이녀가 준호를 밤나무그늘밑으로 끌었다.

《어느 총각이 걸려드나 보자 했더니 동무가 걸려들었구만요.》

《?...》

《저 바퀴는 작업반장이 우리 분조장 신랑감한테 주겠다구 아끼던거란 말이에요. 이틀테면 혼례감이랄지 오작교랄지... 동문 호박을 냉글채로 잡았어요. 첫날에 그꼴한 새 바퀴를 달았지, 게다가 일등가는 색시감이 차려졌지. ...》

준호는 오늘 아침 별스레 생색을 내며 능청을 떨던 장영선반장이 떠올라 허거뜰 웃음을 지었다.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돼지우리에 들어간바엔 통채로 다 먹여라 하구 내맡기구 말라요. 호호...》

윤이녀는 제깬에 흥이 나서 한참 웃다가 밥그릇을 덮은 보자기를 제겼다. 불그스름한 왕당콩이 드문드문 박힌 흰쌀밥에 산나물볶음과 물고기구이 토막이 담긴 찬그릇이 놓여있었다. 윤이녀는 채친 오이가 든 큰 그릇에 샘물을 부었다.

《많이 드세요 우리 분조장을 따라다니려면 밥두 뒤그릇씩 제껴야 해요.》

준호는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성의를 마다할수 없어 랭국그릇을 집어들었다. 얼굴에 미쳐오는 시원한감을 느끼며 그릇가늌을 입에 대던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한열으로 제겼다. 랭국에서 술냄새가 풍겼던것이다. 그러는 준호를 의아히 쳐다보던 윤이녀가 숟가락으로 랭국을 떠 맛보았다. 눈이 커다래진 그는 채친오이가 담긴 버치열의 식초병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입에 가져갔던 너인은 금시 이마살을 찌프리며 아부채기를 쳤다.

《에크마니, 술이로구나.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너인은 서둘러 다시 랭국을 풀었다.

《무슨 처녀가 저렇게 덤벙인지, 눈앞엔 온통 일단 보이니까 병을 헛갈렸구만. ...》

《...》

《하긴 그런건 흠이랄게 없어요. 새침해가지구 쌀알늪알하면서 오물썸물하는것보다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 어푸러지는 녀자가 열싸 낫지 뭘 그래요.》

윤이녀는 높아진 풀더미에서 땀루성이가 되어 풀단을 안고 돌아가는 영숙이한테 눈길을 주었다.

《거절 좀 보라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마음에 꼭 듭니다. 잘 생기구 일 잘하구.》

《호호... 그 말이 한여름 도랑물처럼 미지근하긴 해두 듣기 좋군요. 지내보라요. 오래지 않아 정말로 마음에 꼭 들게 될거예요. 벌써 다 보이는데요 뭐. ...》

풀단을 다 싣은 분조원들이 모여왔다.

준호는 밥그릇에 숟가락도 대보지 않은채 일어섰다.

발동을 걸고 떠날 차비를 하는데 윤이녀의 말을 듣고있던 분조원들속에서 폭소가 터졌다. 영숙은 얼굴이

아예 고추빚이 되어 운전칸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덤비다가 일을 치겠소. 한두차 못 싣으면 래일 마저 실는게 낫지 않겠소?》

영숙은 눈길을 내려칸채 입술을 감빚었다.

《그러면 풀의 질소함량이 떨어져요. 그날 벤 풀은 그날로 날라다 집집승우리에도 밟혀내고 퇴적장에 채워야 해요. 거름생산에서는 뭉니뭉니해도 질이 기본이예요.》

(그러니 마구 욕심을 부리는건 아니라는거군.)

그날 준호는 산판에 묶여있던 풀까지 다 싣느라 밤이 퍼그나 이숙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건니다싶이한데다 저녁까지 늦는통에 몹시 출출해난 준호는 어머니가 덧놓아주는 밥까지 말짱 그릇을 냈다. 허를 차며 아들이 밥먹는 모양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던지시 물었다.

《그래 함께 일해보니 어떻드냐?》

준호는 이짚에 뭐가 끼인듯 입술을 비죽거렸다.

《참, 훌륭한 머느리감을 끌라잡았더군요.》

어머니의 얼굴에 섭섭한 표정이 떠올랐다.

《영숙이는 그렇게 허술히 볼 처녀가 아니다. 혼사는 억지로 하는 노릇이 아니지만...》

《됐습니다, 어머니. 짝이 맞으면 어느때든 되겠지요.》

《부두막의 소금두 처야 짜다는데. 그렇게 멀찍이 서서 미지근한 눈길로 구경만 해서는 안된다.》

이미 정해진 일을 놓고 저울질하는 사람을 타하는듯한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속이 언짢아졌다.

미지근하다? 오늘 벌써 몇번째로 듣는 소리인가. 하루 지내보고 분명한 대답을 하라는거야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

준호가 자기 딸과 혼사를 맺었으면 하는 심정은 영숙의 어머니도 다를바 없었다.

가을갈이가 한창이던 지난해 어느날이었다.

가을걷이를 끝낸 앞내벌 1분조포전에서 논갈이를 하는데 다래끼를 걸친 영숙의 어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그의 뒤로는 두마리의 어미염소가 고삐에 매여 따라오고있었다. 딸한테 나오는가부다 하고 준호는 논갈이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저 웃논에서 영숙이가 소달구지로 거름을 날라다 뿌리고 있었다. 규격화된 콧집한 논판을 누비며 부지런히 오가는 트랙토르를 한식경이나 지켜보던 너인은 이쪽으로 주춤주춤 다가왔다. 준호는 트랙토르를 세우고 머리를 내밀었다.

《수고가 많구만. 좀 쉬었다 하라구...》

너인은 다래끼안에서 점심구력을 꺼내여 운전칸에 슬며시 올려놓았다.

《언제 바쁘게 왔다갔다하겠나. ... 저 애가 일에만 미쳐 잔사정이 없으니 랑해하라구.》 수더분하게 생긴 너인의 얼굴에 애뜻한 빛이 어리었다.

《저야 제 할 일을 하는데 1분조장동무가 무슨...》

《이 사람. 너무 그러지 말라구.》 너인은 한동안 갑자르며 바재이는 기색이더니 문득 눈길을 들었다.

《딸 가진 에미로서 럽치없는 소리인줄 아네만 속 시원히 말해보게. 우리 영숙이가 어떤까?》

짐작 못한것은 아니였지만 선뜻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장 콩밭에 서술을 치자는건 아니네. 저 애가 일에만 골몰해서 제 나이 가는줄도 모르고 덤뽕거리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러네. 자네같은 사람이 뒤를 받쳐주면 행여 일이 제 뜻대로 될것 같기도 한데...》

화해할수 없는 일로 아주 단념한 상태라고 해도 차마 도리질을 못할 딱한 대목이었다.

《제가 아니라도 영숙동무야...》 시원치 않은 준호의 대꾸에 너인은 실낱같은 한숨을 그었다.

《정말 그런 애라면 이러겠나? 다른 혼처는 번번이 도리질을 하면서두 자네만은 싫다는 소릴 안해서 하는 말일세.》

딸한테로 가는듯 하던 너인은 트랙토르주변을 멀찍이 에돌면서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너인의 손에서 풀러난 두마리의 염소가 자기들을 잊은듯 한 주인을 이따금 돌아보며 저 앞동쪽을 넘어갔다. 먹이를 찾아 무작정 멀리 가려고만 하는 저 염소처럼 내가 정말 좋은 처녀를 앞에 놓고 공연히 까박을 붙이는건 아닌가. ... 그 순간 준호의 가슴속에서는 영숙의 속마음을 따지기에 앞서 나름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아글타글하는 한 처녀를 리해하고 아껴주고싶은 마음이 불시에 치밀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마음에서 환기된 일종의 의무감으로 영숙이를 머느리삼자고 나선건 아닌지. ...

그때 준호는 영숙이라는 너무도 평범한 이름을 가진이 처녀가 일생의 반력을 택하는데서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되리라는것을 절감했다.

하지만 동정심이나 의무감으로 사랑을 주고받을수는 없지 않는가.

그때 받은 충격이 컸던탓인지 준호의 가슴속에서는 영숙이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다. 지내볼수록 영숙이와 같은 처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군 했다.

지난해말 농장결산분배모임때 영숙이네 분조원 모두는 주석단에 앉았다. 준호도 1분조가 그전해보다 정당 한돈을 더 내는데 크게 기여한것으로 평가되어 주석단에 함께 앉게 되었다. 준호는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자책감을 느꼈다. 아무리 높은 목표라 해도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달린것이 아니겠는가. 결산분배모임이 끝난 뒤 대단한 실적이라고 사람마다 칭찬할 때 영숙이가 하는 말에 준호는 내심 놀랐다. 자기의 속생각과 신통히도 똑같은 말을 했던것이다.

《군적으로가 아니라 도적으로 1등이라고 해도 우린 만족할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심고있는 알곡작물들은 시험포전에서는 우리가 낸 톤수보다 더 높은 톤수까지도 담보하는 품종들입니다. 시험포전에서처럼 모든 생육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확을 낼수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노력만 한다면, 땀을 아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늘의 선군시대가 이것

을 요구하고있어요.》
참으로 그는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주저를 몰랐고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랭상모판에서 벼모들이 한창 자라오르던 올해 봄이었다. 당면한 모내기를 앞두고 농기구정비를 위해 기계화반으로 갔던 준호는 어슬렁에야 트랙토르를 몰고 작업반으로 돌아왔다. 농기구들을 부리우고 련결차를 떼놓으려고 할 때였다. 작업반사무실문이 급히 열리더니 영숙이가 수첩을 손가방에 넣으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련결차를 떼지 마세요!》

《?...》

《이제 읍에 한탕만 뛰자요 벼모판에 덧비료로 줄 가루거름을 한차 마련해놓았는데 실어와야겠어요.》

준호는 손목시계를 얼핏 들여다보며 침묵했다. 그런사정이 있다면 미리 말이라도 할노릇이지. ...

날이 어두운건 둘째치고 연유가 문제다.

준호는 연유통의 자막대기를 마른겉레로 닦아내고 담그었다가 꺼냈다. 전조등빛에 나타난 눈금을 들여다보던 준호는 머리를 저었다. 기껏해야 읍까지 가거나 할 연유가 남아있었던것이다.

《연유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겠소.》

영숙은 자막대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읍에까지 갈수는 있겠지요?》

《가기만 하면 될하겠소? 돌아오는게 문제지.》

《어쨌든 떠나보자요.》

영숙은 가방을 손목에 걸치며 차비를 서둘렀다.

《이런 억지라구야. 맹물을 넣고 뿔수야 없지 않소?》

준호가 차고안에 들어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을 때였다. 문밖에서 별안간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높아졌다. 웬일인가싶어 밖을 내다보니 전조등을 환하게 켜 트랙토르가 마당을 돌아서고있었다. 언젠가 영숙이가 트랙토르운전수자격을 가졌 다던 말을 상기하며 그래, 어쩔셈이나 하는 눈길로 지켜보던 준호는 트랙토르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급기야 소리쳤다.

《차를 세우라!》 속도를 죽이는듯싶던 트랙토르가 재채기를 하듯 급작스런 발동소리를 울리며 왈카당하더니 어둠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당장 세우라! 세우지 못하겠어?》 어둠속을 달리며 소리쳤으나 허사였다. 트랙토르는 벌써 읍으로 향한 큰길로 접어들어 전조등을 휘저으며 최속으로 달리고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읍에까지 갔다올 방도를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준호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으나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뒤쪽에서 장영선반장이 다가왔다.

《오죽 속이 탔으면 저러겠나. 1분조장이 방금 전에 나더러 기름을 내라기에 한마디 하던 참이야. 특전은 바라지 말라구 말이네. 그래서 옥생각을 먹은 모양이야. ...날 따라오게.》

반장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쪽으로 갔다. 창고안에 들어선 그는 중전등을 켜놓고 구석쪽에 주련이 놓인 도람통중에서 하나를 두드려보았다.

《이안에 기름이 가득하네. 래일분으로 타다 놓은것이네만 어찌겠나. 바쁠 땐 쓰고 봐야지. 래일분은 관리위원회에 제기하여 변통하겠네. 원칙은 세우되 앞서려는 사람은 떠밀어주어야지. 언젠가 우리 약속하지 않았나. ...》

반장은 준호의 손에 열쇠를 쥐여주었다.

《아무래도 자네가 마중가야겠군. 반장이 기름을 주었다는 소리는 입밖에도 내지 말라구.》

《?...》

《그래야 1분조장이 더 좋아해. ...》

반장은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밥상을 물리고 또 나가는 아들한테서 사연을 들은 어머니가 준호를 나무랐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니? 덜통하다는건... 그게 다 널 믿구 그러는것인데 어서 마중갈 생각은 았구...》

어머니는 부산을 피우면서 저녁밥을 꾸려주었다.

《그 애를 옥박지르지 말아라. 제 속이 빈줄도 모르고 눈이 까매서 널 기다리겠는데...》

자전거를 끌어난 준호는 꿈무늬에 연유통을 싣고 앞쪽바구니에 밥보자기를 넣고 길을 떠났다.

별일 없다면 지금쯤 거름을 싣고 돌아섰을것이다. 연유통정기의 기름까지 말끔히 태워버린다 해도 읍 첫어구에 있는 오룡강다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리경계를 이룬 고개를 넘어 한참 달리니 별빛을 받아 번들거리며 유유히 흐르는 오룡강이 내려다보였다. 닭공장쪽으로 가지쳐간 갈림길목을 얼마쯤 지났을 때였다. 길 양면에 우중충하게 자란 소나무들의 그림자로 하여 어둑해보이는 곳에 서있는 트랙토르의 동체가 어렴풋이 안겨왔다.

가까이 가보니 자기의 트랙토르였다. 준호는 저으기아연해졌다. 트랙토르가 너무도 조용했던 것이다. 인적없는 길바닥에 차를 버리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혹시기름을 구하려고?...

준호는 배기관에 손등을 대보았다. 싸늘했다. 기관부위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러니 발동이 꺼진지는 반시간가량 되었을것이다.

련결차로 다가간 준호는 눈이 커졌다. 적제함에 넘쳐나게 거름을 싣고 그우에다 마대에 넣은 거름을 몇돌기 더 골박아실었다. 바퀴를 전지로 비쳐보니 땅에 닿은 부분이 금시 터쳐나갈듯 팽팽하게 눌려있었다. (하여튼...)

운전칸으로 다가간 준호는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무춤해졌다. (?!...)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을 비쳐보았다. 변속기열에 가지런히 놓인 편리화, 굵은 장난에 지쳐 잠든 어린애마냥 숨을 들이그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가느다란 코고는 소리... 영숙은 운전좌석의 한 권벽에 머리를 기댄채 다리를 구부리고 누워 굳잠에 들어있었다. 마주서기만 하면 호되게 닦아세우려던 준호였으나 입이 열여붙고말았다.

한몸의 피로나 힘겨울때문만이 아닌 더없는 만족으로 인한 평온을 안고 깊이 잠든 처녀의 모습에 준호는 불시에 눈곱이 저려들었다.

저 거름이 그렇게도 만족스러운것이었고 이 운전수가 그렇게도 미더워는가...

준호는 구석에 나떨어진 손목끈이 달린 가방을 보자 무심중 집어들고 소리없이 문을 닫았다. 타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깨우고 싶지 않았다.

손가방에서 풍겨오는 연한 향수냄새에서 준호는 비로소 그것이 처녀의 소지품임을 깨닫고 스스로 얼굴을 붉혔다. 하면서도 별다른 것이 아닐 것이라는 위안과 호기심으로 손가방을 열어보았다. 로력수첩, 영농일지, 원주필... 배가 불룩한 다음칸에는 복숭아크기만 한 암록색의 실토리 두개가 가느다란 뜨개바늘뭉음해 나란히 꿰여있었다. 그 옆에는 접힌 자리가 닳고 보풀이 인 흰종이가 끼워져있었다. 수수쌀크기의 네모칸이 빈틈없이 그려진 종이에는 손바닥형태로 그린 장갑모형이 새겨져있었다. 손등에는 프락포르 큰 바퀴 무늬의 장식그림이있었다.

준호는 장갑모형에 손을 대보았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 신통히도 꼭 맞는 그림이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이 있긴 있었는가... 종이를 접는데 운전칸에서 인척기가 났다. 이어 문이 열렸다.

《은지 오래 됐어요? 기름은 가져왔는지요?》

마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라도 했던것처럼 미안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수 없는 어조였다.

바닥에 내려선 영숙은 자전거쪽으로 갔다. 앞뒤를 비쳐보던 그가 밥보자기를 집어들었다.

《식사를 못한 모양이군요.》

기름통을 들고 뒤로 돌아가는데 그가 따라왔다.

《정말 저녁식사를 못했어요?》

어딘가 따지는듯 한 어조였다.

《먹었소. 그건 동무거요.》

그의 손에 들린 밥보자기가 맥없이 처졌다.

《왜 그러요? 어서 식사를 하라는데...》

영숙은 운전칸문을 열더니 손에 든것보다 커보이는 보자기를 내리웠다. 자전거가 있는 길녘으로 간 그는 보자기를 펼쳤다. 뚜껑을 꼭 눌러달은 두개의 밥곽, 여러가지 찬들이 권권이 놓인 찬그릇과 물병, 두사람분의 수저...

《제가 준호동물 노엽혔다면 용서하세요.》

이제껏 볼수 없었던 지친 모습과 김빠진 소리에 준호는 눈빛이 굳어졌다. 나를 위해 준비했던 저녁밥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것이 영숙이를 이로록 락심하게 했는가. 자기의 처신이 그의 기대에 어긋났다는것을 깨닫자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실은 거름을 실어주던 인민반아주머니들이 저녁밥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있었어요. 혼자 나타난 저를 보고 사연을 물더니 운전수동무가 식사도 못하고 뛰오오겠는데 가다가 함께 들라면서 싸준거예요. 그들의 성의라도 전하고싶었는데...》

영숙이와 함께 거름을 실러 다니면서 뜻밖이나 익힌 그들의 다심한 념려에 가슴이 젖어들었다.

《먹었으면 뭐라오. 까짓거 곱배기를 해보지요.》

영숙은 한결 밝아진 표정을 지었다. 별빛이 내리는 밤, 거름을 만제한 프락포르 앞 길녘에서 때늦은 저녁밥을 펼쳐놓은 그들을 보며 오가는 차들은 될수록이면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지나갔다.

수저를 놀리는 영숙을 지켜보며 준호는 《욕》을 해야 할지 《칭찬》을 해야 할지 딱히 가늠이 가지 않았다. 그 시각 준호는 자기와 마주앉은 이 처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딘가 《품아》보이는 처녀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준호는 새삼스레 영숙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땅의 지력을 높여 알곡소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목표라고 하겠는가. 자기가 제대되어 프락포르운전대를 다시 잡은것도 결국은 그때문이 아닌가. 서로가 지닌 리상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실현되길 바래서 우리 사이를 두고 못사람들이 그리도 원심을 쓰는것이리라. ... 그 저녁, 그 길가에서 준호는 영숙이와 함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높은 목표를 점령하고 야말리라는 말없는 약속을 다시한번 마음속에 다졌었다. ...

그 영숙이한테 선을 보려 온단 말이지?... 아니, 영숙이가 그렇게는 못 떠날것이다. 꿈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이 준호를 버리고는... 믿음과 의심은 마음속에서 끝없는 다툼질을 했다. ...

얼마후 준호는 작업반마당으로 들어섰다.

차고를 열고 발동을 건 그는 프락포르를 뽑아냈다. 련결차를 향해 후진으로 다가가는데 장영선반장이 나타났다. 삼각틀로 된 련결고리를 들어올린 그는 고리구멍을 가리키며 신호를 했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바로잡느라 했지만 고리를 한뼘이나 빗나가게 가져다댔다. 프락포르를 앞으로 뽑았다가 다시 가져다대는데 이번에는 제때에 제동을 밟지 못해 련결고리들이 부딪치면서 련결차가 저쯤 물러났다. 장영선은 련결틀을 붙들고 찢절매다가 신경질적으로 땅바닥에 팽 놓았다.

《왜 이래? 오늘 아침엔 갑자기 눈이멀었나?》

눈감고도 단번에 맞추던 련결고리였는데 스스로도 오늘은 이상했다. 세번째만에야 련결뼘을 쫓은 반장이 손을 털며 물러섰다.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 헛눈팔지 말구.》

《...》

《내 긴 말은 많겠네, 누가 뭐라든 제대군인답게 처신하길 바라네.》

어느때없이 정색한 반장의 말에 준호는 짐짓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프락포르가 기계화반으로 질러가는 개울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물녘에 앉아 빨래를 주무르고 있던 윤이녀가 프락포르를 향해 손을 저었다.

《세우라요! 세우라니까...》

아침부터 웬 빨래인가 싶어 내다보던 준호는 급히 제동을 밟았다. 급히 다가온 윤이녀는 운전칸의 손잡이부터 잡았다.

《소석회 실려 간다지요? 세탕씩이나 뛰고도 분토실을 짊어 갔어요?》

준호는 저도 모르게 엇드레질이 나왔다.

《아주머닌 오늘 대리분조장이라도 한자리 벌었는가요? 분조장이 그걸 알아오라고 보내던가 말입니다. 가서 똑바로 전달하라고. 이 운전수는 제 할바를 똑똑히 알고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줄 알았더니까. 내 그럴것 같아서 분조원들한테 밤에라도 거름을 실어오면 제격 처나라고 말해줬어요. 한테 날보구는 왜 두눈을 똑 부릅뜨나요? 호호...》

윤이녀는 턱방아를 찢으며 웃어댔다.

기계화반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트랙트르들이 언덕길을 빠져나오고있었다. 연유창고에서 연유를 넣은 준호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앞서 달리는 차를 바라보며 조향륜을 움직이는 준호는 오늘저녁 거름을 실어야 할 일에 은근히 마음이 썩어졌다. 팔마파나 세탕이나 뛰고나면 한밤중이겠는데... 실어주는 사람들이나 여기 분조원들한테도 부담스럽고 미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좋기는 빨리 읍에가당아야 하는데...

넓고 평탄한 길을 한참 달리자 무창고개가 나타났다. 지금껏 기세 좋게 달리던 트랙트르들이 가쁜 소리를 내다가 종시 속도를 죽였다.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예비가이 고개길에 있다고 생각한 준호는 다른 차처럼 단번에 6단에서 4단으로가 아니라 한단만 떨구어 5단으로 내몰았다. 트랙트르는 별로 힘은 기색이 없이 앞선차들을 하나둘 떨구며 고개길을 올라갔다. 평시의 차정비나 수리때마다 기관상태에 눈을 밝히며 품을 들인덕이었다. 기관이 힘을 쓸수록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연유를 절약할수 있는것이다.

맨먼저 도착한 준호는 소석회 무지밀에다 련결차를 바꾸 갖다댔다. 열려진 조구통으로 쏟아져내리는 소석회를 바라보던 그는 공급원녀인에게 말했다. 《광광 다져서 실어주십시오. 이 차에는.》

조구통옆 발판에 서있던 녀인은 눈이 커졌다.

《일없겠어요?》

준호는 련결차에 올라 소석회를 끌고루 퍼면서 발로 부지런히 다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탕이 아니라 두탕에 다 실을수 있었다. 바퀴는 끄덕없다. 기관은 운전조작만 잘하면 그 이상이라든 견디여낼것이다. 땀을 흘리며 삽질하는 준호에게 녀인이 말했다.

《삼촌은 오늘 처녀 선보러 가려는게 아니예요?》

낮도 코도 모르는 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선보는 소리에 준호의 얼굴이 어지간히 빨아졌다.

《신통하군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다 알리는데요 뭐. 보니까 처녀가 어디 멀리 있는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구요. 먼산이 더 시퍼래보여두 정작 가보면 쑥대밭일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에서 고르랴요. 그게 실수없어요. 잘생긴 인물이랑 두루 보니까 따르는 처녀가 곁에 있

겠는데...》

《눈앞이 어질어질하게 비행길 태워주니 고맙군요. 아주머니 말대로 해보도록 하지요.》

다음차가 도착하자 준호는 서둘러 출발했다.

점심전으로 한탕을 무사히 끝낸 준호가 두번째 탕을 실기 위해 돌아섰을 때였다. 관리위원회앞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윤이녀가 손을 저으며 언덕길을 뛰어왔다. 준호는 그냥 차를 내몰았다. 보나마나 또 그러루한 소리겠는데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하고싶지 않아서였다. 두번째로 나타난 준호를 보자 공급원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늘 일을 널 잡도리군요. 정말 선보러 가는 거 아니예요?》

《난 아직 처녀를 골라잡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기웃하던 녀인은 적재함에 소석회가 다 차자그우에 훌쩍 뛰어내렸다.

《그게 정말이예요? 그럼 내가 한번 나서볼까요. ... 실은 내 동생인데 결함은 눈이 좀 높은거예요. 삼촌같은 총각이라면 한번 대볼만 한데...》

그 순간 준호의 눈앞에는 영숙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숙이도 선보러 온다고 했을 때 이 준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을까?

준호는 대꾸할 생각도 잊고 바닥에 뛰어내렸다.

《빨리 내리랴요.》 하고 소리치며 운전칸으로 갔다

두탕에 소석회운반을 끝냈을 때 기계화반장이랑 운전수들이 제대군인이 다르다고 저마다 혀를 내둘렀지만 준호는 그런 칭찬에 귀기울일 사이가 없었다.

얼마후 트랙트르는 작업반마당에 들어섰다. 어제 영숙이와 여기서 만나 읍으로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것이다. 저녁무렵의 따가운 별이 비쳐드는 마당에서는 방목나갔던 염소와 오리, 계사니무리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어가느라고 부산을 피우고있었다.

작업반사무실은 비어있었다. 저녁먹이를 끓이고 있던 돼지관리공이 준호를 보자 말했다.

《점심참에 분조장이 왔댔어요. 일이 있어 자기는 어딜 먼저 가는데 운전수가 혹시 나타나면 그렇게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밤엔 트랙트르를 마당에 세워달라구 했어요.》

준호는 선자리에서 굳어졌다. 혹시 나타나면 알려주라... 혹시 나타나면? 일단 약속했으면 그만이지 왜 혹시란 말인가. 준호라는 인간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수도 있다는건가.

정당수확고를 높이겠다는 그의 목표가 이런 허술한 마음에 받들린것이였는가? 노력해보다가 불가피하면 내버리고마는... 한테 차를 밖에 세워두라는건? 볼장을 다본 다음에 혼자서라도 거름을 실어오겠다는건가. ... 준호는 이제껏 조여왔던 마음의 탕개가 늦춰짐을 느꼈다. 서늘하게 느껴지는 얼굴의 땀발을 문지르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아직은 속단하고싶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영숙을 믿고싶었다.

운전칸에 오른 준호는 떠나기 바쁘게 속도를 높였다. 읍으로 향한 큰길로 접어들자 그의 눈길은 멀리 들여다보이는 영숙이네 집을 얼핏 더듬었다.

열려진 울타리문, 지붕위로 피어오르는 때 이른 저녁연기, 터밭의 울바자를 뛰어넘어 장대에 감겨 올라간 줄당콩넌출을 향해 대가리를 쳐든 염소... 저 집안에 지금 영숙이가 있을까... 있다면... 준호는 한순간 떠오르는 환영을 지워버리려듯 머리를 흔들었다. 운전대를 틀어잡은 준호는 혹시나 해서 길주변을 자주 살폈으나 읍변두리에 도착하도록 영숙의 모습은 눈에 띄우지 않았다.

프락프르가 어느 한 다층살림집구역이 저앞에 보이는 낮익은 사택마을 뒤길로 들어서자 앞쪽에서 두 여인이 반기듯 손짓했다. 한 여인은 프락프르에서 멀찍이 떨어진 거름무지로 안내하고 다른 여인은 장화신은 발을 급히 옮기며 어느 한 살림집의 현관으로 달려갔다. 얼마 안되어 그쪽에서 여인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맨앞에서 달려나오던 인민반장여인이 운전칸을 살피다가 물었다.

《분조장이 왜 안 보이냐? 함께 온다구 했는데.》
(그러니 여기에도 오지 않았구나. ...)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분명치 않은 어조로 대꾸했다.

《이제 오겠지요.》

《함께 떠나지 않았게요?》

쌍둥이엄마로 불리우는 풍만하게 생긴 젊은 여인이 다우쳐물었다. 준호는 소석회운반을 하다가 곧장 이리로 오는 길이라고 열버무렸다. 나이든 인민반장은 길목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실느라면 오겠지. 제격 실어놓구보자구. 그사이 쌍둥이엄마는 차비를 마저하구...》

쌍둥이엄마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분조장이 정말 오겠지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여보였다.

여인들은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만난듯 와짜 떠들며 분토를 실기 시작했다. 삽질할 자리가 없어 밀려난 여인들은 소랭이나 버치같은 그릇에 담아 적재함에 올렸다. 우에 올라선 여인들이 그것을 받아 구석구석에 쏟으며 장화발로 꺾꾹 다졌다.

해가 넘어간 서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무렵 거름실기가 끝났다. 얼마나 다져놓았는지 오늘 소석회를 실었을 때보다 바퀴가 더 놀리운듯싶었다. 일본새들이 가두인민반원이 아니라 일욕심이 하늘에 닿은 분조장의 손에 치여난 영숙이데 분조원을 갈았다. 웃고 떠드는 모습이랑 한삽이라도 더 실으려는 승벽심이랑 둘 하나섞일세라 눈여겨 살피는 간진 일습씨들이 어찌든 신통히도 한모습인지... 이제 보니 영숙은 한개 분조 역량에 못지 않은 믿음직한 《예비대》를 가지고있는셈이었다. 영숙이가 이것을 믿고 남이 엄두도 못 내는 높은 수확량을 장담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인민반장이 다가왔다. 《땀을 들였다가 천천히 떠나라구. 영숙인 어딜 가서 여적 안오냐?》

그는 어두워오는 길목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어떻게든 붙들어안구 올노릇이지. 들어가자

구.》

준호는 말없이 인민반장을 따라갔다. 어느 한 현관으로 들어간 준호는 2층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손을 씻고 방안에 들어선 준호는 눈이 커졌다. 널찍한 방 한가운데 기다랗게 맞붙여놓은 상우에 음식들이 차려져있었던것이다. 거름을 실어주던 녀인들이 상돌레에 앉아있었다.

지금 한창인 여름남새찬과 산나물볶음, 닭알부침, 눈맛이 있게 꾸미를 놓은 메밀국수... 수수한 것이었지만 무슨 의미가 느껴지도록 격식있게 차린 상이었다. 인민반장이 어두워진 밖을 내다보는데 복도문이 열리더니 쌍둥이엄마가 들어섰다.

《이자 전화를 해보았는데 농장에선 읍에 간줄 알고있구만요. 읍쪽으로 가는걸 본 사람이 있대요.》

《자네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은건 아닌가?》

준호는 사실대로 터놓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꾸며낼수도 없어 그저 묵묵히 앉아있었다.

차츰 흐려지는 준호의 얼굴을 지켜보던 인민반장이 그를 아래목으로 끌어들었다.

《달리 생각할건 없네. 처녀총각사이에 정이 있고 없는거야 당사자들이 할노릇이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놓고 억지로 성사시키자는건 아니야. 그저 우리 마음을 보이고싶었을 따름이네. ...》

《...》

《우리가 영숙이를 알게 된전 얼마 오래지 않네. 이제 3년이 되었구만. 지내볼수록 무심히 대할수 없는 처녀였네. 읍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도 거름배낭을 지고가는것도 그 처녀였고 휴식날마다 읍에 들어와 종일 거름을 만드느라 땀을 흘리는것도 그였네. 군대복무를 하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거름 한덩이라도 더 날라다가 난알 한줌이라도 더 내보겠대구 아글타글하는 영숙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았네. 제 배나 불리고 이름이나 나길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법이야 나라의 쌀독을 생각하고 이 나라 사람들의 밥그릇을 생각하는 진심이 아니고서는 흉내도 못 낼 일이지. ...》

이런 처녀가 제 나이 가는것도 잊고 농사일밖에 모르는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자네처럼 끝끝한 제대군인 총각이 나타났단 말일세. 자진해서 프락프르운전수가 되었다는 자네가 영숙이와 손을 맞잡고 뛰는것을 볼 때마다 우린 제일처럼 기뻐네.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짝이라구 말이네. 그래서 언제부터 별려오다가 오늘 한자리에 마주앉아 우리모두의 심정을 터놓고싶었던거네.》

《!...》

한마을이나 한고향사람들도 아닌 타곳의 사람들 한데서 그토록 뜨거운 진정의 말을 듣고보니 정말로 영숙이를 강다짐으로라도 데리고오지 못한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사람마다 그렇듯 눈물겨운 진정을 안고 위해주고 싶어하는 처녀를 내가 왜 더 일찌기 더 뜨겁게 대해주지 못했단가. ...》

《자네가 더 지체해서는 안될것 같구만. 영숙이가 안타까이 기다릴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누만.》

인민반장의 말에 녀인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우지 못한채 몇가지 음식을 그릇에 담았다.

《가다가 영숙이를 만나면 같이 드세요.》

자기앞으로 밀어놓는 음식꾸레미를 보느라니 언제인가 거름을 실러 읍에 왔던 영숙이가 저녁밥을 가지고 오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처럼 이들의 성의가 헛된것으로 되지 말아야겠는데...

쌍둥이엄마가 경대빠람에서 네모진 종이꾸레미를 꺼내여 준호앞에 펼쳐놓았다.

《나도 맡겨진 분공을 수행해야지요. 호호... 이 건 <봄향기>화장품이에요. <약혼식>기념삼아 영숙이한테 주자던건데 삼촌이 전하세요.》

그것을 옆으로 옮겨놓으니 밑에 따로 싸 놓은 물건이 하나 더 있었다. 쌍둥이 엄마가 그것도 펼쳤다. 암록색의 실장갑 한켠레가 정히 포개어져 있었다. 손등에는 프락포르 큰바퀴무늬모양의 장식이 수놓아져있었다. 영숙의 손가방에서 보았던 실타리와 똑같은 색깔에 같은 형태의 장갑이었다.

하두 바쁜 나머지 부탁이라도 했던 모양인지...

《사실은 영숙이 손가방에서 본 색깔과 형태로 뜯는데... 해를 넘기며 들고만 다니는걸 보다못해 우리가 대신하기로 했던거예요.》

쌍둥이 엄마가 장갑을 손에 끼여주었다. 편안하고 포근한감, 시원하면서도 후더운감... 왜서인지 그 장갑에서 땀배인 열기가 항시 풍기는 영숙의 체취가 느껴지는듯싶었다. 이것이 정녕 영숙이가 나한테 주는것이 아니란 말인가. 준호는 불시에 코등이 저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코한코 뜨개실을 조이며 한 처녀의 행복한 앞날을 새겨보았을 그 진정을 헤아려보느라니 눈물이 솟구쳤다. 아, 영숙이!...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이라고 굳이 믿고있던 한 처녀의 마음을 대신해서 준호에게 와닿은 사심없는 그 진정,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처녀도 줄수 없는 오직 영숙이라는 처녀만이 준호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크고도 열렬한 사랑이었다. 늦게 온 행복처럼 아쉬운것이 없다더니 좀 더 일찌기 이것을 깨달았다면 아니, 하루전에만 깨달았어도... 준호, 너는 대체 무엇을 보고있었으며 무엇을 바라고있었느냐?

《삼촌은 오늘 병어리가 됐어요? 싫다든가 좋다든가 무슨 대답이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눈주변이 불그레해진듯싶던 쌍둥이 엄마가 문득 밝은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나야... 짝이 되나요.》

준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면! 언젠가 영숙이한테 삼촌소릴 비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야 짝이 되나요.> 이랬단말이에요. 그것두 약속하지 않았어요?》

《약속없이야 같은 말을 못하지요.》

《그런걸 여기서는 괜히 걸가마가 났었구만요. 그럼우린 오늘 저녁 <약혼식>을 한결로 치겠어요.》

녀인들속에서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얼마후 준호는 녀인들의 배려움을 받으며 프락포르에 올랐다. 살림집구역을 빠져나온 프락포르는 만속으로 어둡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통통통... 앞시장으로 보이는 배기관에서는 걸고채는듯 한 여무진 발동소리가 울리고 옆자리에서는 화장품이며 음식그릇이 장단을 맞추듯 달고락거렸다. 영숙이가 지금 함께 앉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환하게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혹은 그 얼굴을 내 어깨에 기대채 만시름을 잊고 잠들었을까도 모른다. ...

작업반구역에 이른 준호는 분토를 주어야 할 포전이 있는 발밑으로 몰아갔다. 발으로 난 길아래에 프락포르를 세운 준호는 어둡속을 둘러보았다. 유아등의 빨간 불빛들이 깜박이는 논벌에서 한여름의 개구리소리만 들려올뿐이었다.

거름을 부리워놓으려던 그는 그냥 발동을 껐다. 쇠막대기에 기름결레를 감아 불을 달고 련결차의 거름무지에 꽃았다. 빈마대와 삼을 찾아들고 분토를 담았다. 무거운 마대를 둘러멘 그는 경사진 둔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잡자리에 누웠대도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밤도와 혼자서라도 거름을 날라올리고싶었다. 그것으로나마 영숙이앞에 이때까지의 처신에 대한 사죄가 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한조각의 보답으로 될수만 있다면 발머리에서 쓰러진대도 한이 없을것 같았다.

한번 또 한번... 몇번째인지 거름을 쏘아놓고 내려오는데 프락포르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울거리는 불빛을 가리며 운전칸쪽으로 다가가니 이쪽을 향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가 이쪽으로 돌아섰다. 영숙이였다. 물결진 머리칼을 대수 둘러감은 하르르한 머리수건, 흰바탕에 가지색 줄무늬가 새겨진 반소매뿔, 불빛에 반짝거리는 굵높은 구두... 작업복바지만 치마로 바꾸어놓는다면 갈데없는 나들이옷차림이였다.

이런 옷차림으로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영숙이가 읍쪽으로 가는걸 봤다던 말이 얼핏 생각났다. 그러니 저쪽에서 선보려 온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선보려 갔겠는가?

입술을 감쳐문채 마주보는 영숙의 눈빛은 종잡기 어려운것이였다. 몹시 미안해하는것 같기도 했고 의혹이 짙은 차거운 눈빛같기도 했다. 그런 눈빛을 대하자 갑자기 속이 울컥해졌다.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고래치며 터져나오려는것을 애써 누르며 준호는 돌아섰다. 아까처럼 혼자서 빈 마대를 벌리고 분토를 퍼담았다. 무겁게 다져진 마대를 둘러메고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데 몸이 갑자기 뒤로 쏠렸다. 한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하며 마대를 떨구었다. 돌아보니 영숙이가 마대곁에 서있었다. 마주보는 영숙의 눈가에서 경련이 이는듯 하다가 어느 사이에 멍힌 눈물이 구슬알처럼 반짝하더니 경주라도 하듯 두볼을 타고 미끄러져내렸다. 마대쪽으로

허리를 굽히는 준호의 몸을 영숙이가 힘껏 떠밀쳤다. 준호는 재차 비칠거렸다.

《이젠, 이젠 마주서기도 싫은가요?》

《왜 그러오? 동무와의 약속을 지키고있는데...》

《약속이라구요? 난, 난 이런 약속은 안했던 말이에요!...》

영숙의 손에서 뿌리워진 크지 않은 물건이 준호에게로 날아왔다. 영숙은 두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얼굴을 싸쥐었다. 한순간 뻥해졌던 준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읊에서 받은 장갑이었다. 언제부터 자기가 떠주리라 마음먹었던 색깔도 문양도 크기도 똑같은 장갑이 영숙을 올린것이다. 그것을 깨닫자 준호한테도 봐둔 처녀가 있다고 했다면 어머니의 말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그제야 준호는 어제 저녁부터 이 시각까지 자신이 겪어온, 심장의 아픔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심리적이고통이 지금 처녀의 가슴속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영숙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영숙이 역시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환희에 온몸이 거뜨해나고 마음이 상쾌해졌다.

《아니, 우리 분조장을 뭇때문에 올려요?》

어둠속에서 느닷없이 울리는 목소리에 두사람은 동시에 흠칫했다. 질통을 진 윤이녀가 손전지를 들고 서있었다. 그는 준호의 손에 들린 장갑을 비쳤다. 《이것때문에? 호호...》

너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영숙의 등을 쳤다.

《이런걸 가지구 옮기까지야 뭘...》

《?...》

《내가 낮무렵에 프락포르를 세워달라는데 못본척하구 꿈무늬를 빼더니만. 변하는 <정세>를 제때에 알려주자던건데. 다 운전수동무탓이예요. 분조장은 오늘낮에야 선보려 온다는걸 알구 닭공장엘 뛰어갔었던말이에요. 약속한 총각이 있으니 오지 말라구 말이에요. 이젠 다 알겠지요?》

윤이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을 겹쳐거렸다.

버스럭거리던 윤이녀는 수건에 찢겨를 꺼냈다.

《이런 장갑은 나한테도 있다니까.》

암록색바탕에 프락포르바퀴문양이 새겨진 장갑을 보자 준호와 영숙은 놀란 표정이 되었다.

《분조장을 대신해서 떠두었던거야 어쩐지 오늘은 가지고나와야 할것 같아서 찾아들었는데 저쪽에 선손을 빼줬구만. 가두인민반원들이 준거겠지?》

둘은 다시한번 놀랐다. 서로 본적도 없는 너인들이 어찌면 신통히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신비할 정도였다. 그들의 심정을 넘본듯 윤이녀가 말했다.

《약속이란건 너와 내가 꼭 마주서서만 하는게 아니지요. 우리 분조장이나 운전수동무처럼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주고 내세워주고싶은 심정은 누구나가 다 같은 말이에요.

처녀총각 약속두 같지요. 저말은 일을 끝까지 더 잘하겠다는 한마음보다 더 큰 약속이 뭘겠어요.》

런결차에 올라간 윤이녀는 불뿔치를 뽑아들고 마을을 향해 큰 원을 그렸다. 그러자 마을의 어느 집마당가에서 이쪽을 향해 원을 그리는 불뿔

이 보였다.

《왜 그러고 섰어요? 빨리 거름을 부리워야지.》

준호는 발동을 걸고 자동하차기를 런결했다. 적재함의 한옆이 들리더니 거름이 통채로 쏟아져 내렸다. 젖은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던 영숙이가 윤이녀에게 다가갔다. 한쪽귀를 기울이고 영숙의 말을 듣고있던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보라구요, 운전수동무. 분조장이 닭공장엘 갔던 길에 이 분토에다 린비료대용으로 섞어줄 가금분을 한차 마련해놓았다는만요. 그걸 실러 이길로 닭공장엘 또 가겠다는거예요.》

그러니 분토실는 일이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닭공장에서 가금분까지 실어올 생각으로 오늘 밤에 프락포르를 밖에 세워달라고 했었구나. 그때 벌써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리라는것을 믿은것이 아닌가. 불덩어리같은 처녀, 변함을 모르는 처녀...

윤이녀는 분토마대를 질통에 올려놓고 둔덕밭으로 올라갔다. 영숙이가 젖은 눈을 들었다.

《저때문에 저녁식사도 못한것 같군요.》

그는 눈물이 넘어나는 눈가로 손을 가져갔다.

《들어가 쉬세요. 종일 피곤했었는데. 제가 얼른 프락포르를 끌고 갔다 오겠어요. 약속해서 그래요.》

《이 프락포르의 주인은 나요. 그리고 나도 약속했던말이요.》

《공장일군들한테 제가 약속했는데두요?》

《걱정마오. 아무렴 혼자 갔다구 그것도 못 실어오겠소. 우리 모두 하나의 약속속에 살고있지 않소.》

준호를 바라보는 영숙의 두눈이 뭔가 새로운것을 깨달은듯 어둠속에서 빛났다.

빈 질통을 진 윤이녀가 다가왔다.

《별걸 다 가지구 욕심각심하누만요.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함께 가면 되겠는데... 자, 어서요.》 윤이녀는 어린애를 차에 태우듯 운전칸문을 열어잡고 등을 떠밀었다. 준호의 뒤를 따라오르던 영숙이가 별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저것 보세요.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요?》

마을쪽에서 불빛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다가오고있었다. 온 마을이 떨쳐나선듯싶었다.

《제가 일을 만들어놓고 누구더러 묻는건가?》

윤이녀의 말에 영숙은 아직도 영문을 깨닫지 못한듯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준호에게는 그 모습이 오직 영숙이한테서만 느낄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매력으로 안겨왔다. 달콤한 속삭임 한마디 없이도 열렬하고 아름답고 굳건한 사랑을 고백해준 처녀!... 그 순간 준호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한생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그 하나의 고귀한 약속속에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사랑의 참된 약속도 깊이 뿌리두고있음을 절감했다.

윤이녀가 어서 문을 닫겠다는듯 영숙의 등을 떠밀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뭘 몰라서 그러나? 분조장이 바라는 높은 수확을 내자구 오는 사람들인데...》

농장별 소묘

김휘조

넓은 이 벌 어디쯤이나
우리 할아버지
토지개혁 그 봄날 분여지에 박힌 표말뚝
《리천석 논 2,500평》
그것을 끌어안고
흐느껴울었다는 곳

어디쯤이나
토지정리로 주름살들을 편 벌에
이제는 더더욱 알수 없어도
나는 알고있네 그 표말뚝엔
그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농장원 내 이름도
노래로 알찬 이삭 들가득 가꾸어가는
오늘의 내 이름도 함께 적혀있을줄

×

봄바람은 서서히 새벽안개를 걷어가고
동무들과 함께 등이 땀에 젖도록
거름을 질통으로 저내는 저 영철이
이랑을 적신 눈석임물에 신발이 다 젖었구나

사랑없인 한줌 흙도 못 다룰 땅이여서나
마음속에 살결같이 쓸어보며
힘껏힘껏 걸음을 채우치는 그
이마에선 땀방울이 쌀알처럼 떨어지네

×

빨간 머리수건 날리며 보도랑을 가서내며
바람속에 서서 껌싸게 삼을 놀리는
새 분조원 나어린 처녀
어이 어리다고만 할가
쌀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의젓이 하던 그 말을 온 들이 다 들었네

그렇더라
원썬들은 우리를 치겠다고 밭광치는데
쌀은 알알이 총알이 아니더냐
깊숙이 가서내는 보도랑도
전호인듯 휘휘 벌을 안고 뻗어가니
네 무엇이 다르랴
대덕산에서 총들고
이 땅을 지키는 병사, 네 오빠와

수필

나는 불을 켜다

최남순

달깍—하는 스위치소리와 함께 방안은 금시에
환해진다. 저녁퇴근후 어둠이 살며시 내려앉기
시작한 집안에 들어서서 불을 켜는 이 순간을 나
는 무척 사랑한다. 불빛아래 자기 색깔을 고스란
히 되찾은 소박하지만 아늑한 나의 집.

불을 켜는 이 순간에 마치 나의 손길을 거쳐
벽지에 새겨진 꽃무늬에도 밤색윤기가 흐르는 편
수책상이며 창문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생기와 숨
결이 부어지는것만 같아 마음은 하냥 즐겁기 그
지없다. 나는 창가에 다가섰다. 생활의 출석을
부르듯 거리에선 하나, 둘 불이 켜진다. 환하게
불이 켜진 자기 집창문을 흥그러운 마음으로 바
라보며 현관으로 들어서서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
도 들리는듯싶다.

불빛...

불빛...

나는 어렸을 때 집창문에 불이 꺼져있는것을
제일 싫어하였다. 불이 꺼져있다는것은 부모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또 저녁은 늦게야
먹게 된다는 말없는 신호였기때문이다. 의사였
던 나의 어머니는 늘 바빴다. 자그마한 동진료소
의, 더구나 소장도 아니고 보통의사에 불과한 나
의 어머니가 자주 퇴근이 늦어지는것을 그 나이
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어떤 때에는 열쇠를
손에 꼭 감아쥐고도 마치 열쇠없는 아이처럼 현
관앞에 오도카니 앉아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와서
야 집안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늦게야 저녁준비
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늘 버릇처럼 《우리 막내가
언제 커서 밥을 지을줄 알겠니?》라고 하시곤 하
였다.

그러나 그 《막냉이》는 밥지을줄 아는 나이가 되기 바쁘게 어머니보다 더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대학강의실이나 학습당열람실에서 늦게야 돌아오던 그 저녁...

나라가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여서 거리엔 자주 불이 꺼지곤 했다.

그러나 우리 집 창문에서는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의 습관을 잘 아는 어머니는 어두운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시면서도 내가 돌아오는 길쪽으로 난 옷방 창문앞에는 등잔불이나마 덧켜놓아 주곤 하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켜놓은 불빛을 바라보고 층계를 나는 듯이 올라 《어머니! 나 배고파요. 빨리 밥!》라고 소리치며 문을 활짝 열던 그 시절이 어제런듯 싶은데...

한 가정의 주부가 되고보니 직장에서 돌아오는 저녁, 집창문에 불이 켜져있는것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스럽다.

먼저 돌아와 불을 켜고 집식구들을 맞아주지 못한 미안스러움, 부엌에만 들어서면 괜히 덤비면서 어쩔줄 모르는 남편에 대한 걱정...

문을 열자바람에 《정말 미안해요 빨리 온다는 게 그만...》하는 사죄가 걸음보다 먼저 문턱을 넘어서었다.

하지만 그때뿐이지 자주 퇴근이 늦어지는것은 어쩔수없는 일로 되어버리곤 한다.

다음날 교수준비, 자체연구과제, 학생지도...

일에 정신을 쏟고나면 남들이 빨리도, 지나간다고 하는 출근시간만큼이나 퇴근시간 역시 순간에 지나가버린다.

저녁노을이 빛고운 잔광을 던져주는 거리에 중종걸음을 놓을 때면 초조한 속에서도 나는 저도 모르게 혼자 웃곤 한다.

(퇴근이 늦어지는것도 유전인가봐.)

나 또한 대학의 큰 간부도 아니고 더우기 강좌장도 아닌, 그저 교원생활의 첫걸음을 댄 보통교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세상에 소리칠만큼 크게 하는 일이 없는 평범한 공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강의안 한건이라도 정성들여 다 완성했다거나 또 어느 학생의 성적이 퍽들인것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올라섰거나 하는 자그마한 기쁨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것이다. 그때면 왕진가방을 메고 걸음은 지쳤어도 감출수 없는 궁지속에 환한 얼굴로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던 나의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나의 자그마한 이 기쁨을 남편도 역시 이해하여준다. 그에게도 늘 시간이 모자라지만 내가 늦어지는 저녁에는 선뜻 부엌에 들어서주는것이다.

그런 날, 그런 저녁이면 우리는 설거지 탄 밥도 웃으며 달게 먹을수 있다.

그 순간에 더 밝게 빛나는것만 같던 우리 집의 불빛...

내가 그 불빛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은것은 며칠전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내가 오래동안 고심하던 학위논문초고를 제출한 날인 동시에 멀리로 출장갔던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무슨 논문이 뭐 그리 오래오?》

《<쥐>가 아니라 <사자>를 넣으려고 그래요.》

론문이 늦어지는데 대해 어지간히 불만스러워하는 그에게 나는 늘 어느 예술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로 대답을 대신하곤 하였다.

그때마다 《<사자>를 넣기가 그렇게도 힘든가?》하고 자기 일처럼 한숨을 내쉬던 그가 오늘을 얼마나 기뻐해주랴싶어 역으로 마중가는 나의 걸음은 가벼웠다. ...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서있는 마지막케도전차를 뒤에 남기고 약속이나 했듯이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하나, 둘 불빛이 꺼지며 고요를 질게 해주는 평양의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이야기...

남편이 문득 나를 멈춰세웠다.

《저기 저 창문이 교수선생님네 집이 아니요?》

고즈넉한 달빛아래 조용히 눈을 감고 잠든것같은 고층살림집 중간부분쯤에서 유독 밝은 빛이 뿜어져나오는 그 집은 분명 오늘 나의 논문초고를 받아들며 《수고했소. 수고했소.》라고 기뻐하던 로교수의 집이 분명했다.

《참. 선생님은 잠도 없으신가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남편에게 나는 아침마다 항상 먼저 나와 강좌실 책상을 닦아놓곤 하는 선생님이 《늬으면 새벽잠이 없어진다고.》라고 하면서 미안해하는 우리 젊은 교원들의 마음을 무던하게 녹갯혀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로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마도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모르게 길어지는것인지...

다음날 아침이었다.

강좌실에 들어서니 여느때처럼 먼저 나와계시던 교수선생이 나를 찾아 논문을 되돌려주는것이였다.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다 보셨습니까?》

로교수는 대답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더 크게 놀란것은 논문을 한장한장 번져보는 다음순간이었다

글줄마다에 꼼꼼히 처진 밑줄들. 논문의 마지막장에까지 의견과 수정방향을 촛촛히 박아쓴 연필흔적들... 종이어백우에 연필로 쓴 로교수의 글자 하나하나가 다 그전날 밤 로교수의 집 창문에서 뿜어져나오던 불빛이 그대로 나의 가슴에 날아들었다. 그 불빛은 다름아닌 제자를 위해 비쳐준 밝은 불빛이었다. 저도 모르게 평—물기가 도는 눈길을 드니 로교수는 마치도 표박 밝힌 밤이 없었던들 강의안을 안고 첫 강의를 하러 강좌실 문을 레사롭게 나서는것이였다.

어제날의 스승이며 오늘도 스승인 백발의 교수, 정말이지 손에 든 논문이 무거웠다.

저기에는 아직도 탐구에서 속도력이 부족한 나에 대한 말없는 질책과 하루라도 더 빨리 훌륭한 자질을 갖춘 교원으로 되길 바라는 스승의 간절한 소원과 기

내가 다 담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스승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비쳐도 보았다. 스승처럼 나도 학생들을 위해 나의 모든것을 깡그리 태우며 밝은 불을 켜들고 살았던가.

조국과 인민은 바로 그런 교육자가 되라고 걸음걸음 오늘까지 나의 성장을 떠밀어주었던만...

아침해살이 쏟아져들어오기 시작한 강좌실 창문너머로 그 순간따라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이 다 떠올랐다. 어려울 때 쓰러질세라, 작은 성과에 만족할 땐 빛나갈세라 나를 두고 그토록 마음 써주신분들...

그속엔 있었다.

자그마한 결함을 놓고도 아프게 매를 들던 학부의 책임일군도, 신혼살림에 보태라고 무엇하나 생겨도 문을 두드리주던 이웃집녀인도.

그 모두가 나를 위한 따뜻한 불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이날 이때껏 고마운 사람들이 켜주는 불빛아래서만 살아왔었다.

그래도 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바친다고 생각했던 나의 작은 기쁨은 그들이 켜준 불빛아래서 반짝이는 참으로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불을 켜는 사람으로 살고싶어졌다.

(내 인생의 첫 등불을 켜주신 어머니, 리해와 아량의 불빛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그대로 내 생활에 엮어준 남편이며 자신을 깡그리 태우는 불로 내 마음에도 참다운 헌신의 불을 지펴준

일화

스승이며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불빛을 다 품어안아 지켜주고 더 빛내여주는 사랑하는 조국이며, 이젠 그대의 이름없는 이 딸도 불을 켜립니다. 한생 꺼지지 않을 그런 불을...)

...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입힐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산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빛이란 바로 정든 이 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참다운 헌신이며 그 헌신을 담보할 수 있는 높은 능력인 것이다.

사람들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빛을 안고 이땅의 곳곳에 서있다면 내 나라, 내 조국은 얼마나 밝아질것이며 강성대국의 려명의 세기는 또 얼마나 강해질것인가.

그날부터 나는 불을 켜는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한다.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밀어버리며 나의 주위의 그 모든것에 생명을 부여준것만 같은 이 순간을...

오늘도 나는 저녁동자질을 마치고 책상에 마주앉아 탁상등을 켜다. 이 불빛이 래일에 사랑하는 나의 학생들의 눈빛에 다시 지식의 불빛으로 되여오를것이다.

밤은 깊어간다.

우리의 불빛은 래일의 아침을 바라보며 꺼질줄 모른다.

리규보와 서사시 《동명왕편》

리규보(1169~1241)는 우리 민족사에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문론철학가이며 《동방의 시호》로 이름높은 뛰어난 시인, 작가였다.

리규보(자는 춘경, 호는 백운거사)는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하였는데 남달리 총명하여 사람들을 놀래웠고 특히 시를 잘 지어 《신동》으로 불리웠다.

그는 《해좌칠현》(리인로, 림춘, 오세재, 황보황, 조룡, 리담지, 함순)을 비롯한 진보적문인들의 영향하에 성장하면서 당대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분석고찰하는 사회비판적안목을 키워왔으며 그 과정에 선진적인 학자, 시인으로 알려졌다. 리규보가 남긴 우수한 시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의 하나는 서사시 《동명왕편》이다. 서사시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건국설화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근지를 고취한 작품이다.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친 고구려는 우리나라 중세력사에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크게 과시한 자랑스러운 시대였으며 이 시기에 마련된 민족자주와 애국의 전통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어

왔다. 하기에 진보적인 문인들은 고구려를 우리 민족사의 정통으로 삼고 그것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당시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사가들은 다른 나라의 력사문헌에 토대하여 고구려의 사적을 간소화하거나 외곡하였으며 자기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옹바로 정립하지 않았다. 리규보는 동명왕의 건국설화가 《피상하고 황당한것》이라고 보는 사대주의자들의 망발을 배격하고 《이것은 황당한것이 아니라 성스러운것이며 피상한것이 아니라 신비로운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서사시 《동명왕편》은 우리 나라가 《성인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민족사의 신성한 자취를 나타내는데 있음을 뚜렷이 표명하였다.

서사시 《동명왕편》은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자기의 전통과 문화를 귀중히 여기는 리규보와 우리 인민의 애국적지향과 녀의 반영이며 산물이다.

강명흡



김기범

갓 격전을 치른 중대전호에 기통수가 새처럼 날아들었다.

가렬한 싸움이 갈가리 물어 뜯은 참호의 여기저기서 진지보수를 하고있던 병사들이 어느새 기통수의 곁에 모여들어 흥성이기 시작했다.

총알이나 식량보다도 자기가 날라오는 편지들을 더 애타게 기다린다는것을 잘 아는 기통수인지라 어깨를 으쓱거리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파아바이. 마누라편지예요.》

말이 끝나기 바쁘게 꺼슬꺼슬한 큰 손이 수리개 병아리 덮치듯 편지를 덥석 나꾸어쥐었다.

《우리 꼬마 명성이.》

《예!》대답보다 먼저 봉대감은 작은 손이 덤벼쳤다.

《다음은 철민동무!》

순간 주위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싶어 서로 마주 보기도하고 또 기통수와 철민이를 번갈아보기도 하였다.

그러자 뒤줄에 서있던 철민이가 싱긋이 웃으며 편지를 받아쥐는 순간에 온 중대가 환성을 터치였다.

《끝내 자네에게도 편지가 왔구만!》

《어디 나 먼저 좀 보여주게.》

《누가 보겠나? 애인인가?》

자기들이 받은 편지들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모두가 철민의 주위를 에워싸고 그가 받은 편지 곁봉을 들여다보느라고 야단들이었다.

거의 반년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편지여서인지 철민이도 어지간히 흥분해있었다.

그의 온 가족은 미제놈들에게 학살되었다.

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냈다고 야수들은 악에 받쳐 엄마졌을 뻔하고있던 돌잡이 조카애마저 구덩이에 던져넣고 생매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그날 철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불이 흘렀다.

그때부터 전투마다에서 철민이는 총구에서보다 더 세찬 물줄기를 눈에서 뿜었고 육박전에서 그가 휘두르는 총창의 서리발빛은 온 싸움터를 얼구어놓곤 하였다.

그처럼 죽음을 모르는 용맹한 싸움군이였지만 전우들이 편지를 받는 날이면 슬그머니 홀로 전호에 나와 먼 하늘가를 바라보곤 하였다.

그의 피로운 심정을 위로해주려고 전우들이 무척 원심을 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진 그들은 도무지 가셔낼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철민에게도 누군가 기쁨과 희망을 하얀 봉투속에 담아 보내온것이였다.

중대가 받는 고향의 편지들이 날이 감에 따라 적어져 얼굴들에 그들이 비끼기 시작하는 때에 다름아닌 철민이가 편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중대지휘관들은 물론이고 모두를 자기 일처럼 기쁘게 하였다.

《어디 좀 보자구. 박옥화라. 성이 우리 마누라같이 박가이니 그 처녀 마음씨 참 곱겠군.》

《구슬 옥자에 꽃 화자이니 이름만 보고도 곱게 생긴 아지미라는게 알려져.》

《처녀인지 아주머니인지 이름만 보고 아나? 철민이, 모두가 다 듣게 크게 읽으라구!》

누군가의 제의에 모두가 옹다고 맞장구치며 어서 읽으라고 성화를 먹이였다.

얼굴이 뻔개진 철민이는 눈웃음지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곁봉을 조심조심 뜯었다.

《읽는건 내가 읽지. 내 목소리가 크다는거야 다들 잘 아니까.》

기통수가 다가와 속지를 펼쳐들고 목소리를 다듬었다.

《보고싶은 탁철민동무에게》

이렇게 시작한 처녀는 전선신문에서 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 편지를 쓴다고 잇달아 썼다.

전쟁전 군민청열성자강습대에 동무의 경험토론을 감동깊이 듣고 아주 인상깊었으며 지금은 동무의 그 경험을 살려 민청원들을 전선원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분발시켰다고 또박또박 재봉침 박아나가듯이 일매지게 씌여진 편지내용은 처음부터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편지를 읽어갈수록 기통수의 목소리는 민요를 부르듯이 흥에 겨워 가락맞춰 울리였고 철민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앞으로도 원썬놈들을 더 많이 쓸어눕히고 꼭 영웅이 되어 승리의 날 다시 만나요. 박옥화 드림》

마지막말이 끝나기 바쁘게 전호가에 웃음꽃이 피었다.

《영큼한 총각! 어느새 이런 푹푹한 처널 사귀여놓았나.》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보지요.》

《이제 혼자서 속을 썩이지 말라구.》

통담과 웃음의 복판에 자리잡은 철민이는 말없이 히죽 웃으며 편지를 배낭속에 깊이 간수해두었다.

문득 그는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그 누군가의 눈길을 느끼었다. 그 눈길을 쫓아 뒤를 돌아보니 기통수의 그윽한 눈동자가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모두 이 옥화동무를 찾아가지요. 그 자리에서 철민동무와 결혼식을 보란듯이 차려줍시다.》

중대장의 이 제의는 그 즉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후 철민이는 전투의 여가시간이면 틈나는대로 편지를 썼고 받지 못한 편지를 봉창이라도 하듯이 옥화의 편지만은 어김없이 오곤 하였다.

보내올수록 편지내용은 철민의 안부보다도 전우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집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아져갔다.

팍아바이에게는 혼자서 적땅크 두대를 까부신 전투성과를 축하해주고나서 더 본때있게 싸워 꼭 영웅이 되라고 격려해주었고 나어린 전사 명성이에게는 그가 쓴 시를 전선신문에서 보았는데 참 좋은 시라는것, 우리 민청원들도 그 시를 베껴가지고 즐겨 읊는다는것, 앞으로 소원대로 훌륭한 문학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진정을 전하여 명성이를 기쁘게 하였다.

또 어느 병사에게는 그의 안해가 녀성보장이군으로서 온 군에 소문이 자자하다는것, 자기도 그 모범을 본받아 전선원호를 더 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그 병사의 가슴을 궁지로 흐뭇하게 하였다.

옥화! 그 이름은 중대군인들의 사랑과 정의 대명사로 되었으며 누구에게나 살뜰하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귀여운 딸, 친근한 누이의 모습으로 제각기 안겨와 싸움으로 달아올랐던 가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었고 또 그들에게 용맹과 위훈의 나래를 달아주는 억센 힘이 되었다.

어느덧 옥화의 편지는 철민이뿐아니라 온 중대가 기다리는 편지로 되었다.

어김없이 보내여오는 편지, 그것은 변함없이 역세게 싸워가는 후방의 모습이었고 병사들의 가슴속에 기어이 승리하고 돌아오너라 두팔벌려 기다리는 고향의 모습으로 간직되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으니 전승의 날 우리 옥화동무의 가슴에도 군공메달을 달아주자구.》

팍아바이병사의 이 제의도 만장일치의 《결정》

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고지를 빼앗으려고 소파리갈이 달려들던 놈들은 그날 어둑새벽부터 독을 쓰며 발악해나섰다.

이른새벽부터 시작된 싸움은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었다.

우리 전사들의 완강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앞에 질겁한 놈들은 끝내 술한 주검을 남기고 어둑과 함께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

중대가 입은 손실도 역시 적지 않았다.

앞장에서 중기관총을 휘두르며 호랑이같이 싸우던 철민이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병사들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되었다.

담가에 실려 형님어 사라져가는 그들을 바래우고난 중대는 또다지 전투준비에 달라붙었다.

이때였다.

명성이가 편지 한장을 들고 중대장을 급히 찾아왔다.

《중대장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명성이가 내미는 편지를 받아보던 중대장의 눈이 대뜸 커졌다.

웬일인가싶어 모여든 전사들의 눈들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놀라움과 의혹으로 가득 찼다.

《철민동지의 몸에서 떨어졌기에 제가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처 끝을 맺지 못한 편지였는데 옥화가 철민이앞으로 보내는 편지였다.

전투를 앞두고 홀로 한구석에서 편지를 쓰다가 놈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급히 옷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서는것을 모두가 보았었다.

그런데 철민이가 옥화에게 쓰는줄로만 알았던 편지가 오히려 옥화가 철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있는줄 누가 알았으랴.

모두는 입이 벌어붙은듯 말 한마디 없었다.

모두는 그제서야 기통수를 늘 마지막까지 바래주던 철민이, 어김없이 보내오던 옥화의 편지, 편지를 받으면 히죽이 웃으며 큰소리로 기쁘게 읽어가던 철민이의 깊은 마음이 헤아려졌다.

《원 참 사람두, 우릴 이렇게 속일수가 있나.》

팍아바이가 턱을 어루쓸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기통수동지도 영큼해요.》

명성이의 웅골진 목소리였다.

그러자 모두들 빙그래 웃었다.

그들은 《속아넘어간것》이 즐거웠던것이다.

병사들에게는 철민의 말이 결코 거짓말로 생각되지 않았던것이다.

《옥화》의 편지에서 그들은 얼마 멀지 않은 전승의 날을 보았고 승리한 래일에 살아갈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단 말인가!

감동에 젖은 눈길들이 서로 오고갔다.

《동무들! 승리의 날 우리 이 두 동무를 <책별> 주자구. 그러나 옥화동무에게는 감사를 줍시다.》

중대장의 말에 온 전호가 웃음속에 잠겼다.

싸움에서 승리만을 아는 사나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고지에 서린 포연을 밀어내며 하늘에 울려퍼졌다.

사랑과 철학

—런시 《사랑의 힘》을 보고—

김덕선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돌아와 안긴지도 일정한 세월이 흘러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심장에 파고드는 물음, 그들은 어떻게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의 안해들은 무엇으로 하여 수십년세월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었던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사랑과 철학의 시 《사랑의 힘》(오영재 작, 《조선문학》 주체93년 9호.)은 날이 갈수록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주며 새롭게 흥미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품의 철학성은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사상과 형상의 깊이에 달려있다.》

런시 《사랑의 힘》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들이 지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사랑의 힘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생활철학으로 하여 선군시문학의 화원을 이채롭게 하고있다.

사랑의 시가 오늘의 선군시대처럼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에 자리잡은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러면 런시 《사랑의 힘》이 안고있는 사랑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사랑과 믿음, 여기에 시의 철학이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은 미약하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밝혀냈는가 하는 시형상의 깊이, 여기에 시의 철학이 있고 사랑의 철학이 있다고 하는것은 당연할것이다.

런시 《사랑의 힘》은 첫시작부터 마지막시에 이르기까지 매 시련마다에 사랑은 믿음이라는 사상정서로 관통되어있으며 이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가에 대한 시인의 미학적발견과 그에 대한 시적형상으로 하여 시의 사상이 가지는 깊은 철학에 있다.

런시의 개별적인 시들인 《아직도 남아있는 젊음》에는 일흔이 다된 나이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젊음의 비결》, 《사랑의 눈》에서는 사랑의 눈이 본 《진리》, 《침묵》에서는 침묵이 가지는 《의미》, 《눈물》에서는 눈물에 대한 《정의》, 《안해를 위해서라면》에서는 사랑의 《절개》, 《<어머니> 와 <아기>》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초월한 《모성애》를 발견하고 그 시적정서를 믿음과 결부시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리하여 런시는 앞에서 분석해본 《젊음의 비

결》은 떠나간 남편을 40여년동안이나 변함없는 첫사랑의 감정을 간직하고 기다리는 믿음에 있다는 사상, 사랑의 눈이 본 《진리》는 남편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믿음이 본 산 남편의 모습에 대한 사상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가 지닌 사랑의 본질을 밝혀내고있다.

런시는 또한 침묵이 가지는 《의미》를 《신념의 닻》, 눈물에 대한 《정의》를 《믿음에 대한 환희》, 《행복의 눈물》, 사랑의 《절개》를 다른 길을 걸을수없는 《비전향》, 부부의 사랑을 초월한 《모성애》는 부부의 행복에 겨운 모습을 《아기를 안고있는 모습》으로 보는 환상과 랑만의 정서를 통하여 사람의 본질을 정서적인 시형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런시는 이와 같이 체험하는 각이한 심리정서적 계기를 통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가 지닌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렇다면 이 런시에서 중추적이고 정수적인 감정을 이루는 믿음이 사랑의 본질을 이루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시 《침묵》의 경우를 보자.

...

남편의 생사를 두고
가까운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해주는
그런 순간이면
너인은 침묵...
또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앉아
남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란이 아버지
살아계시나요
아니면 ...

그러나 그에겐
생사가 문제로 된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성전에 한몸 바친
그이를 잊는다면
이 행복한 땅우에서도
그것은 《전향》이었습니다

...

떠나간 남편을 잊는다는것은 《행복한 땅》에서도

《전향》으로 간주하는 안해의 정신세계, 그것은 조국을 위한 성전에 한몸 바친 남편이기에 그를 잊을수 없어하며 40여년 긴긴 세월을 변함없이 첫사랑의 감정을 고이 간직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신념이었던 것이다.

시 《눈물》을 보자.

...

그 누구와도 나누어보지 못하고
홀로 마음속에 자물쇠를 채우고
보석처럼 간직해온 그 믿음
아, 온밤 흘리고 흘린 너인의 눈물은
그 믿음에 대한 환희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 한생이 락엽처럼 흩날리고마는
그 믿음
가고가도 끝없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우람히 솟아있는
그 믿음의 성벽에 불을 비비며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이 믿음을 저버리면 자기의 한생을 락엽과 같은 인생으로 여기며 이 믿음이 허물어지면 자기의 한생이 없다고 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가 지닌 믿음은 조국애에 기초한 사랑관, 인생관이다.

이러한 사랑관, 인생관을 지니고있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나.

여기에 련시 《사랑의 힘》이 안고있는 믿음이 가지는 사랑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련시에서 믿음이 사랑의 본질을 이루는 철학을 띠고있는것은 사랑이 그 어떤 인정세태나 룰리도덕적감정이 아니라 혁명적수령관에 그 근본바탕을 두고있는데 있다.

시 《안해를 위해서라면》이 바로 그러한 시이다.

너인은 때없이
남편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란이 아버지
통일의 그날까지
수령님을 믿고
우리 장군님만 굳게 믿고
굴함없이 억세계 싸워주세요

...

이러한 믿음을 안고 《너인은 우리 당을 받드는 일에》 《자신을 깡그리 바쳐》 왔고 밤잠도 끼니

도 잊고 《남편의 뒤통까지 일하고싶어》 《온몸을 불태웠》 던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을 지닌 너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야말로 그 또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었다.

하여 이러한 안해를 둔 비전향장기수들의 심리를 대변하여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이런 너인을 안해로 둔
비전향장기수
그대 역시 안해를 굳게 믿었기에
안해의 마음
안해의 눈빛
안해의 체온이
언제나 그대곁에서
마음을 덥혀주고있었기에

그대 안해를 위해서라도
어찌 다른 길을 걸을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이러한 안해에 대한 믿음, 그것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믿고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굴함없이 억세계 싸워나가려는 비전향장기수들의 경신적지향이며 이것은 곧 안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절개였다.

시는 이와 같이 안해와 남편이 지닌 서로의 믿음이 순수한 사랑,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믿음, 혁명적수령관에 바탕을 둔 사랑의 세계로 심화시킴으로써 사랑의 힘이 가지는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정서적인 감흥속에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련시에서 제기한 사랑의 힘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긴긴 세월을 두고 인간으로서 상상할수조차 없는 모질은 악형과 죽음도 이길수 있었고 장구한 세월의 흐름속에 뒤덮여 잊을수도 있는 작별을 상봉으로 바꾸어준 기적을 낳을수 있었다는것, 이러한 힘,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시인의 강렬한 주장, 여기에 련시 《사랑의 힘》이 안고있는 사랑의 철학이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와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닌 이렇듯 고귀한 사랑도 조국의 품속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꽃피나고있는가.

이에 대한 절절한 시가 <<어머니> 와 <아기>>이다.

...

원췌앞에서는 것처럼 사납고
사자처럼 무섭게 노호하며 불복하던
그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안해앞에서는 아기가 되였습니다
오랜 세월 목말랐던

사랑의 그 힘앞에선 순해졌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잊지 않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권리로
안해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

부부의 사랑을 초월한 모성적사랑, 이러한 사랑은 사회주의조국의 품,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에게서만 느낄수 있는 사랑이다.

하기에 시인은 이 시에서 풍치수려한 구월산의 폭포를 배경으로 어깨걸고 환히 웃는 모습을 《어머니》와 《아기》가 서로 어깨걸고 환히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며 이렇게 눈물겹게 노래하고있다.

...

40년세월 감옥생활한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40년세월 애태우며 남편을 그리던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눈에는 그 사진이
갓 결혼한 신랑신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먼길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아기를
이제는 영영 놓아주지 않을듯
꼭 안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에는 죽음을 이기고 조국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과 그들의 안해가 끝내는 만나고야마는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

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미의 세계, 정서세계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만 인간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으로 된다는 시대에 대한 열정이 낳은 시적환상과 랑만의 세계이다.

이 시에는 또한 이들의 사랑을 무한히 아끼고 찬양하고 사랑하고싶어하는 시인의 그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함께 이들의 사랑에 대한 시대의 찬가, 시대의 축복이 비껴있다.

우리들은 이 시를 읽으며 진심으로 말하고싶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만 꽃피난 고귀한 사랑을 지닌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들이여 그리고 조국의 장한 아들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여! 어머니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행복하시라, 헤어졌던 사랑, 기다리던 사랑이 너무도 오래였기에 그 사랑 부디 천백배로 뜨거우시라, 영원하시라—

련시 《사랑의 힘》이 안고있는 사랑의 철학은 참으로 귀중하다. 오늘의 현실을 놓고 이 시가 가지는 미학정서적의의는 매우 크다. 그것은 사회정치적의미를 떠나 순수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을 동물화하고 돈과 직위로 사랑을 통락하는 온갖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사랑》에 대한 준엄한 선고로 되기때문이다.

련시가 이룩한 이와 같은 사상예술적성과는 비전향장기수들과 그들의 안해가 지닌 진실한 사랑에 대한 시인의 남다른 탐구가 낳은 귀중한 열매이다.

상기의 련시를 통하여 우리는 생활적이며 철학적인시는 선군시대 인간생활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한 시인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채삼 심장에 깊이 새겨보게 된다.

제대병사 편지

홍준성

이제는 중대에
나를 반길 전우들도
몇 남지 않았으련만
제대병사 나는 편지를 쓴다

떠나며 병실앞에 정히 심었던
애어린 잣나무도 키높이 자랐으리
염소며 토끼... 중대의 《식솔》들은
그사이 또 얼마나 불었을까

창밖에 비내리고 찬바람불면
그런 때면 도무지 잠들수 없다
어제날 내가 썼던 전호가에서
이밤도 지새울 전우들 생각해

그래서 일터에서 흘리는 땀조차

그 시절의 무게로 흘리고싶다
동지위해 목숨마져 서슴없이 내대던
그때처럼 순간들을 이어가고싶다

총대를 틀어잡고 방선을 지켰던
그 시점이 그리워
나는 오늘도 편지를 쓴다
세월이 간대도 복무의 숨결로
변함없이 고동칠 태일을 약속하며...

아, 정녕 나는 이 편지를
떠나온 중대에만 부치는것 아니거니
영원히 가지 않을 귀중한 시절
그 시절에 부치는 심장의 땡세를
나는 한생토록 쓰고 또 쓰리라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유산

김정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한 세상에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 가운데는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유산도 들어있다.

옛 고구려의 령토를 차지하고 고구려유민들로 세워진 발해는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혈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왔으며 그것을 커다란 공지와 자랑으로 여겼다.

고구려사람들이 이룩하여놓은 풍부한 문화의 터전 위에서 창작된 발해의 시가는 발해사람들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애국적주제의 서정시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들을 창작한 대표적인 시인들로는 양태사, 왕효렴, 인정, 정소, 배정 등을 들수 있다.

양태사는 발해국의 건국초기인 8세기에 활동한 문인으로서 발해 3대 문왕(737—794)때에 귀덕장군의 벼슬을 지냈으며 756년에 양승렬을 성사로 하는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갔던 사람이다.

양태사가 창작한 애국적주제의 대표적시로는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와 《눈》을 들수 있다.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는 양태사가 일본에서 방문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차린 연회에서 읊은 시이다.

왕효렴은 양태사보다 후기에 활동한 발해의 시인이었다.

왕효렴은 8세기말—9세기초에 활동한 시인으로서 발해 8대 회왕(812—817)때에 태수의 관직을 지냈으며 816년에 정사의 중책을 지니고 일본에 머물러 활동을 벌리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일본에 머무르며 있는 기간 많은 시가들을 창작하였는데 일본의 정객들과 시인들은 그의 시적재능에 대해 매우 탄복해마지 않았다.

그의 애국적감정을 토로한 대표적인 시로는 《달을 보고 고향을 그리며》와 《출운주에서 두척사에게》, 《산꽃을 노래하여》 등을 들수 있다.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를 창작한 시인들로는 이밖에도 시 《궁중에서 이레동안 연회를 차렸다》를 쓴 인정(8세기말—9세기초)과 배정(9세기말—10세기초)등도 있다.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들은 애국적사상감정을 반영하면서도 절절하며 서정이 풍만하여 사색적인 정서의 흐름속에서 강한 여운을 안겨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

가들은 당시 해동섬국(동방의 번영하는 나라)의 위용을 떨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중세 우리나라 서정시문학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귀중한 유산이다.

발해의 애국적주제의 시가유산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

양태사(8세기)

김정희역

서리 낀 밤하늘에 달빛이 흘러
은하수 유난히도 밝은데
이 나그네 고국생각으로
마음은 더욱 간절해라

긴긴 밤 홀로 앉아
시름은 싸여 숨막히나니
어디선가 문득 들려오는
이웃녀인의 다듬이소리

바람결따라 그 소리
끊어졌다 이어졌다
밤깊어 별들이 기울 때까지
쉽없이 울려오고 또 울려오누나

고국을 떠난 후
들어보지 못했던 저 소리
머나먼 이국에서
예전처럼 다정히 들려오누나

다듬이방망이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검푸른 다듬이돌
고른가 거친가

아마 연약한 그 몸에
구슬땀이 맺혔으리
옥같이 고운 두팔
얼마나 힘이 들랴

홀웃 입고 집 떠나간
남편의 옷 다듬질하나
규중의 찬 방에서
외로운 시름을 잊자 함인가

그대 모습 그려보나
물어볼길 없으니
부질없는 생각만
끝없이 서려드네

수만리 이국땅
낮설은 타향에서
그대 마음 생각하여
긴 한숨 내쉬노라

이럴 때 들려오는
외로운 다듬이소리
누가 알리오 이밤을
그대도 지새는줄

그렵고 그리운 마음
천리만리로 달려가진만
그리운 다듬이소리
찾아갈길 바이 없네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그 소리 찾아가보련만
나그네 시름 짊어서
잠 이룰수 없구나

눈

양태사(8세기)

김정희역

어제 밤 밤하늘에 룡구름 피어오르더니
오늘 아침 함박눈이 펄펄 날아내리네
수림속에 만발한 꽃 눈에 안겨오는데
봄을 알리는 새의 노래 들리지 않구나

달을 보고 고향을 그리며

왕효렴(8세기말—9세기초)

김정희역

고요한 여름밤에
떠가는 저 둥근달
얼마나 많은 산 밝게도 비치는가
이 강산 만물이 새롭게 안겨오네
님을 보낸 그대에겐 이밤이 더 슬프리
달을 보니 나그네도 마음이 상하누나

유모아

약값이 귀중한가 생명이 귀중한가

모스크바에서 린색하기로 소문난 장사치가 명
의로 이름난 체호브한테로 병을 보러 왔다. 청진
기로 깐깐히 진찰을 하고나서 체호브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병이 대단히 중합니다.》

《고칠수 있겠습니까?》

《약을 지어 드릴테니 자서보시오. 인차 나을
겁니다.》

체호브는 약방에 들어가 약 한봉지를 들고 나
왔다.

그 누가 천리를 멀다고 하였느냐
저 달은 그대와 나 함께 비치리

출운주에서 두 칙사에게

왕효렴(8세기말—9세기초)

김정희역

바다길 아득히 불어오는 마파람에
고향을 그리는 이 마음 실어불가
저 하늘 멀리로 날아가는 기러기
나그네생각을 이끌어가누나

다행히도 두분의 칙사가 이르러
나그네의 시름을 위로해주니
이역땅에 오래동안 머물러있어도
한순간에 시름이 사라져버리네

산꽃을 노래하여

왕효렴(8세기말—9세기초)

김정희역

꽃나무 봄을 맞아 곱게도 피었구나
갓 피어 옷는 꽃 그 소리 안들리네
주인이 날마다 손님에게 꺾어주니
나에게 안겨줄 꽃이 남아있겠는가

궁중에서 이레동안 연회를 차렸다

인정(8세기말—9세기초)

김정희역

귀국에 방문 온 이웃나라 손님에게
이레동안 궁중에서 높은 대우 하누나
무희들의 춤가락 바라다보느라니
마치도 봄날에 풍류속에 잠겼는듯

《값이 얼마나 됩니까?》

《100 루블입니다.》

《아니, 뭐 약 한봉지값이 그렇게 비싸단 말입
니까?》

장사치는 눈이 휘둥그래지며 물었다.

《싫으면 그만두시오.》

체호브는 심드렁해서 말하였다.

《너무 비싸서 그렇니다.》

《그래 이 약값이 당신의 목숨보다도 비싸단 말이요?》

선군시대 아이들

강옥녀

한여름 이야기

모자엔 풀잎 꽃아 위장을 하고
어깨엔 버들잎견장을 붙이고
아이들이 웅덩이에 뛰어들어
《보초》를 섭니다

풀덩굴새 빠금히 내민 얼굴엔
새별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머니, 놔둬시다
풀물들어 옷이 좀 어지러운들 뭐랍니다
풀가시에 얼굴이 좀 굵히운들 뭐랍니다

저 애들도 군사놀이에서 제 말은 임무가 있어
《초소》를 훌륭히 《지키》고있는데
보십시오 어머니
아이들이 《지켜선》저앞이
우리 마을 동구길이 아닙니까

지난날엔 우리 부모들이

침략의 불구름 몰아내며 지켜낸 동구길
지금엔 우리가 지키고
또 앞으로 저 애들이 지켜갈 동구길
바로 저 동구길을 그 누가 감히 넘본단 말입니까
새별눈이 반짝반짝 총알갈은데...

모자채양 비스듬히 돌려쓴
애들의 등뒤를 돌아보십시오
행복의 창문들이 웃고있는
우리 집 우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활력에 차넘치는 한여름이
아이들의 이런 군사놀이도 있어
내 하늘이라 마음놓고 줄당콩은 치달아오르고
내 땅이라 마음놓고 나무아지는 자라
푸른 숲 우거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가을들판에서

마을에서 복새판 퍼우던 군사놀이
이 가을엔 들판으로 몰아왔으니
여러분
벼가율이 아무리 바빠도
허리를 잠간 펴봅시다

수수대말 타고 찌찌
질풍같이 달리며 찌찌
길다란 회초리는 긴 칼인듯
강냉이짚무지를 확확 치며 달리는 아이들

얼마나 장합니까
원쑤놈을 단칼에 베어버릴듯
강냉이짚무지를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

큰길에 나가놀라고 주먹을 들었던
분조장아주버니마저도

유년시절로 돌아와
멋지게 풀대로 허공에 후려보니

아무렵 이 땅에
군사놀이땅이라 따로 정해있던가
웁푼한 구덩이면 그대로 《전호》
릉선은 그대로 《출발진지》인줄 아는데

내달려라 아이들아
땅땅 여문 이 벼알도
저 애들의 손에선 총알이 될지 어이 알라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도
포탄처럼 쓰일지 어이 알라

아 내 조국의 가을은 좋구나
풍요한 이삭을 가을하는
이 들판우에
아이들의 군사놀이도 무르익어...

통쾌한 겨울

눈으로 미제놈을 빗어놓으니
목표가 뚜렷합니다
여름내 가으내 군사놀이가
마치 이 겨울을 위해 있었던듯
처마의 고드름 똑 따서
서슬푸른 창검마냥 한손에 쥐고
아이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양코배기 미제놈을 향해
돌격명령이 내립니다

와—와
총창으로 찌르고
눈 빗어 수류탄을 던지고

결사전에선 그 누구나
용감한 영웅들입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또 빗습니다
이제는 더 큰 미제놈을 빗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없이
저보다 큰 미제놈을 빗습니다
제아무리 큰 미제놈도
단번에 까부실수 있습니다

그놈들과는 언제나 이긴다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배짱센 큰 담이
으쓱 자라는 겨울입니다

봄 선물

아이들을 밥상에 불러들이는
너인들의 목소리가
저녁노을에 비껴갈 때
신발에 게발린 흙을 탕탕 털며
꼬마군사들이 마을에 들어섭니다
성미 급한 철이 엄마
늦어온다고 꾸지람 맙시다
배나무집 남이 아버지
토끼풀바구니 비였다고 나무람 맙시다

아이들의 앞가슴을 보십시오
노란 민들레꽃
그것이면 저 애들의 대답이
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 로병들이 건넸던 락동강처럼

앞강 저끝까지 달리고왔는지 뉘 알며
안개도 모르다 잠든 문경고개처럼
뒤산을 치달아오르내렸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가슴에만
금별메달이 빛나듯
민들레꽃을 훈장처럼 달고온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언제나 이기고야 고향집에 돌아오는
아이들 그 마음에
만물이 움터자라는 이 봄이
우리 꼬마군대들에게
맨션참 민들레훈장을 선물한줄

경구, 격언

《문학을 한다는것은 결국 현실과의 투쟁을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거기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문제이다. 물론 많은 작가들중에는 이 어려운 투쟁에서 실패한 나머지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 작가의 진지한 투쟁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한 고귀한 실패를 위하여서는 한사람의 생애가 고스란히 바쳐진다고 해도 조금도 후회됨이 없을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진실성과 개성, 이것이 나의 구호이다.》

《예술작품은 정열의 프리즘을 통하여 본 우주

의 한 구석이다.》

《참으로 존귀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위나 명예나 재산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깊은 애정에 넘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 어떤 뛰어난 재간도 한가한 생활속에서는 썩고만다.》

《수치를 느낄수 있고 또 느껴야 하는것은 오직 하나 한가한 생활이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잘하라.》

《삶은 중단없는 기쁨으로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수 있다.》

어머니의 금지

장봉순

오늘은 셋째가 군대에 나갑니다
어려운 때 자랐다고 하지만
키도 부쩍 커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건만
군복을 입으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진정 이 애가 옳긴 옳습니까
통강냉이죽을 놓고 투정질하던
우리 집의 철없던 그 막내가
그렇게 에미숙을 태우던 그 철부지가

한줌 낱알이 것처럼 귀하던 시절
물고기잡이로 해지웠다고
숙제장 퍼놓고 종아리를 찼던 밤
내 마음도 아파
온밤 아들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군복을 입고
저때문에 어머니머리가 희었다고
제법 어른스레 용서를 빌 때
어쩐지 뿌연게 눈앞이 흐리어
울며 웃으며 안아보는 아들은
어제날 애티를 다 털고
군복을 입은 장부의 새 모습입니다

애지중지 젖먹여 키울 때
요람가에 눕히고도 잠 못 들며
유모아

온밤 자장가를 불러줄 때
때로 아픈때도 들며 바라던
이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아 키운 보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련도 고난도 웃으며 헤치고
천만고생 달게 여기며 이겨온 나날이
이런 날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나날이 아십니까

내 남정들처럼
저 발전소건설장에 뼈심을 바쳤습니까
곳곳에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에
피와 땀을 바치며 낮과 밤을 보냈습니까
농사일과 가정일 맡아안고
시대와 함께 마음을 맞추며
또 자식들 위해 바치는 사랑이
한생 마를줄 모르는 어머니가 아십니까

정녕 총대란 무엇이겠습니까
혁명의 총대인
선군시대의 끝끝한 장부들
우리 장군님의 병사로 키워 조국앞에
내세우는것이
이 어머니의 금지가 아십니까

참다운 사랑이란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너드 쇼는 꽃을 몹시 사랑하였다. 어느날 한 손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뜻밖에도 꽃병에 꽃이 한송이도 없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말했다. 《선생님은 꽃을 사랑한다고 늘 말
씀하시는데 그건 모두 거짓이었군요. 집에 꽃이 전혀 없는걸 보니...》

《나는 꽃뿐아니라 아이들도 무척 사랑하지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방안에 놓아둘수
야 없지요.》작가가 대답하였다.

《전국문학축전》 총화가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5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문학축전》이 끝났다.

이번에 입선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소설부문

단편소설 《포화속의 전당》

리정수(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단편소설 《정화》

최성진(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김해성(함경남도 단천시 단천광업건설사업소 로동자)

혁명전설 《태양서체》

김우경(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시부문

장시 《수령님께 아뢰는 심장의 이야기》

김만영(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시초 《나는 전쟁로병이다》

조태현(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제51인민반)

시 《그릇값에 대한 답시》

류동호(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시 《산촌의 천지개벽》

문용철(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시 《젊은 벗들에게 하고싶은 말》

박세옥(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태양의 꽃》

박경심(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백두산엔 노래도 많아라》

김석천(만수대예술단 작가)

가사 《오늘을 옛말할 날 꼭 옵니다》

송찬웅(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아동문학부문

단편소설 《해님은 눈부시다》

최치성(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동화 《불꽃혼장》

리성철(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동시 《아래목에 퍼드릴가 웃목에 퍼드릴가》

백광명(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 평론부문

평론 《새로운 서사시적화폭의 창조와 구성의 기교》

리창유(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